

-----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  
천국으로 가는  
-----  
확실한 길인가?  
-----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인가?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초판 1쇄** 2016년 10월 1일  
**2쇄** 2018년 10월 1일  
**ISBN** 978-89-94728-21-6 03230

**지은이** 김 홍 식 MD  
**발행인** 김 영 란  
**발행처** 북 산 책  
**북산책 대표** 김 영 란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5  
한국 010-2016-7133  
미국 1-408-515-5628  
**이메일** 4mybook@gmail.com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인가?

김 홍 식 MD 지음

북산책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기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마 7:21, 눅 13:24)

‘이 글은 재미도 없고 지루합니다. 재미를 찾으시는 분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신의 존재나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풀고 싶은 분이든 그곳을 꼭 면하고 싶은 분만 읽으십시오. ‘Back to the Bible’이 전체 글의 주제로써 성경 기준에 배치되는 것은 타협함 없이 그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본인 성경 자체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특정 교파의 교리를 더 중요시 하는 분이든 종교성이 높은 분의 마음에는 걸림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6년 9월  
김 홍 식 M.D.





## 차례

이 글을 쓰면서\_\_9  
 인생의 여정 이렇게 끝내려 합니까?\_\_12  
 서문\_\_23  
 총론\_\_27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_\_30



### 제1부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1.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_\_35
2.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상\_\_37  
\*진화론은 과연 과학인가?\_\_38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_\_43
4. 신화 같은 창세기도 사실이란 말인가?\_\_45
5.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_\_47
6. 이스라엘 역사의 개요\_\_51
7.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대인의 고난\_\_54
8. 선민이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나?\_\_59
9. 예언대로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_\_61
10. 회복 후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_\_65
11. 이스라엘의 회복 다음엔 ‘휴거’\_\_68
12. 휴거는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시작\_\_74
13. 7년 대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_\_77

- 14.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_\_ 84  
\*언제쯤 말세가 올 것인가?\_\_ 88
- 15. 세계역사의 예언\_\_ 90  
\*적그리스도의 출현\_\_ 93
- 16.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70 이레)\_\_ 99
- 17. 지옥과 두 개의 갈림길\_\_ 103
- 18. 이것들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_\_ 107  
\*개인 인생의 여정은\_\_ 109



##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 19.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_\_ 121
- 20. 죄의 시작\_\_ 123
- 21. 인간의 근본 문제=죄\_\_ 125
- 22.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나다\_\_ 126
- 23.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_\_ 129
- 24. 죄의 기준은?\_\_ 132
- 25. 죄의 구체적인 목록\_\_ 135
- 26. 가장 큰 죄\_\_ 143
- 27. 종교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_\_ 145  
\*기도에 대하여\_\_ 149
- 28.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_\_ 157
- 29. 내 생각은 항상 옳은가?\_\_ 163
- 30.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심\_\_ 165



### 제3부 그 해결 방법은?

- 31. 구원의 계획\_\_ 175
- 32. 나의 운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_\_ 176
- 33. 어느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_\_ 179
- 34. 십자가의 예언\_\_ 187
- 35. 삼위일체\_\_ 192
- 36.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_\_ 195  
\*자신을 진단합니다.\_\_ 200
- 37. 해결책은 ‘탄생’으로, 탄생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_\_ 211
- 38. ‘머리’로 믿는 것만이 아닌 ‘마음’에 경험된 믿음\_\_ 214
- 39. 내가 ‘믿는(영접한)’이 아닌 ‘믿어진(영접 되어진)’ 믿음\_\_ 217
- 40.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_\_ 227
- 41. 죄의 해결은 오로지 ‘피’로만\_\_ 229
- 42. 그림자인 짐승의 피\_\_ 232
- 43. 실제인 예수의 피\_\_ 235
- 44.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_\_ 239
- 45. ‘대신’ ‘담당’하셨으니\_\_ 248
- 46. 구원은 옷으로 덮어 버리는 것\_\_ 251
- 47. 구원은 공짜로\_\_ 255
- 48.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_\_ 262
- 49. “내가 곧 길ियो...”\_\_ 266
- 50. 이제 죄는 ‘믿지 않는 죄’ 단 한가지뿐\_\_ 271
- 51.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_\_ 277
- 52. ‘율법’은 유대인에게만\_\_ 280
- 53.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리오\_\_ 283
- 54. 그래도 거절하면\_\_ 287

이 글을 마치며\_\_ 291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_\_ 292



## 이 글을 쓰면서

소위 모태교인으로 젊은 시절부터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함 없이 막연하게 넘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Are you saved?’ ‘Are you born again?’ 하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구체적인 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단한 대화 도중 밀도 끝도 없이 마태복음 9장 12절을 펴서 읽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무나 익숙했던 구절인데 그 대화의 분위기상 그것을 읽는 순간 그 분이 왜 이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인 너를 찾아올 필요가 없듯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너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있느냐 하는 단도직입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교회활동만 열심히 했었지 내가 죄인이라고 심각

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으니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물론 해본 일도 없었음을 처음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같은 것은 물론 있을 수 없었고요.

예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찾는 유일한 목적도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전부인데, 나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이요 교회생활만 열심히 했었지 심각하게 그런 것을 찾으려 했던 사실도 없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어온 사람인데 만약 교통사고로 오늘 죽는다면 지옥 직행임을 이론적으로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처절하다고 표현해야 될 고민과 씨름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2,000년 전 먼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했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니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에까지 확실하게 와 닿도록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단어 자체도 유치한 ‘천당’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천당이라는 곳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가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등 많은 고민과 오랜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런 끝에 답을 찾게 된 후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며,

그들이 쉬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확실히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심 솔직한 기독교인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내용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요 사실 머리로 이미 아는 성경구절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길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냥 얘기하는 대화 집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책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는데, 이왕 써놓은 것이 복음전파에 도움된다면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권유에 용기를 얻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지난 반세기를 고생으로 헌신하면서, 또 오로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며 나를 보필해 온 아내에게 결혼 50주년 선물로 바치려 합니다. 기술면에 도움을 준 아들 John과 딸 Ginny, 멋진 표지 사진을 제공해 주신 박승원 사진 작가님, 그리고 복잡하고 무질서한 글을 잘 정리하고 교정해 주신 『복산책』 김영란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라구나우즈에서

김홍식



## 인생의 여정 이렇게 끝내려 합니까?

십여 년 전 한국으로부터 고등학교 동창생 주소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 당시 7개 반이었던 친구들 중 1개 반 정도 숫자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적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사망 이후 그 주소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 어느 한곳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 사망 이후 주소록에 지금 그들의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를 상상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로원으로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A letter written from a person to his friend.’라는 전도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간 어느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쓴 것인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은 크리스천이었으면서 왜 나에게 전도를 해 주지 않아 내가 이곳에 오도록 방치했느냐는 원망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친구들에게 성경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마음에 자극을 받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주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생각하며 틈틈이 써 보냈던 것들과 또 신문에 가끔 기

고했던 글들을 주변의 권고도 있고 하여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도움이 되어 주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지난 50년간의 의사로서의 나의 생을 돌이켜 볼 때, 환자에게 약간의 고통 경감이나 ‘일시적 생명’ 연장에는 도움이 되어주었을지는 몰라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날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그 소중한 것을 더 늦기 전에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폭포수가 되어 갑자기 낭떠러지 아래로 쏟아지기 직전까지의 나이아가라 강은 한없이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조금만 더 흘러가면 폭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들이 술을 마시며 평화롭게 보트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조금씩 경고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폭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의 급한 심정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폭포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종교’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그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현실적이고 심각한 나의 운명의 문제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이지만 지난 50여년간 그것을 일상 생활로 보아왔던 한 직업인의 관점이라 양해하시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요 그날이 언제 일까만 남아 있을 뿐 나도 어느 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그냥 덮고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question 인 것입니다. 과연 거기가 끝 종점인가 아니면 많은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기서 부터가 또 다른 시작점인가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생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제 삼자에게는, 또 직업상 그것을 일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숨만 끊어지면 그것이 전부인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하나의 통과 과정일 뿐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그 이후 어느 기간 동안 이별로 인한 슬픔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본인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끝’이라면 차라리 좋으련만 사후 세계가 있다느니 지옥이나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 이 문제의 확답을 얻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사후 세계도 또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만약 그곳에 가게 된다면 하는 생각에 봉착했을 때 해답을 얻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치적으로 성경이 거짓 아니면 참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일 것인데 만약 거짓이라 해도 예수라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었다는 것 이외에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만약 참이어서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라면 나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임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도 되지 않게 무지막지하고도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년 100년도 아닌 ‘영원’토록 그곳에 집어넣고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말도 되지 않게 무자비한 분인가 하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해 보았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으로라도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문제가 아닌 나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생명’의 문제로서 해답을 찾지 않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임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태평양 가운데 하와이라는 섬이 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내 의견에 구애받음 없이 항상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한다는 논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만약 지옥이라는 곳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위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에서 종교의식과 program들에 성실히 참여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곳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등, 복잡한 생각 속에서 ‘Better safe than sorry’의 길을 택해 답을 찾는 최선의 노력까지는 해보리라는 태도 덕분에 어느 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이 책의 글들을 ‘종교’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조직검사가 암으로 나오지 않을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종교가 아닌 실지 나의 생명에 관한 상황이듯,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밤 생을 마감한다면 그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명’에 관계있는 것 아니더라도 생활에 활력을 주는 취미 활동 찾는 것도 액세서리로 필요하지요. 그러듯이 종교에 관여하여 대인관계나 마음의 안정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더 예뻐지도록 더 젊어 보이도록 하는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 같은 생활에서의 액세서리 차원이 아닌 나의 생사가 걸린 암 제거 수술 차원의 차이임을 인식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 \* ‘인생의 여정 이렇게 끝내려 합니까?’

친구들에게 보냈던 제 글을 목사가 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쓴 제목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제목 사용합니다.

‘LA에 사는 김홍식 친구가 쓴 글을 저에게 보내왔기에 전합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꼭 한번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을 보낸 이유는 내세에 대하여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혹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을 지라도 기왕이면 천국 준비를 한다면 지옥에 갈 염려는 전혀 없으니까 매우 현명한 선택이지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았건 높은 자리에 있었건 노후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코앞에 다가온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는 한 번의 기회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됩니다. 세상 떠난 후에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는 말씀이지요. 지혜롭게 삼시다. (중략)

한복수라는 이 친구는 1957년도 고등학교 졸업 당시 소위 '서울공대 입학 준비반'이라고 불리던 3학년 7반 같은 반이었습니다. 또 그 반에 있었던 유종호 등 서울공대를 들어간 가장 우수했던 친구들 두 사람이나 공대를 나온 후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0년 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에 그들의 소속 교파나 그 이후의 활동 등은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소위 좋은 학교 나오고 성공적 인생을 살던 공학도들이 어떤 동기로 목사가 되었는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다른 공학도 출신으로 이웃에 사시는 이지춘 교수라는 분이 얼마 전 어느 노인회 모임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평범한 질문인데 되 뇌이며 생각하면 실로 심각한 물음입니다.

서울 공대를 나오시고 40여 년 전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미국 유수 공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교수생활을 하시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기에 소위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단칼에 정리하고 목사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셨는지, 소위 최고 지성인의 질문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북의 핵 도발, 이슬람 terror, 말세, 지구온난화, 범죄증가, 경제공황, 가정문제, 암 진단, 배우자의 죽음 등등이 참석자들의 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에게 직접 이 질문 받으셨다 가상하며 이 세상이 아닌 '나'에게, 특히 노년에 들어선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으로만 말고 실지로 종이에 당신의 답을 적어보시기 권합니다.

### \*이제 늙었는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닥터 김, 자네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 우리가 이제 늙었는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죽음에 대해 만반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네. 만약 지금 죽게 된다면 나는 섭섭해 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죽음에 대한 공부라는 게 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죽음이 닥쳐왔을 때 반가이 죽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

이 질문은 우리 인생 모두의 공통된 가장 심각한 질문을 대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보낸 80대에 들어선 Dr. 조성내 라는 제 친구는 신문에 불교 칼럼도 많이 쓰고 세계적인 New York Columbia 대학에서 정신과 전문의로써 의사들을 지도했던 정신의학자입니다. 초등학생마냥 순진한 표현을 썼지만 이제 인생 종지부를 찍을 시기를 맞이하려는 정신과계

한 거장의 소홀히 넘겨버릴 수 없는 솔직하고 실로 심각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숨을 거둔 후 눈을 떠 보았더니, 그동안 믿지도 않았던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어서 내가 그곳에 와있는 것이 만약에 만에 하나 나의 현실로 되어있다면?

그런 유치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는 셈 치고 한 번쯤은 따져 봐야하는, 또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그곳을 면하게 되어 있는 걸까를 확인하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듯이 아마도 이분들도 사물을 볼 때면 의문을 풀지 않고는 그냥 넘기지 않는 과학자적 태도로 인해 조물주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며, 여러분들께도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는 ‘종교’ 방식 아닌 이치적으로 따지는 ‘과학’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Brain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조물주가 생물들의 뇌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종류대로 각기 특성 있게 만들었지, 소위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brain의 지능(intelligent) 수준 차이의 문제가 아니요, 뇌 속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부분 자체를 창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짐승들이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해도 앞으로 10억 년 진화하면 개가 컴퓨터를 만들고 원숭이들이 오케스트라 만들어 연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뇌는 그런 능력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와 여치 얘기에서 개미가 겨울 먹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들이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 하는 두뇌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러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평생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요, 붕어가 10억년 진화하여 발전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반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진화되어서가 아닌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reasoning, 즉 이치를 따지고 의문을 가지며 장래에 대해, 내세에 대해, 고향에 대해, 양심에 대해 생각하는 brain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사용하여 의문들을 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100만 불짜리 수표를 주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면 그 책임은 '수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용법을 몰랐던 자신의 무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19)

즉, 과학의 법칙, 우주의 운행 인체의 신비 등에 의문을 갖고 관찰하고 연구하면 조물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 7:6)는 말씀은 그런 것 찾도록 고차원적으로 창조 되었음에도 그런 brain power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먹고 사는 저차원적 문제에만 매여있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진리를 줄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Science계에는 '저절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치를 아직 찾지 못하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지 저절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하여 저절로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과학을 모독하는 미신적 태도입니다. 최소한 과학이나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저절로’라고 포기해 버리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겠노라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나와 같은 연배는 한국근대사의 온갖 고난을 통과했던 세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 소위 성공을 이룩하려고 무척이나 고생을 했던 세대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한 우리들이기에 ‘인생의 여정 이렇게 끝내려 합니까?’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이라는 것, 내세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로 사실인가에 의문을 가지고 꼭 한번 찾아보리라는 태도를 갖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된 친구들의 교파나 소속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교파 어느 소속의 사람이든 ‘예수라는 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내 죄 문제가 다 해결 되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의 가르침은 내게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옳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며, 다른 것에 귀 기울여보겠다는 유연성과 신사적 태도 한 번쯤은 가져보길 권합니다. 이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가 또 그 만물의 운행의 원리가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위 intelligent designer 없이도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인간이 이 작은 머리로 그런 존재가 있느니 없느니 논하는 것은 내 창자 속에 있는 세균들이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는 것보다 더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론은 잠시 접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잠시만이라도 가져보시라는 권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미련한 자는 자기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3:5, 12:15, 18:2, 28:26)

지옥 같은 ‘미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로 있을 경우를 상상이라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황을 한 번쯤은 상상이라도 해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죽은 후 눈을 떠 보니 지옥에 와 있음을 알게 되는,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는 끔찍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경우일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가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투자할 때, 은행 서류 서명할 때 금전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왔습니까?

지옥이 진짜로 있는 곳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 그런 것은 가짜더라 하는 것과, 가짜로 알고 살았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 진짜여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죽고 싶어도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와 있게 된 경우를 가상하며, 이대로 그냥 사는 것과 찾아보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 중 어느 것이 현명한 투자인지 계산해 보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찾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몫이지, 목사나 신부나 또 다른 어느 제삼자가 대신 책임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석에 섰을 때는 나 홀로가 심문의 대상이지 나를 위해 변호해줄 사람도 없고,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다녔던 교회나 내가 속해 있던 교파 이름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격언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말대로 '그래도...혹시나... 만약에...' 하는 쪽으로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돌려보시기를 다시 한 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비록 졸작이지만 몇 시간만 시간 할애하여 이것 읽어 보시고는 성경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껴져 더 찾아야 할 필요성만이라도 느끼시게 된다면 저자로서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혹 전도용으로 주변에 권하시려면 download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www.bbmedicalmission.org](http://www.bbmedicalmission.org) (Back to the Bible Medical Mission)



세상을 살다보면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씀대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통보를 아침에 받았다 해도 그날 오후에 불치병 진단을 받는다면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만민들이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이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시 49:1, 2) 하는 이 말씀은 세상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어느 특정 종교만이 그것을 논할 특권을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석가모니나 공자님도 불교나 유교라는 종교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했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하여 발전된 것이 중국에는 그런 이름의 종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나 하나님을 전유물인양 제한시킨 것이지, 사실 예수라는 분은 특정 종교 울타리 안에서 교주 노릇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인류 전체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조물주는 누구나 똑같이 공유하는 우주를 만



드셨고 똑같이 비나 공기를 주신 똑같이 공유할 창조주신데, 일부 편협한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만의 하나님으로 축소 전락되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대화하려고 었드린 대학교수를 다른 학생보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키를 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수님을 아이들 중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세계사 성인들 중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분을 높이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그 장본인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유치원생’들 중에서 석가모니나 공자보다도 인생의 ‘문제’를 고뇌했던 학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같은 유치원 복은 입었지만 실은 학생들 중의 한 명이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라도 이 글을 읽기 전 이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고 안 믿고 오는 상관없이 항상 사실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해도 만약 성경이 사실이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과 유향 못”이라고 기록된 지옥도 ‘사실’이요, 성경대로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나는 그곳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논리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려니와 만일 사실이라면 나의 운명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 80년 긴 여정 중 8시간 정도만 투자해 이 글을 전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후에 지옥이라는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본 것은 단지 8시간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8시간 투자가 싫어 거절하였는데, 죽은 후에 보니 성경이 사실이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풀무 불에 던져 넣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자신의 운명인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살고 싶거든 이 도시에서 12마일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뼈라가 1945년 8월 3일 히로시마에 뿌려졌고 8월 6일에 원자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고 믿지 않았던 20만 명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지옥의 존재를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기회에 재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외국 여행을 갈 때 여권 확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행 비행기를 타려는 시점에 천국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법 조항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전하는 직업과는 거리가 먼 ‘의사’ 타이틀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 합니다. 나는 신학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누구에게 성경을 정식으로 배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위안 삼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무식하던 그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요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만 깨달아집니다.

장관인 아버지가 시골 아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금싸라기 시장통 땅을 도로 부지에 포함시키기로 방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으니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 빨리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것을 읽고 빨리 행동하라는 것이지, 편지를 언제 어디서 기록했으며 문법이나 문장 표현력 등을 연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 5:3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보내신 것은 이것을 읽고 빨리 생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성경공부’나 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화법으로 ‘성경지식’은 전수해 줄 수 있겠지만 ‘생명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대화의 상대가 무식한 군중들이었음을 생각하며 신학적인 깊은 의미나 교리는 신학자에게 맡기고 무식한대로 전하려 합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이 폭탄을 안고 극장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빨리 극장에 가서 피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극장 직원에게만 책임지울 일이 아닌 누구든 그 위험을 아는 모든 사람의 임무입니다.

나는 인간의 육신을 취급하는 내과와 정신을 다루는 정신과 두 가지를 다 전공하였기에 종교를 논해도 아주 엉뚱하지는 않으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책을 쓴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책을 집필한다기보다 성경책을 펴놓고 마주 대화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회에 성경공부 궁극의 목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 또는 확인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경공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 나를 공부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Format에 구애받지 않고 했던 말이나 예화나 성경구절을 반복 인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California Laguna Woods에서



성경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초보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분을 인정하든 않든 인류 역사를 시기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라는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분이 오기 이전을 B.C.(before Christ : 예수 이전)라고 하고 이후를 A.D.(Ano Domino-주 후)라고 분류합니다.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자들을 한 권으로 편집한 것으로, 예수 이전인 B.C.에 기록된 39권을 구약, 이후인 A.D.에 기록된 27권을 신약이라 합니다. 총 40여명의 저자들에 의해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한 것을 후대에 편집해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됐을까 하는 의문은 학자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많지만, 기록 자체의 진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고 광범위하기에 창세기 첫 장부터 순서대로 읽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첫 장부터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느니 옛새 만에 만들었다느니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더 읽다 보면 돼지고기는 절



대 먹지 말라고 하다가 뒤에는 아무거나 먹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다가, 날짜에 의미를 부여해 이 날 저 날 구별하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다가, 다른 곳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같아 각자 편리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오늘날에 수많은 교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위치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로 찾아오면 큰 보화를 주겠다는 말에 세계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만 피로할 뿐입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대충 그곳이 어디쯤이라고 대략 윤곽을 잡아준다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행 8:30)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딤후 2:15)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달된 편지를 읽은 후 대성통곡하는 친구를 보고 사유를 물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그 편지는 옆집 것으로 잘못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은데서 온 착오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세 부류로 분류하고 각 편지마다 받는 대상을 명기했습니다. 한 예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편지를 받은 대상은 주소가 분명히 유대인이고,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편지를 받은 대상은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엄격하게 구분해 시대마다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절기나 특정한 날짜에 의미를 둔

것은 구약시대에 해당된 것으로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5:39, 20:31)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오랜 종교생활을 했고 높은 직분을 받았어도 영생을 얻은 경험이 없다면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성경을 소중한 책으로 모시고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행 28:26)는 말씀과 같이 성경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는 예수가 두 번 온다고 되어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는 구원자로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

이것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자’는 표현인데 지금 어디에 있기에 돌아가자는 걸까요? 이 말은 지금은 ‘전통’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게임을 가상해 보겠습니다.

한 팀이 1,000명씩인 두 팀을 만들어 A팀 B팀을 각각 일렬로 세웁니다. 각 팀에게 똑같은 1m 노끈을 보여주며, 첫 사람부터 차례로 잘라 다음 사람에게 보이게 그 길이대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A팀은 매 사람마다 1mm씩 길게, B팀은 1mm씩 짧게 잘랐다고 가정하면, 1mm는 작은 차이지만 1,000번째 사람의 노끈 길이는 A팀의 2m, B팀은 1mm가 되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만약 각 사람 모두에게 1m 원본을 보여주고 자르라고 했더라면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원본 아닌 옆 사람의 것을 본 따도록 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형태 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원본 성경과는 먼 엉뚱한 모습입니다. 원본보다는 전통을 기준으로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변화가 조금씩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다가 자, 오늘이 일요일이니 다들 예배드리자며 오늘날

형태의 예배의식을 갖추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현재에 길들여져 이제는 전통적인 것이 정통이 되고 원본대로 하면 오히려 이단으로 생각하도록 판단기준 자체가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는 북치고 기타 치는 시끄러운 예배가 불과 50년 전 어느 교회에서 행해졌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곳은 하나님께 불경죄를 자행하는 이단 집단으로 분류되어 노회로부터 탈퇴 당했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온 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하고는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노회 재판에 회부된 결과 장로교에서 축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본대로 하는 것이 번잡하기 때문에 성경의 규정을 어기며 물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간소화했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둔 전형적인 예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라고 이미 오래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의 변질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마 15:6~9 새 번역 성경)

만약 어느 학생에게 현대 기독교의 교회나 예배 모습을 원본인 성경 기록에서 찾으라는 숙제를 낸다면, 그 학생이 그 숙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태평양을 향해하다 조난을 당해 어느 섬에 도달하였는데, 그 섬은 외부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기독교가 있다는 것

도 전혀 모릅니다. 그 섬에서 구조될 때까지 일 년 정도 유하며 전도한 결과 1,000명 섬 인구 중 200명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구조되어 섬을 떠날 때 성경 한 권을 주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0년 후 섬에 돌아와 보니 500명 정도로 기독교인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상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 모습과 같을지, 비슷한 점 10%만이라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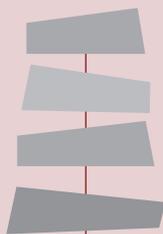
그들 모습이 성경원본 대로의 모습이려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영락 없는 이단 집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원본에서 멀리 떠나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요, 만일 전통과 원본이 상충하여 하나만을 택해야 할 때 어느 편을 택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스타일과 다른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heart)을 보시지 외형적인 것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전통은 배제하고 Back to the Bible 원본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 제1부

#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1.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2.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상  
\*진화론은 과연 과학인가?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4. 신화 같은 창세기도 사실이란 말인가?
5.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6. 이스라엘 역사의 개요
7.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대인의 고난
8. 선민이라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나?
9. 예언대로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10. 회복 후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
11. 이스라엘의 회복 다음엔 '휴거'
12. 휴거는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시작
13. 7년 대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14.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  
\*언제쯤 말세가 올 것인가?
15. 세계역사의 예언  
\*적그리스도의 출현
16.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70 이레)
17. 지옥과 두 개의 갈림길
18. 이것들은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 인생의 여정은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길

## 1.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나는 모태교인으로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오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질병의 60%가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과대학시절 배웠지만, 실지 내과 의사로 환자를 대하고 보니 그보다 훨씬 많은 80%쯤이라는 생각이 들어 후에 정신과도 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공부를 하면서부터 기독교의 모순점들이 눈에 보이면서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불안 공포 같은 정신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절대자’의 존재설정이 필요해 인간이 고안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심리학 이론은, 거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모든 종교들은 그래도 기독교는 예외라며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또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모순된 행태들을 보면 볼수록, 기독교도 그런 종교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상상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새벽마다 찬물 떠놓고 뒷마당에서 자식을 위해 두 손 모아 비는 것은 미신이라며 경멸의 대상이 되고, 도시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식 위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종교라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비는 모습이나 그들의 교육 정도 등 외형적 차이만 있을 뿐, 내면 심리상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힘이 강한 쪽은 진리로 군림하고 약한 쪽은 밀리는 힘의 원리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체면이나 창피를 초월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분석한 것은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실 속마음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 중에 잃어버린 다섯 살짜리 아들을 어머니가 십 년 만에 찾아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당신이 내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라며 믿는다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한다면, 심리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시골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 이 애가 나를 어머니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기독교계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눈을 뜨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인상 찌푸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있다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상상대로 떠올리며 그를 찾으려 안간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떠올리는 ‘하나님’과 물리학 박사 교수님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대상일까? 재벌 집 아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평생 고생하며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부르는 하나님, 경건한 천주교인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성령받았다며 양팔 쳐들고 흥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대상일까?

아무리 분석해도 ‘하나님’ 그 단어만 같을 뿐 다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부르는 대상은 참 하나님일까 하는 생각에 미치자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더 이상의 추구는 포기하고, 다른 종교보다는 덜 미신적이고 더 현대적이라는 차이일 뿐 기독교도 종교들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상담을 요청하면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답하는 목사님들을 보아온 터라 그들과 상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 ‘무조건 믿는다’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믿을만한 조건들이 충분하고 마음속에 그것들이 납득될 때 저절로 생기는 ‘수동적’인 현상이지, 내가 ‘믿습니다’ 하며 ‘능동적’으로 억지로 다짐하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믿으려고 노력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기독교라는 ‘종교’와 ‘성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계의 불합리를 보는 대신 성경으로 돌아갔더라면 갈등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독교계의 불합리한 점들을 인식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성경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매주 주보에 현금자 명단과 액수를 발표하는 문제, 금식이나 기도할 때 은밀하고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데 오히려 그 반대를 권장하는 문제 등등, 성경과 다른 정도가 아닌 오히려 정 반대 되는 것들이 오히려 정상인 것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때문에 불만을 감히 표출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뢰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search, examine)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행 17:11)라는 말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덮어둘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이에요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 2.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상

이런 갈등 중에서도 우주의 운행이나 자연과학 특히 인체의 신비를 볼 때 절대자의 존재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주의 창조나 모든 과학의 법칙들은 그 맨 위에 절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에 비해 그분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각종 외국어로 쓰인 책들이 가득히 진열된 엄청나게 큰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린애는 누군가가 그 책들을 썼을 것이라는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썼는지 라든지 거기 쓰인 언어들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애는 그 책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순서에 의해 분류되고 정돈된 것은 어렵듯이 짐작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게 정돈되어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에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법칙들을 희미하게만 알 뿐입니다.’(The Spirit manifest in the laws of the universe and God reveals Himself in the harmony of all that exists. The harmony and beauty of the mind of God as it was expressed 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its laws.)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 하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20)하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진화론은 과연 과학인가?

‘진화론’이라는 학설이 생겨나 우리의 머리를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그것은 과학적 또 수학적 계산에 위배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버젓이 ‘과학적’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이라는 것이 물질로부터 우연히(by chance) 시작되었고 또 우연

히 진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무생물이 수없이 많은 단계의 화학반응을 거쳐 ‘우연히’ DNA 하나로 진화하려면 5경 년(5 million billion year)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인간의 세포와 같은 정교한 고등세포까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고철을 쌓아둔 쓰레기장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쓰레기 고철들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것저것들이 ‘우연히’ 연결되어서 정교한 747 점보기가 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생성의 기원을 150억년으로 보는데 수학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전무합니다.

우리 몸은 약 60~100조 개 세포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1초에 한 개씩 세면 300만 년이 걸리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포마다 그 속에 핵(nucleus)이 있고 핵 속에는 유전인자인 DNA가 사다리 모양으로 꼬여 있는데, 이것을 전부 펴면 태양까지 700번을 또는 태양계의 가장 끝 별인 명왕성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DNA를 구성하는 amino acid isomers에는 D-form과 L-form이 있는데, 이 연결 선상에 D-form이 섞이면 세포가 파괴(toxic)되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긴 DNA chain은 전부가 L-amino acid isomer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자의 주장은 진화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무작위’(natural selection)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비율은 50:50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100%가 L-form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intelligent designer(어느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컴퓨터로 ‘T’자를 찍으면 그것이 서든지 눕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도록 조작해 놓고, 무작위로 1초에 5,000자를 찍어서 겨우 한 페이지 5,000자가 전부 선 방향으로 되게 하는 데도 100억 년이 걸린다는 계산인데, 태양을 700번 왕래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과학적 계산으로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의 design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미신’이요 저절로 되었다고 해야만 ‘과학적’이라고 한답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피부가 검게 된다든지, 필요 없는 장기들은 점점 퇴화되고 필요한 것들은 점점 발전하는 등 생물의 같은 species(종) 내에서는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micro-evolution(소진화)이라는 진화 과정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 원숭이, 개미 등과 같이 전연 다른 종이 자신과 전연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macro-evolution(대진화)은, 과학적으로는 고사하고 수학 계산상으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micro-evolution 이론이 macro-evolution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진화론이 과학적일 것이라는 오해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몇 억 광년 상공에서 쇠 조각들을 밖으로 뿌렸더니 떨어지면서 이것저것들이 ‘우연히’ 들어맞아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 폰이 되어, 그 속에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되었다거나 수십 만 개의 활자 무더기들을 인공위성 상에서 뿌렸더니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우연히’ 배열되어 ‘성경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병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무생물이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되어 사람의 세포 하나가 될 가능성보다 몇 억 만 배 더 쉬운데도 말입니다.

세포내부를 명확히 볼 수 없었던 옛날에 화석이나 외부 형태만을 관찰한 원시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1859년에 발표하여 진화론의 골격이 되었던 Charles Darwin의 ‘The origin of Species’란 논문을, 의사인 내가 만약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medical journal에 발표하려 한다면 받아줄 잡지회사도 찾을 수 없으려니와 그것이 진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닌다면 나는 미국 의학협회에 엉터리 의사로 보고되고 면허 박탈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

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주장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미신’ 사상이 온 세상 특히 과학자들에 의해 Bible처럼 모셔지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느 영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이라는 가면을 쓴 거대한 ‘종교’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아무리 계산해도 6,000년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첫 10억이 되었던 것이 A.D. 1800년이었는데, 인류학자들 이론대로라면 10억이 되는데 몇 백 만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이 20억이 된 것은 1930년이었기에 130년이 걸렸고, 30억이 된 것은 1960년이었기에 30년이 걸렸으며, 40억이 된 것은 1975년으로 15년, 50억은 1987년으로 12년, 그리고 11년 만인 1998년에 60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컴퓨터로 역 계산 해보면, 중간중간 전쟁이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초의 인간은 몇 천년 전이지 인류학자나 고고학자 주장대로 몇 백 만년이나 몇 억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굴된 두개골을 분석해 인류의 시작을 600만년 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400만년 전부터 직립보행을 시행했는데 그 중 12종 이상 되는 조상들은 모두 멸종했고, 20만년 전에 시작한 Homo sapiens가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인류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는 것은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놓고 거기에 자료들을 적용시켰기 때문인데, 그것은 ‘가설이 잘못 설정되었다면 결과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학 공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발굴된 유골이나 화석들은 육체적으로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 종류인데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 과정을 보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짐승들은 훨씬 이전에 창조되었기에 사실 원숭이는 몇 백만 년 전에 창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논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면 원숭이와 사람은 거의 99% 정도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닭도 50% 정도 그리고 심지어 지렁이와도 75% 정도가 일치한다는데, 이것은 육체 자체는 흙의 원소로 만들어져 사람이나 짐승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짐승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는 일을 거의 다 해낼 수 있고, 거의 모든 약품을 사람과 짐승이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것도 영을 제외한 육체부분은 사람이나 짐승이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switch on)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가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아인슈타인의 견해나, 생물체의 육체부분 진화는 이론상 혹 가능하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설명은 intelligent designer(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옛날 주일학교에 다니던 꼬마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수증기가 증발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연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사물의 이치를 더 깊이 알고 난 후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미 그것을 만들어낸 조물주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어설픈 지식으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나타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보여주면 믿겠다고 대들 때,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여서 믿느냐고 응수하는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가 자기 무식을 폭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TV 라디오 컴퓨터 전화기 등 기계만 장치해 놓으면 세계 수만 곳의 방송, 그림, 글자, 소리, 영상 등 모든 것을 방안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육안으로만 안 보일 뿐 실지로는 방안에 오만 가지 그런 것들이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기독교에 대한 회의 속에서도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정 하는 신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부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라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혹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진짜 쓰라는 대로 받아쓴 것인지, 혹은 기록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나 사상이 가미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면 인간에게 자기 메시지를 주시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로 하여금 대중들을 광야에 다 모이도록 한 다음, 그들이 확실히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책이 떨어뜨리는 기적적인 광경을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 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년쯤의 세월이 지나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때 아마도 50% 정도 밖에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00년 후쯤의 자손들은 처음 상황을 아무리 실감 있게 설명해준다 해도 거의 100%가 ‘신화’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 생각해보아도 몇 천년 먼 훗날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자기의 메시지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역사를 ‘예언’이라는 형태로 미리 기록하게 하시고는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if the thing does not happen)이는 여호와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명 18:21, B.C. 1451)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인간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기록하게 하시

고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연구해보고 그대로 되었으면 믿으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염병을 예언 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렘 28:8)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

영화의 제작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저절로’ 흘러가는 줄 알고는 다음 장면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손에 땀을 쥐며 초조해 하지만, 각본을 미리 읽어본 사람들은 진행이 이미 쓰인 대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초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기록해 놓으면서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지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거든 믿지 말라는 자신 있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찾아 따져 봐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 4. 신화 같은 창세기도 사실이란 말인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신화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만약 그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성경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6일만에 창조하였다는데 저는 그 ‘하루’를 반드시 24시간의 하루

라는 경직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낮과 밤이 한번 바뀌는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일 뿐,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밤이 6개월 낮이 6개월로 밤낮이 한번 바뀌는 데 1년이 걸립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천 년이 ‘하루’로 표현된 것과 같이 이것은 어느 한 기간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과학의 추정대로라면 창세기 1장에 기술된 ‘하루’는 아마도 몇 십 억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일 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24시간 하루를 주장하는 young earth creationism 견해도 많은데, 어느 견해를 따르던 성경 기록의 근본 목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에는 하등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 지구가 창조될 때의 상태는 현재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7)

즉, 처음 창조될 당시는 하늘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 7:11)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던 물 층이 쏟아져 내려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덮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창 8:22)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기후나 자연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꺼운 물 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온병이나 농가의 그린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여, 지구상 어느 곳이나 온도가 일정하게 따뜻하고 외계로부터의 유해광선이 차단되어 생물체의 성장이나 건강상태가 지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

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현재 얽은 오존층이 유해광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창 5:1~32) 홍수 이후 수명이 갑자기 400세 그리고 중국에는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100여 세로 줄어든 것을 보아도 역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 벨렉 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10:25, 대상 1:19)

그 기원이 생명체의 변화로 인해 생성된다고 믿어지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동 식물들의 화석들이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지구상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런 변화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위치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2:14 NIV, 현대인의 성경)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으로 현재는 거의 사막화 되어 있어 생명체가 거의 살 수가 없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그 언젠가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으며, 한때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겔 31:16) 문혀 버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고고학의 발달로 노아 홍수나 바벨탑 같은 것들이 사실이었음이 점점 증명되는데 지면 관계상 해당 you tube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5.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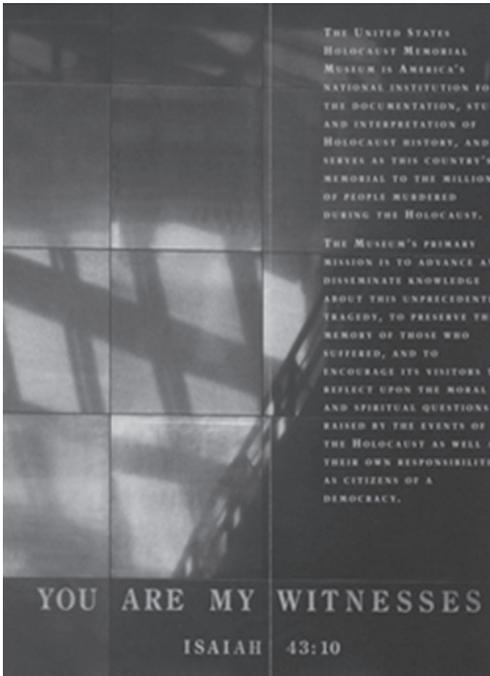
신이 확실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 성경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과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해 늘 의문과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님의 사랑과 특혜를 독차지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여 자기들보다 한층 하등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따져도 해결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더라면 알라만이 참 신이라고 주장했을 것인데 어찌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들어와 기독교를 퍼트린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내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하게 된 숙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얘기를 듣던 중 ‘선민’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잘 통솔하기 위해 담임선생이 한 학생을 선택해 앞에 세워 벌을 주는 경우, 그 학생은 나머지 59명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선택된 불행한

학생이지 선생님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지구의 한 “중양에 거하는”(겔 38:12)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명 7:7) 민족을 택한 것이 곧 유대인입니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그들이 대신 모진 고난과 학대를 받아 온다는 것을 알고는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주된 목적은 뒤에 언급할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그 혈통



Washington D.C Holocaust museum  
벽에 쓰인 '너희는 나의 증인'

을 통해 메시아라는 인물을 탄생시키려 하심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유대인 대학살 자료가 전시된 Washington, D.C. Holocaust museum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건물 외벽에는 큰 글자로 “You are my witness.” (너희는 나의 증인)(사 43:10)라고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어느 교파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판사자신은 범행 장면을 본 일이 없지만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증인인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명 28:1) 반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명 28:15)라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꾸며나가는데 구약에 복잡하게 기록된 그들의 역사들은 한마디로 이 조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증명하는 사건들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삿 4:1) 이렇게 “멸망” 시켰고 다시 회개하였을 때는 회복시키셨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삿 2:11, 3:7, 4:1, 6: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이다.”(사 44:6, 7)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 46:10, 11)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위에서 언급한대로 미리 기록된 예언들을 연구하고 또 그 예언대로 되었던 지를 보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여 비교해서, 과연 그대로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줄로 믿고 만약 기록대로 되지 않았으면 기록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리라”(명 18:20)고 자신 있게 선언하십니다. 이같이 선민을 택한 것은 성경이 사실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지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기에, 그 해답을 찾으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필수과정입니다.



‘지구의 배꼽’ – ‘땅 중앙에 거하는 민족’ 지구덩어리 한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 6. 이스라엘 역사의 개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 12:1, 2)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라크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조상으로 메시아를 탄생시킬 한 민족을 이르겠으니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라는 약속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나이 늙도록 아이를 생산치 못함으로 결국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아랍의 지류를 이루면서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탄생합니다.

그 후 이스마엘이 열네 살쯤 되었을 때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혈통을 통해 유대인이 시작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당시 두 아들간의 가정 분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구약에 기록된 많은 전쟁 이야기들은 그 분란의 연속이고, 오늘날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중동 사태도 그때부터 시작된 두 아들간의 집안 분쟁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 열한 번째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됩니다. 그 후 요셉은 가나안지방에 살고 있는 70명쯤 되는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집단 이주시킨 후 40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자손 즉 유대인은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들이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고역에 시달릴 때 모세가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냅니다. 이 과정에

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며 홍해를 건너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하는데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십계명 등 율법을 받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어 정착하는데 약 1,500년 이 지난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가 태어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기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자나 깨나 그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보니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볼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하여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예수가 죽은 지 30여 년 지난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계속 항거해온 유대인은 로마의 Titus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여러 달 동안 모든 보급을 차단한 결과,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에는 심지어 자신들의 애들까지 잡아먹으며 버텼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33만 명 이상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명령이 내려져 이때부터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후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차지해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쫓겨나 흩어질 뿐 아니라 어디서나 끊임없는 학대와 학살을 당해왔는데 몇 가지 예로 A.D. 115년 로마 하드ريان 황제에 의해 58만 명이 살해당했고, 그 후에도 거의 기독교화한 유럽 각국의 황제들이 A.D. 300~700년까지 유대인 근절 정책을 써서 대량학살을 자행했으며, A.D. 1096년과 1146년 십자군 전쟁 때는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하여 발견하는 대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A.D. 1144~1267년 동안 독일과 영국에서 유대인 전멸 영이 내려졌고 AD 1348년에는 흑사병이 유행하여 유럽에서만도 5천만 명이 죽어갔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은 결과란 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A.D. 1492년 8월 2일에 거의 전 유럽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그 다음날인 8월 3일에 Columbus라고 하는 유대인은 피난 항해를 시작하여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은 지금도 생생한 실제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 5월 14일 UN에 의해 독립되어 1,90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불러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측과 빼앗으려는 측의 쟁탈전이 지금까지 매일 매일의 뉴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이 이제는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측과의 마찰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끄러운 중동 문제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제사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 바위 위에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또 그곳은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무대로 기독교인들 역시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 24: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인들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 회교사원이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하여 메카, 메디나와 더불어 그들의 삼대 성지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곳이 분쟁의 핵심이며 중국에는 그곳 때문에 인류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게 되리라고 예언된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는 회복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일부만을 차지했을 뿐이며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옛 성전 자리에는 수치스럽게도 회교사원이 황금빛 돔을 자랑하며 버젓이 서있어 그들은 감히 발도 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서쪽 벽인 통곡의 벽에까지 밖에 도달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오늘도 수치의 상징인 회교사원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성전이 재건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7.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대인의 고난

예수탄생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지만 예수 사망 37년 후인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 전 세계로 흩어져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땅에서 사라져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백제의 2대 다루왕, 신라의 4대 석탈해 때 완전히 없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U.N.에 의해 독립될 때까지 1,900년 동안 지도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초등학교 지리책이나 역사교과서에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에는 예수님 재림할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할이 계속되는 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요 상징적 의미 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replacement theory라 하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성경기록을 그대로 믿는 학자들은 이것들은 상징이 아닌 실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Scofield reference Bible의 C.I. Scofield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훨씬 전인 1909년에 초판에서 이스라엘은 상징이 아닌 기록된 그대로의 이스라엘로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1900년간 존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예수 재림 전 어떻게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I don't know, but I believe it.'이라고 했다고 합니

다. 지금 우리는 그 예언들이 확실히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 쉽게 얘기 하지만 1948년 이전이었다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외교 특히 중동문제에 관한 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인지 미국의 주류 기독교계에서는 다수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고 들었습니다. 만약 계시록을 비롯해서 수천 가지도 더 될 많은 기록들을 전부 상징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authority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한다는 말이며, 이스라엘 회복에 이어 같은 선상에서 이어지는 휴거 아마겟돈 천년왕국 예수재림도 다 상징적으로 보아야 하는 dilemma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사실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영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비유 같은 것은 훌륭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main point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를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을 기록하신 주요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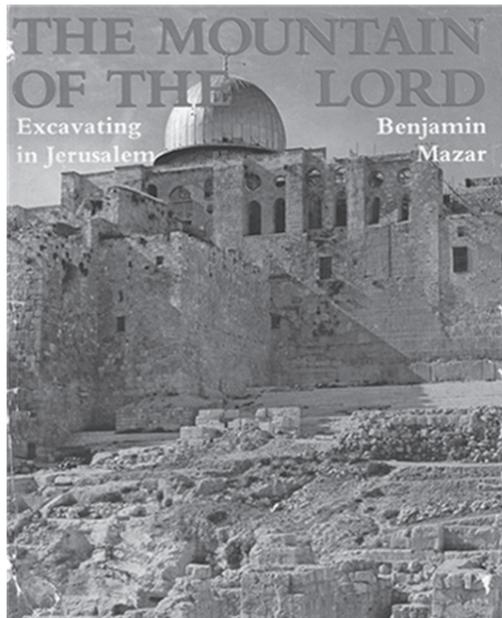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인의 운명에 관해 미리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알지도 못했던 모세는 그때부터 1,500년 후인 A.D. 70년에 이루어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YouTube같은 것을 통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AD 70년 예루살렘 유대인 학살이나 히틀러에 의한 Holocaust장면 등을 먼저 보시거나 연상시키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의 예언은 고구려 신라가 시작되기 1,500년 전에 쓰인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세계 만국 중에 흠음을 당하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출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네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너와 너의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네 발바닥을 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명 28:25, 52~57, 64~67=B.C. 1451)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위에 던지고…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와 같이 쇠잔하리라.”(레 26:29~39=B.C. 1491)

이보다 약 800년 후인 BC 599년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에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흠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염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하시니라…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렘 24:9, 10,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29:17~19)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 얼마 있으면 일어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밧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눅 19:41~44)라고 하였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뺨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인에게 밧히리라.”(눅 21:20~24)고 하셨습니다.

서기 70년에 일어났던 학살사건과 그에 이어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났던 히틀러에 의한 학살만으로도 상상이 가능한 이런 일들이, 그들의 나라가 생기기 훨씬 전인 몇 천 년 전에 예언해 놓았고 또 그 예언들은 한 점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8. 선민이라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함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요 1:11) 다 하신 말씀대로 정작 그가 왔지만 그를 거절한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추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 포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보낸 종들마다 다 죽였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렸는데 아들을 죽인 이유 때문에 임금님이 대노하여 농부들을 몽땅 진멸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 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마 21:33~41)

이 비유는 B.C. 760년에 기록된 이사야 5장 3~7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족속이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

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7절)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한 결과로 따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훗날에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를 거역하면 망할 것이라고 B.C. 1451 년에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행 3:22, 명 18:18)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얼마 전 자기를 죽도록 넘겨준 벌로 인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마 23:37) 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각성하도록 경고했지만 듣지 않아 마지막에는 아들을 직접 보냈건만 그의 경고마저 거절함으로써 결국 선민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 ‘그리스도의 수난’(The passion of the Christ)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원본 그대로 상영되면 전 세계적으로 반 유대인 운동이 거세질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한 구절을 삭제하기로 하고 상영된바 있습니다. 그 구절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를 심문해 보니 그들의 종교적 이유 때문이지 실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음을 보고 석방하려 하자, 그래도 죽이라고 간청할 때 “빌라도가… 물을 가

저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24~26)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죽이도록 요청한 것이 유대인이었다는 책임전가를 받아 반 유대인 운동이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한 최대 목적이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건만 그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도전 했었고 2,000년에 걸친 그들의 고난은 스스로들이 요청한 대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여러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믿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롬 1:20, 행 17:31)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 형벌은 유대인들이 당했던 육신적인 형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 9. 예언대로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과거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한국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름마저 일본이름으로 바뀌야 했습니다. 일본 점령이 36년으로 끝났기 망정이지 100년이나 200년쯤 연장되어 몇 세대 흘러갔었다면 한국적인 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사는 장

소는 한반도인데도 말입니다.

고구려가 시작된 조금 후인 1,900년 전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언어도 없어져 버리고 땅마저 없어져 아랍 민족들이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나라를 이루고 그 땅으로 모여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들은 물론 이 세상 사람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UN에 의해 독립이 가결되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이라는 자기들 정체를 숨긴 채 살던 그들이 1,900년 전의 자기 땅으로 모여들고, 자기 언어를 다시 복원하여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이미 오래 전에 기록 하시면서 “내가 말 하였은즉 정영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영 행하리라”(사 46:11=B.C. 712)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구절들은 역사상 유대인들이 고난 당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다른 때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상 그들이 ‘만국’에 흩어진 것은 단 한번뿐이고 또 그들의 회복하는 시기가 인류역사 마지막 때인 ‘말년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 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 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명 30:3~5=B.C. 145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 할지라”(겔 37:1~14, 21=B.C. 587)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사 43:5, 6=B.C. 712),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렘 30:3=B.C. 606)

“보라 내가 그들을 복된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렘 31:8=B.C. 60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암 9:14=B.C. 797)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슥 8:7, 8=B.C. 518)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렘 31:35, 36)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메시아를 배척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는 많은 이방인들이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 한다면 소위 선민이라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비웃었는데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 36:16~23=B.C. 587)

## 10. 회복 후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

실로 그들의 회복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 자체보다는 회복한 후 그들이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굽실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기록된

일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도 안 되는 그들이 노벨상의 거의 30%를 휩쓸고 있어 타 민족에 비해 100배의 수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한 그들이 상원의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100대 기업의 40%가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유하거나 내면적으로 경영이 장악되고 있는 것들 중 internet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해도 Rockefeller, Morgan, DePont, GE, GM, Ford, Chrysler, IBM, Boeing, US Steel, Xerox, Exxon, Texaco, Standard, AP, UPI, AFP, Reuter, ATT, ABC, NBC, CBS, FOX, CNN,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Walt Disney, Time Warner, Warner Brothers Studio, AOL, ESPN, HBO, Blockbuster, 20th Century Fox, Paramount, Universal Picture, MCA, Sony Cor. America, Time, Newsweek, U.S. News & World Report, Sports Illustrated, People, Fortune, Business Week, New Yorker, Google, Facebook 등등이 있고 세계 media의 96%, 미국 신문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 석유, 금융계는 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모든 가격, 금리이자 등은 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석유 패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유대인들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말려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과거 1,900년간을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이 유

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겨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들이, 1948년 이후 갑자기 그리고 단 시간 내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뇌가 명석하다거나 교육열이 강해서일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이전의 비참했던 그들의 상태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오늘날의 위상을 비교하며 다음 말씀들을 읽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냇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핏덩이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 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쳐하게 하라 하리니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 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사 49:6~23=B.C. 712)

그들은 어디서나 돈을 모으는 수완이 특출하다는 것은 만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울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사 60:4, 5)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명 8:18)고 하신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 11. 이스라엘의 회복 다음엔 ‘휴거’

영화 시나리오를 연상하며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눅 12:56)

고구려가 시작되기 1,500년 전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부터 3,500년이 지난 현 시대에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회복 후에는 곧 이어 휴거라는 사건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과정으로만 넘겨서는 안 될 나의 운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32~44)

무궁화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듯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대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의 ‘세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는 것을 보고 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날짜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맞는 것이지 특별히 어느 특정장소에 모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셨습니다. 다만 힌트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17:26~30, 21:29~36)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고 인간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백 년 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사업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들이 팔려 바빠 살고 있을 때 밤에 도적 같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간곡한 부탁임과 동시에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갈수록 점점 바빠집니다. 이것은 구원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없애려는 마귀의 책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세상일에 너무 바쁜 자신의 삶을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이집트에서 빠져 나오려 할 때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하여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출 5:9) 하면서 더욱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설문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바빠서’라는 답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51, 52)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살전 4:13~18)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구원받은 무리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휴거가 있게 됩니다. 휴거의 직전일지 직후일지는 명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한차례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아마도 구소련 권 이슬람 국가들과 이란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터키 등 회교권 동맹국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Russia, Moscow, Tobolsk)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들과 함께 한바… 바사와 구수와 붓(Iran, Ethiopia, Libya=King James Scofield reference)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많은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겔 38:1~16=B.C. 587)

그러나 에스겔서 39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침략군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의 시체들을 발견하면 바로 치우지 않고 특수처리 반이 표를 해 두었다가 7개월이 지난 다음 처리한다는 이상하고 특이한 장사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오염된 시체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판단인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전쟁의 모습이 아마도 핵전쟁이 아닐까 짐작케 하는 신기하고 놀라우며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 붙여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 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겔 39:14~16)

아마도 이것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24년 전인 아득한 옛날에 인류 역사 마지막 때쯤에 될 일들이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 눈 앞에서 그 무대 장치가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듯 하고 매일 TV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역지로 지금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이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인 ‘말년’에 있을 일들이라고 명시해 놓았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예언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정세들을 어렵פות이나마 미리 들여다본다면 대략 이러합니다.

첫째 현재는 세계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있지만 미국은 쇠퇴의 길로 가고 힘은 점점 유럽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나라들은 국경 개

념이 점점 줄어들고 온 지구촌이 정치나 이념보다는 경제 위주의 ‘하나의 정부’(one world government)가 되어 한 통치자(Antichrist)가 세계를 통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즉 세계화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게 되려면 세계 경제의 대 공황이나 파탄이 올 걸로 예상들을 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도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그런 것들 대신 사람의 몸 안에 컴퓨터 칩 같은 것(666)을 장착함으로 편리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컴퓨터 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동의 골칫거리의 주역은 이란이 될 것이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구소련 권 회교국가들이 반 이스라엘 전선을 점점 더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와 관계없는 CNN이나 FOX News들도 요즘 이란의 핵 개발 압박을 전할 때면 가끔씩 에스겔 38장을 인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Internet에 에스겔 38장이나 39장, 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검색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인터넷을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근래 동향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제 혼란의 주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 유대인 정서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나라로 귀환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요, 그로 인해 정착촌 건설이 더욱 절실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마찰이 더욱 빈발해질 것입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예루살렘 쟁탈전 문제도 더 격해질 것이며 7년 대 환란 중 유럽의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해 주기 전 그 누구의 중재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자리에 있는 회교 사원 대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중동 문제는 점점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계는 각 교파 간, 그리고 심지어는 타 종교와도 종교의 궁극의 목표는 세계 평화라는 기치 하에 통합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궁극에는 정치와 결탁하여 거대한 영향력 행사 집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 하는 2,600년 전의 예언대로 교통수단과 과학 지식들이 더욱 급속도로 발전할 것인데, 사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교통수단이나 과학 지식은 수천 년 동안 을 비슷한 평행선을 유지해 오고 있다가 불과 100년 전쯤부터 급격한 상향선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컴퓨터 등 단 일년의 발전이 과거 5,000년 것보다 훨씬 클 정도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 12. 휴거는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시작

포도원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마 21:41) 하신 말씀대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다른 농부’인 이방인들이 위주가 된 ‘교회시대’가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력해 왔지만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은 일단 중지시켜 놓고 이방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 13:46)

“이 백성(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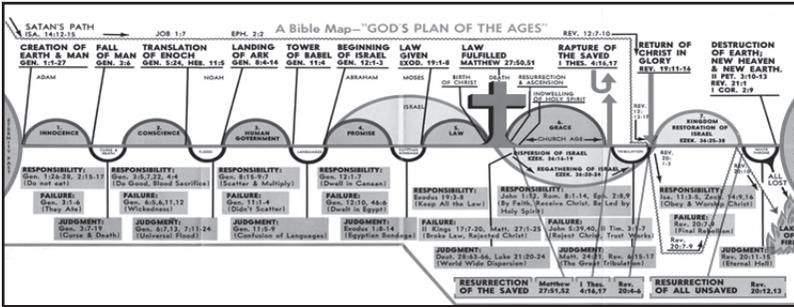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행 28:26~28) 하면서 교회역사 기록의 시작인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어서 2,000년에 걸쳐 이방인들이 주종을 이루며 전개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도록 계획한 숫자가 차면, 휴거라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끝내시고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롬 11:1, 25)

이미 언급한 대로 유대인이 고난 당했던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 때문인데 그들은 대부분 아직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을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신’(겔 36:24)을 그들 속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즉, 휴거 후 7년 대 환란 중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게 했던 2,000년 전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대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 12:10=B.C. 487)



7년 대 환란 초기에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로 잘못 알고 받아들이지만, 3년 반쯤 지나면 그 본체를 알게 되면서 저항하고 그로 인해 큰 핍박을 받고, 핍박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들 중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4) 하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다수 구원받게 되지만 이 기간 중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는 무척 힘들 것입니다. 휴거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성경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실감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로 사라져버린 후라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을 길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새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활동은 하겠지만 한국처럼 먼 나라까지 선교하러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말씀들을 통감하며 크게 한탄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식량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 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암 8:11, 12)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 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껍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잠 1:24~33)

이런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 13. 7년 대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휴거로 인해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후 이 지상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7년간의 대 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

유대인 입장에는 2,000년간 이방인에게 받았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 지어다 깰 지어다 일어설 지어다... 내가 비틀 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사 51:17, 23).

“그 날 곧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흠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을 3:1~3)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 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롬 11:21)(눅 23:31).

자기의 선민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동안 선민을 핍박한 이방인에게야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휴거로 인해 온 지구촌이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중동지역은 예루살렘 문제로 유대인과 아랍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있을 때, 후에 다니엘서 공부에서 언급할 새로이 통합된 유럽연합(E.U)의 대표자가 출현해 U.N.처럼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정부 체제의 대표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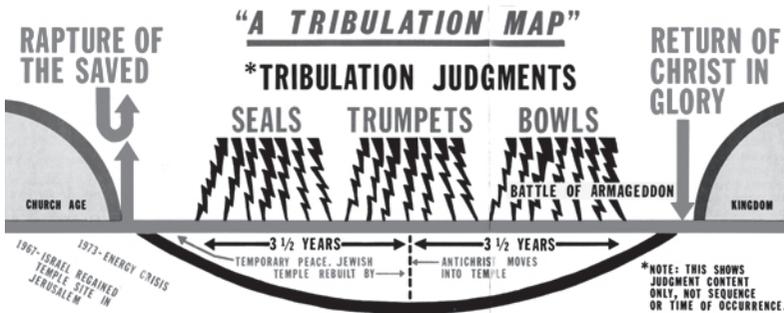
과 인기를 업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그의 중재로 그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의 유대인들의 숙원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오랜만에 온 평화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는 만방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새로 재건한 성전에 들어앉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며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제야 속은 줄 깨닫는데 그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쯤에는 곳곳에 전쟁, 지진, 기상이변, 기근, 난리 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2,000년 동안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로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들에게 바치라는 등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후대에 계시를 받았거나 성령 받은 것을 빙자하여 말세가 곧 이르렀다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터이나 흔들리지 말라,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수중에 들어오고 그 후 성전이 재건되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절대 말세가 아니니 속지 말라는 경고를 미리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동심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1~4).

예수께서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적그리스도)이 거룩한 곳(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마 24:15)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후에 다니엘서 공부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7년 대 환란 중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인들에게 ‘666’이란 표를 받게 해 더욱 강력한 통제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 번호를 거절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존권이 거의 박탈당하고 그렇다고 받으면 결국 지옥을 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적그리스도) 모든 자... 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계 13:17, 18)(계 14:9~11)

666에 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으나 급속도로 컴퓨터화 되어가는 세상 정황을 볼 때, 이 시점에서는 역시 컴퓨터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는 견

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가축들에게 쌀알 크기의 컴퓨터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긴 하지만 이미 사람에게도 사용을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인한 부작용들이 날로 늘어가는 반면 컴퓨터의 발달로 모든 것들이 편리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과는 상관 없이도 언젠가는 인류 전체에 이런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 인구의 아마도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7년 환란 기간 중에 있을 가공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전쟁과 재앙들의 환상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보면 아마도 핵전쟁의 모습을 기술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큰 천재지변이 아닐까 짐작케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서 움기 우매”(계 6:12~17)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 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계 8:8)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 빛과 유황 빛 홍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계 9:5, 6, 17~19)

아마도 요한은 대포를 쏘아대는 현대 탱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 짐작케 하는 장면들입니다.

매일 그러하듯 오늘도 TV 뉴스를 틀면 예외 없이 예루살렘 문제가 나오는데 2,500년 전 예견 했던 대로 결국 세계 마지막 전쟁은 바로 그 문제에 일어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슥 12:2, 3=B.C. 487)

전쟁이 극에 달할 때 동쪽(중국을 위시한 극동지역?)으로부터 2억의 군대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소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계 9:14~16)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계 16:12~16)

이 지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란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는 휴거되어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6~10)

그 동안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지 구원은 받지 못한 집단, 즉 자칭 '신부'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지는 신부가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음녀'인 거대한 종교집단이 세상 정치집단과 함께 받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지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사람의 영혼들이라.”(계 17:1~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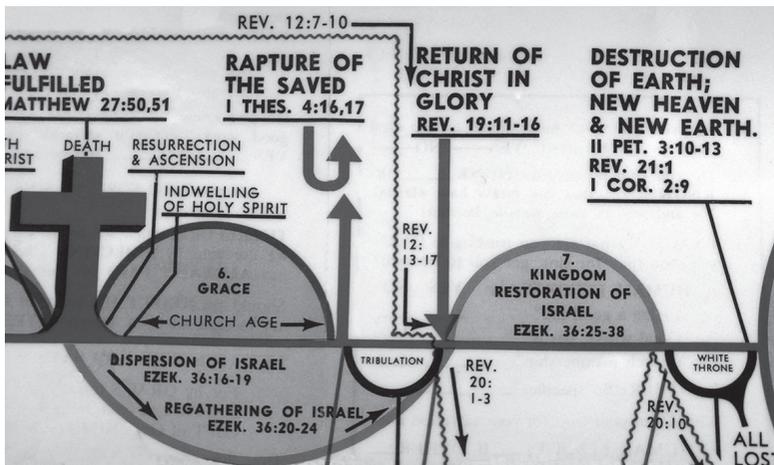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며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는 부패한 종교계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와 헌금액을 매매가의 기준으로 한 한국 신문의 교회매매 광고가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 14.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

전쟁이 극에 달한 7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심으로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슌 14:1~4=B.C. 487)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하신 말씀대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휴거-재림-천년왕국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4~36)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후 5:2, 3)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8~10)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착한 일 하라는 등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 알고 있는 성경이 이와 같이 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하려다가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는 말씀대로 혼란과 자가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의의 왕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두 번 오실 것을 예언

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사 52:14, 15)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였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천 년간 이 지구에서 통치하실 메시아입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계 20:4~6)

천년왕국에는 7년 대 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현재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과, 구원받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살전 4:16) 후 “첫째 부활”(계 20:5) 즉 “생명의 부활”(요 5:29)에 참여한 부활 직후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과, 또 휴거되어 “썩지 아니할”(고전 15:52)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갔던 새로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상상이 좀 어려운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천년 마지막 때에 그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요 5:29)로 살아나 심판을 받은 후 지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계 20:11~21:1)

인간이 만든 컴퓨터 칩에도 손톱만한 크기면 나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록 책에 일평생 동안의 나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 1:1)로 시작한 성경이 마지막 페이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로 끝을 맺는데 그 사이에 끼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소위 이 세상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역사의 의미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시민을 모집하는 기간이요, 그 역사 속에 태어나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의 목적은 그 기간 동안 씨를 받아 알곡이 되어 거기에 들어갈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24)

꽃이 피어 있는 목적은 단순히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

니요 씨를 받아 수정되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한 알의 밀 씨가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인데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언젠가 그 씨를 받아 수정된 사실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했던 꽃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낱 쪽정이에 불과하여 심판 날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2) 하신 대로 지옥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언제쯤 ‘말세’가 올 것인가?

요즘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매체들마저도 세계 도처의 사건들을 보도하며 성경 예언에 있는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말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7)가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시기를 점치려 범석들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구체적 날짜를 제시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도 그 중 맞았던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그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며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 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하신 것은 실지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라기보다 선한 체 하는 그 사람을 꼬집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마 19)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

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행 1:7)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 니 아 들도 모르고… 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도 진짜로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날짜 에 관심두지 말고 평소 때도 항상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마 24)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매 세대마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항상 정신 차려 깨어 있게 하시려고 시대마다 필요한 만큼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방 법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굳게 믿지만 사실 은 “아무도 모르나니”(마 24:36)가 정답입니다. 인류역사의 끝이 아니더라도 나 개인 역사는 언젠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세상종말과 상관없이 나는 항 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9장 므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열을 불러 열 므나를 주며…” 하신 그 바로 앞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 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로 시작합 니다. 그것은 ‘당장에’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날짜 같 은 것 따지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충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일부 러 ‘먼 나라로 갈 때에…’라는 판청을 부리며 찬물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을 주 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날은 알 수 없지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시작되면 해산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 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일까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스도 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준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준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소위 전 천년, 후 천년, 무 천년 등 학자에 따라 여 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고, 또 666이 누구라는 등 설이 많지만 구원 문제

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억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기록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면 됩니다. 또 이것들을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성경'이라는 책이 추상적인 철학이나 종교의 경전이 아닌 내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만 우선 인식하기 바랍니다.

## 15. 세계역사의 예언

이 장에서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도록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역사 예언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서양사 시간에 배웠던 대로 중동지역을 지배했던 세력은 대략 B.C. 1300년에는 이집트, B.C. 650년에는 앗시리아, B.C. 600년에는 바빌론, B.C. 450년에는 페르시아, B.C. 300년에는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전후 시기에는 로마였습니다. 후에 로마는 동 로마와 서 로마로 분열되더니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특정 나라의 침략 없이 서서히 오늘날의 유럽 열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B.C. 603년에 오늘의 이란 지역인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인 포로로 와있던 다니엘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세계역사의 끝까지를 왕에게 보이신 것이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잠깐 덮어두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5절까지 읽은 다음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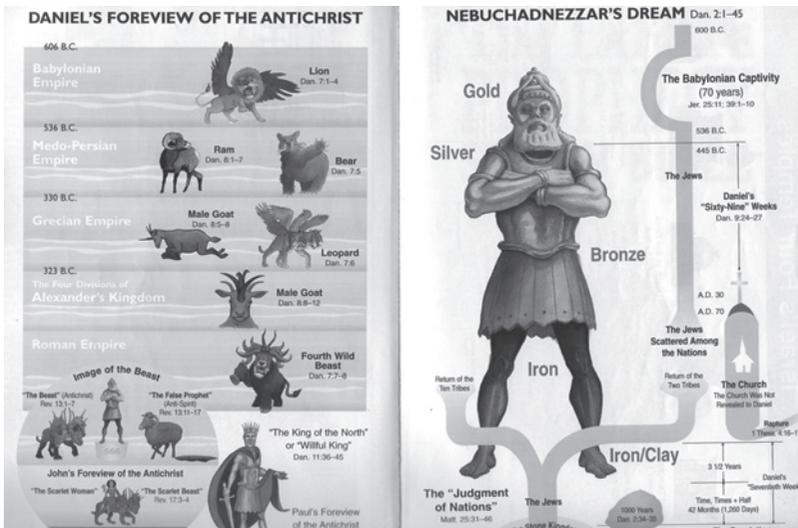
왕이 꿈에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의 혼합체였는데 둘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때려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단 2:36)

왕이 꿈에 본 신상의 금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요, 이 로마는 이후 인류역사 마지막 즈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같이 영성한 연합체로 될 것인데, 이때, 뜨인 돌 즉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 하니이다.”(단 2:45)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서양사와 대조해 보면 이 예언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로마의 후신인 유럽이 연합체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Antichrist and the Times of the Gentiles

“내가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계 13:1~18)  
A.D. 96년에 요한은 이 ‘열 뿔’ 가진 짐승과 거기서 ‘한 뿔’(적그리스도)이 나와 666이라는 표로 세계를 통치하는 7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같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B.C. 537년에 다니엘이 여러 짐승들이 등장하는 꿈을 꾸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읽고 다음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상과 같은 내용으로 사자(7:4)는 바빌론, 곰(7:5)은 페르시아, 표범(7:6)은 그리스, 넷째 짐승(7:7)은 로마 그리고 열 뿔(7:7) 있는 짐승은 유럽 연합이라고 해석(7:15~28)했는데, 이것 역시 신상 해석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B.C. 555년에는 그 때부터 250년 후인 B.C. 300년에 있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당신에 관해 ‘대왕’이라고 이미 2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대단히 좋아서 유대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을 썼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알렉산더는 30대 젊은 나이에 죽고 그 나라를 네 명의 장군들이 나눠가졌는데 “털이 많은 수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단 8:21, 22=B.C. 553)라고 한 250년 전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과거의 일이 되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열 발가락’ ‘열 뿔’로 표현된 유럽연합과, 그 대표자인 ‘한 뿔’(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훗날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는 아마 그것도 과거사 일 것입니다. 그토록 정확하고도 빠르게 현재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옛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기치로 유럽 통일을 꿈꾸는 여러 사건들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1957년에 시작되어 지금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을 주목해야 합니다. 2,600년 전 아득한 옛날에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에 전개될 국제 상황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현재 유럽은 국경도 거의 없어졌고, 화폐도 단일 통화로 통일되었고, 단일 의회도 구성되었습니다. 훗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정치, 외교, 군사의 통합이나 단일 대통령 등장도 과거의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 뿔은 10개 나라로 보기도 하고, 행정적 국경보다 종족, 종교 등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열 개 블록, 유럽이 주가 되어 전 세계를 열 개의 경제 블록으로 나누어 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으로 보는 등 여러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 적그리스도의 출현

‘인류역사’라는 연극의 마지막쯤에 마귀가 연출하게 될 장은, 과거 하나님께 도전해 인간 자신이 주권자로 세상을 통치하려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던 바벨탑 재건을 위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One World Government’의 추진입니다. 그 일의 주연배우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무대장치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 그 준비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지나가는 사건들을 성경 예언과 결부시켰다 지난 후에 보니 틀렸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 짚었기 때문인데 그러기에 아래 글들도 하나의 개별적 사건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One World Government, 즉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가 하나로 되어야 할 필요성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일 통치의 필요성을 갈망하게 되는 극한상황이 될 때에만 가능할 일인데, 그 상황이란 아무래도 지구촌 전체를 강타할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것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세계정

부' 달성 목적을 위해 마귀가 사용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근대사에서 유럽 통합을 가능케 했던 예처럼, 사람들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돈이라는 신 Mammon 즉 경제문제가 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계에서 'globalization'(세계화)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인 'Shadow government'가 경제(돈)를 이용해 해오고 있는 작업들 중 300년 내 근세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나 정보들은 역사기록과 달라 공인될 수도 없고 공인해 줄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는 그저 정보이기에, 정확성 여부에 집착하지 말고 역시 이것도 분위기 파악의 참고자료로만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16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Freemason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친목단체' 같지만 목적이 표면위로 나타나지 않는 'secret society'입니다. 전 세계에 600만 명 회원이 있고 공인된 것은 아니나 미국 대통령의 3분의 2가 회원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세계정세를 주물러 온 것으로 알려진 CFR, IMF, Federal Reserve, Trilateral commission 등의 조직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전 세계를 'One World Government'(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디자인한 미국 돈 \$1 지폐를 지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그들의 상징인 피라미드를 넣었는데 그 아래 큰 부분은 무식한 대중 집단이고 위에 작은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elite 집단, 그리고 두 집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골치 아픈 중산층은 도태시키고 무식하고 힘없는 대중 집단만을 남겨둬야만 쉽게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꼭대기에 그려져 있는 눈은 'All seeing eye of Lucifer'로 자기들은 루시퍼(Lucifer)를 'God of Light, God of Good'이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14장 12절의 Lucifer는 사탄입니다. 거기에 'Novus Ordo Seclorum'(New Order of Ages)라는 문구

는 그들이 꿈꾸는 New World Order=One World Government 즉 ‘하나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1744년 Frankfurt에서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 Rothschild는 세계를 지배하려면 돈을 장악해야 함을 일찍이 깨닫고 5명의 아들들을 유럽 여러 나라로 보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banking system을 장악하도록 합니다. 정치 제도나 이념에는 상관없이 돈을 장악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개입해 돈을 벌며 실질적으로 유럽 전체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전체의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Bank of England의 돈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신대륙까지 지배하자 1775년에 tea party 같은 저항 운동이 일어나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져 1776년 미국은 독립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JP. Morgan(1837~1913)이 GE, Carnegie Steel Co., Chase Manhattan Bank 등을 소유하며 같은 수법의 banking system을 만들고 후에 Rockefeller가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신생국가로 독립했지만 돈줄은 여전히 국가가 아닌 개인 은행들이 장악하고 있는 폐단을 없애려고 초대 Washington 대통령부터 여러 대통령들이 정부가 돈을 발행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1835년 4대 대통령 Jackson이 시도하다 누군가의 저격을 받았습니니다.

1861~1865년 강력한 통일 Union 건설의 꿈으로 Lincoln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이 강력한 통일 Union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남군을 지원하려 하자, Lincoln은 ‘노예해방’이라는 명분으로 당시 노예제도에 비판적이었던 영국이 남군을 도우려는 시도를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Lincoln이 노예해방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Lincoln은 남쪽 농업에 유익이 된다면 노예제도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Bank of England에서 빌려온 전쟁비용의 이자가 24~36%의 고리

인 것에 분노한 Lincoln은, 승전 후 1862~1863년에 미국 독자적 화폐인 ‘Green backs’를 발행했는데 1865년에 저격 당해 사망했습니다. 1881년에 Garfield 대통령도 같은 조치를 취하자 역시 누군가에게 저격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JP. Morgan, Rockefeller, Rothschild 등 7명이 그들의 조직이 정부의 제도적 보장을 받는 조직으로 되게 하기 위해 Georgia Jekyll Island 휴양지에서 ‘Federal Reserve’ 설립을 위한 비밀회동을 하고, 1913년 12월 23일 Christmas 휴회기간을 틈타 ‘Federal Reserve System’법을 의회에서 전격 통과시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bank라는 단어를 뺐고 또 정부의 기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fede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Wilson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얼마 후 후회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이제 장차 미국을 잡아먹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졌다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를 시정하려 시도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수수께끼 같은 최후를 맞았는데, Kennedy 대통령 역시 지폐마다 인쇄된 ‘Federal Reserve Note’ 대신 정부가 발행하도록 하는 ‘United State Note’로 바꾸는 ‘Executive order 11110’를 1963년 6월 4일에 서명했다가 11월 22일에 저격되었고, 대통령직을 이어 받은 Johnson에 의해 다음날 그 법령 유포가 취소되었습니다.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Federal Reserve’가 미국 정부 기관으로 인식하나, 사실은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미국 돈을 찍어내는 완전한 개인 은행입니다. 7명의 이사 중 4년마다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들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없고 또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도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정부가 용자를 신청하면 그들은 필요한대로 달러를 찍어내 이자를 받아 맨손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영국, 프랑스는 그 나라들의 Rothschild들이 그리고 미국정부에는 JP. Morgan이 용

자해 주었고, 소련 공산혁명에 필요했던 자금도 Chase Manhattan Bank 와 Bank of England가 그리고 Hitler에게도 Federal Reserve가 \$300억 불을 융자해 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921년에는 그들이 주축이 되어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을 창설했는데, 알만한 저명인사나 기업인들이 member로 현재 거의 모든 세계 주요 정책들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addam Hussein, Arafat, 천안문 사건 때 모택동도 그들의 자금 주선을 받았다고 하며, 그들은 ‘David Rockefeller Study Program’이라는 think tank를 운영하며 ‘One World Government’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Trilateral Commission’(3각 위원회)이라는 미국, 유럽,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기구도 David Rockefeller가 주동이 되어 1973년에 만든 CFR과 관계 있는 기구입니다. 그들이 해오고 있는 수법은 돈을 많이 풀고 이자를 낮추어 쉽게 융자받아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조장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거둬들이고 이자를 높이는 등 융자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이 도산하게 하고, 그것을 헐값으로 되 사들여 돈을 버는 inflation-deflation, up & down cycle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1929년 경제 대 공황이 그들이 조장한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합니다.

미국을 지배해 온 Federal Reserve를 model로 삼아 이제 ‘세계 정부’를 꿈꾸며 세계를 control 할 globalization의 주역으로 되게 할 조직들 중 하나가 IMF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동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평화를 유지하려면 World Central Bank, World Court, League of Nations를 구성해야 된다는 취지를 추진했으나, 아직 개별 국가주의가 강했고 미국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그 후 미국정부 정책에 반해 Federal Reserve가 독자적으로 Swiss에 대표를 보내, 1944년에 World Banking System을, 1945년에는 UN을 출범시켰고 World Court(in Hague)도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운동이 아니냐는 기독교계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계 내부로 침투하도록 전략을 새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변천되어 온 인류의 현 정치체제가 돌연 ‘하나의 정부’로 되는 데는 여러 과정과 오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We are on the verge of a global transformation. All we need is the right major crisis and the nation will accept the new world order.’ 즉, 세계 나라들이 개별적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만한 어느 ‘큰 사건’ 하나만 터지면, 그것을 수습할 유능한 지도자의 출현을 전 세계가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세계정부의 출현은 단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Chase Manhattan Bank의 David Rockefeller의 말입니다. 그 지도자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짐작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이런 일들을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큰 사건’들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파함으로써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확전 될 때(에스겔 38~39장), 중동에서 오는 석유 유통이 막혀 세계 경제 대 공황에 빠지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유로든 경제 파탄으로 인한 많은 나라들의 동시 다발적 국가 부도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각 나라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얽혀 있어서, 각각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는 한 산적해 있는 국제적인 문제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globalization의 필요성은 성경 예언과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추세로 점점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 main obstacle to a stable and just world order is the United States. America is next target... intentional collapse...’(George Soros)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의 진행에 가장 장애가 되는 세력이 그들의 철학과 맞지 않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의 종주국인 미국이기에 ‘의도적’으로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공공

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강국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은 도미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 이라면 앞으로 미국경제는 급속한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세력들을 이루는 주축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유대인 조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많고 '세계정부'가 그들의 대 전제이기에 때로는 소를 희생시켜 이스라엘에 반하는 정책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반해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Land for peace'의 주장을 펴고 있어 이스라엘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의 '무자비한' 대처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만 '다른 영'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을 뿐 성경예언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며, 그들 자신들도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다'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다 정확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의 바람은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해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 스스로가 찾고 더 연구하여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조각들을 성경예언과 맞추어 연결시킬 때 그림 전체의 윤곽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6.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70 이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세밀한 산술계산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탄생 538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있는 ‘70 이레’ 즉  $70 \times 7 = 490$ 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어체로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백성(유대인)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왕(메시아)이 오실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며 그 49년 안에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될 것이나 그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메시아)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가(적그리스도)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기간의 절반(3년 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예물과 제사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단 9:24~27=B.C. 538, 마 24:15)

이 예언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총 490년으로 정하는데 그 중 처음 49년 동안에 성벽이 재건될 것이고,  $49+434=483$ 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며 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에는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만 확실히 알면 이 예언의 진위는 금방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단 9:25)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 영을 내린 정확한 날짜만 찾아낸다면 성경이 맞는지 않는지를 간단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영을 내리는 내용이 느헤미야 2장에 있는데 이 책을 잠깐 덮어두고 2장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 하는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왕에게 파괴된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왕은 그렇게 하라고 영을 내리는데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느 2:1)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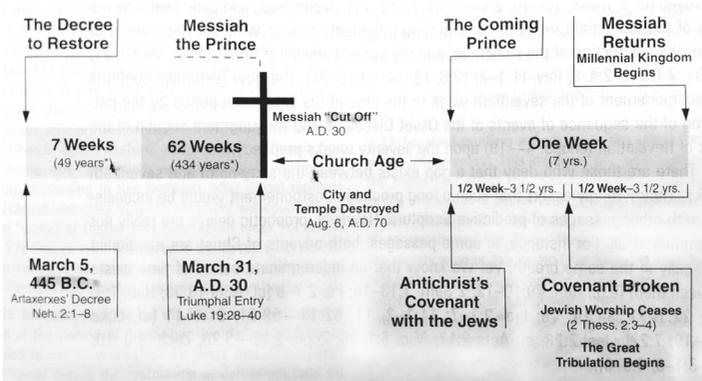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425까지의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445년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해가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니 따라서 이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490년이 지나면 유대인 역사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BC 와 A.D.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실제 탄생은 4년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Julian calendar로 계산한다면 대략 계산해도 예수님이 33세에 사망했기에  $445+33=478$ 년으로, 여기에 기록된 483년과는 몇 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달리 오히려 음력 달력과 비슷하게 1년을 360일로하고 4년마다 윤년(leap year)으로 조절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날짜 계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The Coming Prince’를 쓴 Sir Robert Anderson 계산을 인용하겠습니다.

Royal Observatory, Greenwich, England의 날짜 수 계산에 의하면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날이 B.C. 445년 3월 14일이고, 그것을 날짜 수로 풀면 그때부터 173,880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그 날이 A.D. 32년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은 너무도 정확(too perfect) 하기에 오히려 역공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한가지만이라도 정확히 계산했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그들이 놓친 것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롬 11:11, 12, 25)는 말씀대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려놓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행 28:26)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인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490년 중 483년까지는 정확히 들어맞았는데 마지막 7년을 채우지 못한 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7년을 채우기 위함으로, 마지막 7년은 ‘이방인의 때’의 끝인 휴거로부터 시작해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7년 대 환란’ 기간입니다.



Daniel's Seventy Weeks (Daniel 9:24-27)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24)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회복되는 날이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중동지방 분쟁의 주된 원인은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유대인 측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팔레스타인간의 쟁탈전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 TV 뉴스는 이와 같이 지옥이나 아니냐 하는 당신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채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생각하며 나는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17. 지옥과 두 개의 갈림길

천년왕국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지옥) 던지우터라.”(계 20:15)하는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해 온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도 분명히 사실로 실존하는 곳입니다.

만약 지옥의 존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는 말씀대로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존재는 근본부터 허구이고, 예수는 지옥의 공포를 미끼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인류역사상 최대 최악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짝어 불에 던지 우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0, 12)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 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1, 46)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 9:47~49)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겠느냐 주장하는 교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잠 28:26)에 해당되는 자요 결과적으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가르치는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두 길들 중 어느 한길로 가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렘 21:8)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명 30:1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마 13:49, 5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마 24:40)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누구도 예외 없이 한길만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 길을 가게 될 것입니까?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더라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결정입니다. 9.11 사건으로 일순간에 죽은 3,000명 중 그날 아침 출근길에 집 현관을 나서면서 자기가 오늘 죽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날 모두는 확실하게 죽었지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은 나와는 관계없는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까마득한 먼 훗날 일로 미루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화 되고 그때 ‘아차’ 해도 이미 늦어 버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 6:2)

이 문제는 ‘오늘’ 우선 먼저 해결해 놓고 나머지는 후에 천천히 하여도 나의 운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5, 26)

미루지 말고 아직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급히’ 해결을 보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충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20)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 받는 부자가 “나를 궁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자신은 포기하며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 하게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 16:19~31)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눅 21:34)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눅 17:27, 28)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18. 이것들은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것들이 후대에 살펴봐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명 18:22)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지 말고, 또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렘 28:9)한 조건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30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3,00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언들은 대부분 기록 당시부터 3,000년 또는 3,500년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때에 도달한 지금 이와 같이 정확히 맞아오고 있는데 인간의 두뇌로 감히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전 1:16)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 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

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 3:3~13)

옛날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론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리라고 하면서 ‘체질(elements)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원자탄이나 핵분열을 논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부터나 이해할 수 있을법한 용어들인데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흥미롭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파노라마와 인간 역사의 전경을 과연 누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 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4)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이다.”(사 44:6, 7)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운명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 개인 인생의 여정은?

인류 전체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 인생 개개인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인생여정 전체를 한 시야 안에 넣고 보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개인의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시점까지에 겪고 있는 각 세대마다의 과정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직업을 가졌기에, 인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행렬을 지어 고속도로 길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목표지점의 절반쯤 또 어떤 차는 삼분의 이쯤 지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 대도 예외 없이 그 목적지는 공동 묘지입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듯 달리지만 따지고 보면 더 구체적인 종착지는 장례식장에 있는 번쩍 번쩍 빛나는 관 속입니다.

이곳 미국의 경우 젊었을 때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다가 75세쯤 이르면 이젠 모든 것이 거추장스러워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노인가파트로 옮깁니다. 80세쯤에는 양로호텔 그리고 85세쯤에는 아직 재수 좋은 사람만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양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때는 평생 모아두었던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오로지 벽에 붙이기 위한 사진 몇장 뿐입니다. 그것도 양로원 종업원에

게 그의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가족들이 그렇게 해주었을 뿐 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때쯤에는 그 동안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학벌이 좋은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건, 하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 되어 기저귀 차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떠먹여주는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급차에 실려 나가더니 곧 이어 관 속에서 사람들의 전시거리가 된 후 다음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장례식이 아무리 거창했건 묘지가 아무리 훌륭하건, 그것은 가족들이 자기들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만의 얘기가 아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상을 가진 분은 양로원을 방문하여 만나절만 자원 봉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80년 현생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모으려고 또 더 잘살아 보려고 바동거릴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양로원에까지 갈 필요 없이 가족이나 주변에 계신 75세 이상 되신 분들께,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써 아직 젊은 나에게 권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다 헛일이야’가 대부분의 답일 것입니다. 돈 더 모으려고 새벽에 나가 밤 늦게까지 바동거렸던 일, 더 좋은 집 사려고 안간힘 썼던 일, 부동산 거머쥐려고 미쳐 다니던 일, 더 높이 오르려고 발버둥 치던 일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야’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그들의 간증일 것입니다.

80년 이 기간의 결국은 다른 아무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나그네’ 생활로써 단지 ‘영원한 분향’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일 뿐임을, 허송세월하기 전 하루라도 더 일찍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 마음껏 창공을 날면서 노래로 생을 즐기고 있다가도 그물에 걸리는 순간 자기의 생의 마지막이 일순간에 임하듯이, 인생도 “생기를 주장하며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전 8:8, 9:12) 하는 말씀처럼 나의 운명도 언제 어떤 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를 마쳐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고후 6:2)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영역 밖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마 6:17)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고생을 무릅쓰면서도 인내하며 추구하는 것은 더 행복한 삶이지만 마지막에 전체를 놓고 엄밀히 저울질한다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3, 4, 10) 하는 말씀대로 인생살이는 사실 걱정과 수고의 연속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15~21),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3, 14).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기 하였노라… 짐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 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나... 저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도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렘10:23).

기도할 때 흔히 쓰는 말대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일 뿐 ‘운명’에 관한 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머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 하며 제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 뿐이니이다.”(시 39:4, 6, 11)

종신토록 수고한 결과 ‘성공’이란 것을 이룩하여 이제 좀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싶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반기는 것은 뇌졸중이나 암이라는 진단인 이것이 인생살이의 결국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꽃의 존재 목적은 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피어 있는 동안 수정되어 열매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80년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씨를 받아 수정되어 알곡을 맺기 위한 준비기간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가 그 결국인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나는 언제 씨를 받아 알곡이 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 그런데 관심이냐 있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쪽정이가 알곡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이 질문의 답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하는 말씀대로 곧 그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법조문에 의해 재판의 결과는 ‘사형’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이 곧 그 사형 집행일이요 그 집행일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감옥살이가 우리의 인생 살이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인생들에게 알리면서 아직 집행 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놓고 살라고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5, 26)

현재 생의 일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요 인생 80년 여정

의 의미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회하라.”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기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일을 기다리는 형무소 안에 있는 사형수에게는 형 집행을 무효화 시키는 노력 이외에 부동산투자, 사업확장, 골프연습 등 모든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혹 가지고 간다 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미 나에게 팔려서 1분 후면 도마 위에 얹어져서 머리가 잘릴 운명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먹이 쟁탈전을 하고 있는 마켓 수족관 속 물고기의 미련한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인생들의 미련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옥’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신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단순한 상상의 세계 정도로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경우, 자신은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분석을 해 보면 전연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세상 출세에는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도, 성적향상 진학문제 피아노 레슨에는 그렇게 열성하면서도, 그들의 구원 문제에는 별 관심 없이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지옥의 존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 사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는 말씀대로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존재는 근본부터 허구이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래 열거한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예수는 지옥의 공포를 미끼로 삼아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인류역사상 최대 최악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짝어 불에 던지 우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0, 12)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1, 46),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 9:47-49),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곳에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는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후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결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렘 21:8) 하는 말씀대로 두 길들 중 어느 한길로 가도록 판결이 내려집니다.

나는 어느 쪽 길을 가게 될 것인지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는 아무리 후회하고 또 ‘슬퍼하며 이를 갈더라’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재물이나 세상 명예를 지키는 것과 지옥을 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해결할 우선순위인지 거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9·11 사건으로 일순간에 죽은 3,000명 중 그날 아침 출근길에 집 현 관을 나서면서 자기가 오늘 죽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날 모두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 다시 생각 하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 관계 있다 하더라도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일로 미루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나이나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화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차’해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 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후에 천천히 하여도 나의 운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 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들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5, 26).

미루지 말고 아직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급히’ 해결을 보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충고입니다.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 본다면 ‘바빠서’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모두 바쁘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장만하는 ‘예

비’와 지옥 면하는 ‘예비’ 중 어느 것이 진짜로 중요한 예비이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서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 받는 부자가 “나를 궁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자신은 포기하며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 16:19~31)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저 위에 있다면 아직 지상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16) “You must be born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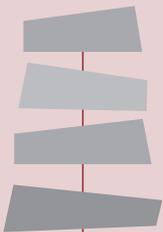
만약 “must”라고 한 이 성경말씀이 ‘사실’이라면, 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면,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꼭 먼저 확인해 놓고 살기를 거듭 권합니다.

## 제2부

### 무엇이 문제인가?

19.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20. 죄의 시작
21. 인간의 근본 문제=죄
22.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나다
23.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24. 죄의 기준은?
25. 죄의 구체적인 목록
26. 가장 큰 죄
27. 종교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하여
28.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29. 내 생각은 항상 옳은가?
30.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심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길

## 19.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성경 공부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데 따 먹을 줄을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며 복잡한 역사를 꾸며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 9:20, 21)

창조주가 자기 뜻대로 하시는 일을 감히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궁색하나마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창 2:16, 17) 아마도 에덴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자유로이 먹되 단 하나 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는 동시에 다스리라고 하신 대로, 경영권은 아담에게 있지만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사랑”(요일 4:8)이시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

다고 가상하며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완벽하고 순종만 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두 번째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선택해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프로그램 된 로봇이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사람 즉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는 어떠한 경우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나의 원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따르든지 거역하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당신의 자유의지로 믿는 것을 선택하기를, 마음 문을 억지로 열지 않고 스스로 열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불 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 8)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당신의 자유의지로 당신이 문을 열면 그가 당신에게로 들어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 20. 죄의 시작

이렇게 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의 목적은 처음 창조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인데, 현재 인간의 역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시민을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 하기에 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죄’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는 불법이라”(요일 3:4)는 말씀대로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되... 에덴에 동산을 창설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7, 8, 17)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몰래 먹고 나면 우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말씀을 어긴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지 말라’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체가 곧 죄였고 “죄의 값은 사망”(롬 6:23)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법대로 그것을 먹은 즉시 아담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살전 5:23)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일반 의사들이 다루는 육체요, 혼은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정신과의사가 다루는 부분이고, 영은 양심활동 같이 종교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창 1:26)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형태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

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에는 ‘영’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전기플러그에서 전깃줄이 뽑힌 것과 같이 연결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는 영의 죽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기 자체는 완벽하고 흡이 없더라도 전화 요금 미납되어 연결이 끊기면 죽은 전화기가 되듯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아담의 육체는 수백 년을 살면서 자손을 낳았었지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먹은 그 날 그의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으로 이 법칙은 지금까지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절대적인 영의 법칙으로, 사람이 죄를 지은 후 나타나는 증상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갓난아이들에게는 수치심이나 양심의 갈등이 없는데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천진난만한(innocence)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이브는 이런 상태였기에 양심의 갈등이 없어 편안한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창 3:7)해 입었습니다.

수치심 즉 양심의 부끄러움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것을 인간 스스로 가려 보려고 치마를 만드는 노력이 곧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행위로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엔 아무 효력도 없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9, 10)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영의 문제 즉 양심의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원시시대로부터 초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사람부터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형태는 다를망정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해도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없는 것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1. 인간의 근본 문제=죄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이 불안 공포 초조 불행감 죄의식 우울 분노 등입니다. 그 이유가 외적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설혹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런 갈등의 원인은 선악과를 먹은 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기에 하나님과의 재 연결을 찾기 위한 방향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 3, 7, 8, 2:22, 23, 4:15~17, 11:9, 12:14)

인간의 근본문제를 진단하는 지적들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죄로 인한 영의 죽음’이요 그 결과는 ‘지옥’이어서 그 근본 원인이 치료되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무엇인지 다가오는 운명을 막연하게나마 감지하며 불안해하듯이, 인간의 영도 막연하나마 자기가 가게 될 지옥 운명을 감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종교 심리를 분석하면 한결 같이 양심 속 깊숙이 자리한 ‘죄의식’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는 찬송가와 같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2.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나다

죄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체의 본질은 혈통 즉 그 선조 조상의 피 속에 있는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조상이 백인이면 자손들은 다 백인이 되는 것이 생명체의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법칙에 의거해 ‘죽음’이라는 조상 아담의 유전 인자를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전 15:22) 태어날 때 이미 그 영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본질상(by nature) 진노의 자녀이었던니”(엡 2:3) 하신 대로 우리는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데, 이 ‘죄인’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백인, 흑인, 한국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인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말은 햇볕에 그을린 적 없는 오늘 태어난 아이가 흑인으로 불리듯이 한 번도 죄의 행위를 해 본 일이 없는 갓 태어난 아이도 역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그 핏속 유전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본질을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욘 15:14)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사과나무이기에 사과 밖에 열수 없듯이, 우리는 ‘죄’라는 행위의 열매를 열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나무 자체가 ‘죄인’(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 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 7:16)는 말씀은 ‘죄 나무’에서 ‘의의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나무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는 않고 의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근본 본질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수 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노도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는 말씀은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어 아무리 꾸민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듯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도 그분의 눈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해결 방법 역시 나의 ‘행위’가 아닌 ‘피’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는 아무리 위장해도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사람 중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대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백인이 아닌데도 화장과 분장으로 백인 행세 하려는 사람처럼 본질은 선이 아닌데 선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욥 25:4~6)

“네가 범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 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6~8)는 말씀은 구더기들이 서로 착하게 살면 자기들끼리 유익하고 악하면 자기들끼리 손해일 뿐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듯이, 인간이 착하거나 악하면 인간 끼리나 영향을 끼칠 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명책에 기록 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라.”(갈 2:16, 요 3:3~7, 계 20:15)는 말씀과 같이 천국에 가려면 종교생활이나 착한 행실로서가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새로운 탄생으로 그 이름이 출생 신고서에 기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이 예수께서 처음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하실 예수는 심판자 입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알곡 된 자들은 곡간에 들이고 죽어 있는 쭉정이들은 지옥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 심판은 얼마나 선하거나 악하게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죽어 있느냐(죄인) 새로 생명을 받아 살아났느냐(의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 23.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밖에 열릴 수 없듯이 죄의 나무에서는 ‘죄’라는 열매 밖에 열릴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의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는 줄 착각하며 노력합니다. 그 착각을 일깨워주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 나무’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롬 3:20, 7:7, 13)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키라’가 아니고, 노력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죄인)’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더 악한 죄인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국에 법이 1,000가지라면 999가지를 완벽하게 지켰더라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듯이, 율법 중 하나만 어겨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행선지는 지옥이기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0, 11)

십계명만 보더라도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을지라도 좋은 집을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살인한 것이나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 5:21, 22, 27, 28)

많은 사람들이 큰 죄나 또는 많은 죄를 지어야 지옥에 가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지은 죄와 쌓아놓은 착한 행동을 저울질하여 기우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성경 말

씀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오른 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마 5:27~30) 하셨는데, 이것은 눈을 빼어내라는 뜻이 아니요 ‘네가 노력 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항복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함을 알아차렸을 때 빨리 다른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비용을 계산해봐서 불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고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아군과 적군의 수를 비교해보고는 불리할 것 같으면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눅 14:28~32) 하신 비유의 말씀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잠 28:26)라는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더러운 죄인임을 보았으면 그것을 씻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야지 율법 자체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한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지도 교사)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롬 3:28, 갈 2:16)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도 ‘그렇지만’ 하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겠지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24. 죄의 기준은?

태어날 때 본질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의로 저지른 모든 죄의 책임까지 아담 탓으로 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한 동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인 ‘자유의지’를 남용했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책임전가를 했던 아담 같은 심보는 죄를 추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사상은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큰 죄가 아닌 이런 사소한 죄 때문에 설마 지옥엘 보내시겠느냐며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훔쳤는데 그 아이의 처리 문제를 놓고 법관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한국 법관은 아직 아이니 훈방하면 된다고 하고, 중동출신 법관은 법대로 손을 절단해야 된다고, 중국 법관은 네거리에서 공개 총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 팽팽한 주장을 하는데 아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한 가지, 그 아이의 범행 장소에 따라 그 나라 법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계 21:8) 거짓말 한번 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항변한들 하나님 나라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명 4:2)

마음속에 ‘그렇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아무리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법은 밖으로 표출된 행동을 기준으로 판결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행동보다 마음속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X-ray 기계 앞에 서듯 위선의 옷을 벗는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 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 하나니”(렘 17: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마 15:19)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으로 내 마음이 그렇다고 예수께서 나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경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끼고 다닌다면 당신은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전할 때 위치를 추적해 주는 navigator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몸 속에 집어넣어질 biochip 같은 것은, 비록 인간이 만든 기계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 23:24)

“화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사 29:15)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 하시느니라”(잠 16:2)

감히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곳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활동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듯 모든

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롬 2:16)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 하시리라”(전 12:14)

은밀한 죄란 자기 혼자만 아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자수하여 그분 앞에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둔다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보내진다는 말씀입니다.

## 25. 죄의 구체적인 목록

하나님께서서는 내 마음속엔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있고, 모든 죄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죄목을 하나씩 나열하며 지적하십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걸리면 변명의 여지없는 확실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법령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소소한 것들은 다 잘 지켰다 하더라도 십계명 중 하나를 어겼다면 확실한 죄인이요 확실한 지옥행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찌니라”(출 20:8~11, 31:15)

어느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별도 법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을 경우는 죽음까지 받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약간 심한 노동을 피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책을 줄여보려는 자기합리화일 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친척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마 5:21, 22, 요일 3:15)라는 말씀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대로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목살한다면 예수님을 목살하는 것이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가 추가됩니다.

낙태는 합법화 시키지 않는다고 항의 시위 하는 사람이 고래나 족제비 죽이는 것에는 동물애호라며 시위하는 타락과 위선의 세상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출 20:14)(마 5:28) 이것 역시 과장된 가르침이라 목살해버린다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 하는 자들과 간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간통함을 보거든 둘다 죽여…”(명 22:21, 22). “골육지친(어미, 계모, 누이, 고모, 이모, 형제의 아내)의, 타인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남자끼리 교합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 18:6~23, 20:10~21)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는 말씀은 성적인 간음 말고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납편”(렘 31:32)이신 하나님보다 정부에게 더 마음을 두는 간음

행위로 하나님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음녀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창녀촌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 물론 간음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지요. 둘 다 같은 간음죄인데 마음속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느 것을 더 큰 죄로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출 20:4)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도 물론 우상숭배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는 말씀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우상숭배로 의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이든 정직한 수단이 아닌 것으로 남친 이익은 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가게에서 \$5짜리 과자 훔친 것은 도적질로 정죄 하면서 내가 허위세금 보고로 나라 돈 \$5,000 훔친 것에는 죄책감도 없는 위선자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 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잠 28:24) 남의 집 손가락 하나 집어온 것은 마음에 걸리지만 부모재산 몽땅 가로챈 것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라 합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8)

하나님 것(십일조) 도적질한 죄는 내 마음속 죄 명목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 남의 아무것이나 탐내고 부러워하는 것 역시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요, 그 대가는 지옥 불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역시 내 마음속 죄 명목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명 15:7~10)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거절하지 말라”(출 22:25, 마 5:42) 이것 역시 어겼을 경우 지옥행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레 19:18)

원수는 고사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일지라도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한 한 못 본 척 피하려 멀리 돌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남이 잘못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은근한 쾌감마저 느껴지는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고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6)

이 말씀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어 나를 남보다 우위에 두고 싶어 하는 심리이기에 이는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눈앞에 상황들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날마다의 일상으로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롬 1:18~32)

‘마음에 하나님을 둔’ 것이 몇 시간이나 될까, 이것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사형’이라고 선고되어 있는데,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사형수 신분이라는 것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난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 10)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 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 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 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딤후 3:1~5)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역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단호하고 분명한 선언인데, 내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계 21:8,27)

하지만 마음속에 ‘그렇지만’ 하는 생각이 있다면 위의 죄들에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죄와 가감 죄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위에 여러 죄목들 중 어느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고도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하며 지옥을 경고하시나 그래도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레 17:14, 19:28),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명 22:5),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출 23:1) “돼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명 14:8, 10) 등등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소소한 것들도 많은데,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들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지키려 온 힘을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 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30) “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마 9:12, 13)는 논리를 적용했을 때,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켜보니 내가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억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내게 필요 없는 예수를 붙잡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이론적으로만 인정될 뿐, 마음 깊이로부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기독교인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만약 지금 죽는다면 곧 지옥행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봉사를 최우선으로 살아왔는데 지옥에 간다면 더욱 억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많아 눈물을 흘렸다는데 나는 반대로 죄가 인식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영영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

편 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 13) 하는 전에도 수없이 읽고 외우기까지 했던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세상 모든 죄 중에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임이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렘 2:35)

솔직한 상태로 돌아가 보면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의 나의 참모습은 선인으로 잘 위장된 완전한 위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선의 옷으로 겹겹이 덮힌 점잖은 나의 모습은, 그 동안 나 자신도 정확한 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었던 가짜였다는 것이 거울 앞에서 서 있는 벌거벗은 모습에서 처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시간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자신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성경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양심은 내 속에서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솔직한 대답이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의 지적을 외면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 20:27)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 7:10)이라는 말씀대로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양심에 솔직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6. 가장 큰 죄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죄인데도 별것 아닌 걸로 간과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기 이외의 다른 이성과 혼외관계를 갖는 것이나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자기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최대의 범죄행위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렘 31:32)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사상이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는 생활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 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2, 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2:13, 19)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롬 1:25, 28)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기 마련인데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면 어떡할까, 만약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님을,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 무관심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들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사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를 분석해보면 사실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입니다. 신이 존재할까 의문을 갖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일 수도 있지만 무신론을 연구하고 강조하려는 것은 연구에 앞서 나는 왜 그런 subject에 몰두해야 되는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 14:1)

신이 없기를 바라는 심리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두려움 때문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속 양심은 인정하는 심리현상입니다.

인적이 없는 산중 길을 한 밤중에 혼자 운전하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공포에 떨며 구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불을 반짝거리며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너무

나 반가워 안도의 탄성을 지르는 것이 정상일진데 만약 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초조해 하며, 더욱이 그것이 경찰차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범죄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27. 종교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형태야 어떻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결국 죄의식을 해결해 보려는 인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해결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려는 것이 일반 종교인데 반해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참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착각일 뿐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 3)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휼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 17:24, 25)고 하십니다.

죄 문제는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이 원리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은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줄 그분’을 찾아 그분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려보려는 자기 노력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를 믿는 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닌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 대통령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 대통령도 나를 잘 알아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쌍방이 관계를 맺을 때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작 그 분과의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짝사랑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이 내용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마 7:24~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길로 찾아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내 경고를 듣고 자신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지도 않은 채 교회생활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심판 때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하신 말씀은 누구나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 한 분이 ‘누구든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겠다’는 신문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무에게나 유산을 주겠습니까? 모여든 그 사람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지 정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한 후에 확인이 되었을 때에야 유산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는 찬송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그분의 아들로 태어난 사실을 간증하고 자신 있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정성을 다 바쳐 교인 생활 했다고,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직접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음을 제자들이 보고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 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써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눅 13:23~27)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적은 무리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비 기독교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 보면 예수께서는 비 기독교인은 아예 거론하시지도 않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함께 지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

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인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위의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직접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이 떠나 가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마 27:3) 양심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매어 죽을 정도로 통회하였습니다. 그래도 해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다 만큼이나 자신의 죄로 인한 양심의 괴로움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기도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이라...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사 1:15, 59:1~8)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이런 찬송을 방금 신나게 불러 놓고도 기도하자면 다시 울어대고 또 나가서는 죄를 상쇄하기 위해 착한 일하느라 힘쓰는 이율배반에 무감각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You must be born again”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내가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말하는데 거듭난 사실이 없었다면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인데,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이 가사의 뜻을 잘 음미해야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나라, 맘  
착해 도 못 가요 하나님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나라, 믿음으  
로 가는 나라 하나님나라’(230)

## 기도에 대하여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 없이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 하실 걸로, 또 일방적으로 실컷 떠들고는 카타르시스에 의해 마음이 후련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같은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자기아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서로 옆집아이는 떨어지게 해달라는 부탁인데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해하는 사람이 동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며 감사합니다. 서쪽으로 향해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말입니다. 운동경기 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기도하기 전 먼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우주의 창조자 세상 모든 이치와 논리 과학의 근본인 전기, 전자, 컴퓨터원리의 근본이요, DNA designer이시지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신종교의 신이거나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껏 우리들 사업 잘 되고 좋은 학교입학에 건강을 돕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무엇이 기도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마음속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효도, 애국 등이 그러하듯 기도 역시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적절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이 사랑은 키스, 효도는 큰 절, 애국은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기도는 눈 감고 고개 숙인 모습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체가 애국이 아니듯이 눈감고 고개 숙인 모습은 상징적일 뿐 그것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24시간 기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뻗었는지 누어서 하는지 운전하면서 하는지 외형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른데 두고 있으면서 의식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 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하리니”(사 1:15)라는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당신의 기도를 몰래 녹음해 대중 앞에 공개하겠다고, 나는 성경대로 하자 없는 기도를 했으니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녹음된 기도를 분석하면, 건강문제, 자식문제, 가정문제, 돈문제가 90% 이상이 아닐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1)

그런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건으리라”는 말씀대로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건강을 원한다면 운동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학적 법칙을 따라야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는 하나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로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다면 고생스런 과정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복을 달라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복권구입 심보일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거든 이런 비교실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A그룹 100명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입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B그룹 100명은 매일 새벽 같은 그 시간에 밖에 나가 노동을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gym에 가서 운동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어느 그룹이 더 부자가 되었으며 더 많은 수가 합격했으며 더 건강해져 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하셨다고

아무거나 달라고 때를 씁니다. 바로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조건이 있고 계속 읽어 가면 ‘내 안에 거하면…’이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의 뜻으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교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조건이 있음은 생각지 않고 마구잡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의 말씀도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뒷부분은 무시하고 돈 복 달라는데 응용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3, 4)고 했습니다. 즉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남편”(렘 3:14)이신 하나님 대신 다른 남자를 달라고 간청하는, 즉, 간음을 하도록 해 달라는 기도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해 달라는 기도라는 말씀이기에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간음죄를 쌓고 있는 것이 되는 이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복’에 굶주린 민족이어서 교회에서도 자나 깨나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머리에 그리는 그 축복이란 돈 많이 벌어서 사업 번창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지만 그런 세상적 욕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그런 것이라면 왜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평생을 쫓겨 다녔으며, 요한 한 사람 이외에 전원이 십자가나 목 베임 받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잠 30:8)의 말씀대로 하려면 돈 너무 많이 벌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대로 하려면 내 자식은 떨어지고 대신 옆집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데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와 손을 짚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 2)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한다 해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도가 온통 건강 사업성공 출세에 관한 것이라면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할 기도는 모든 것 이전에 목숨을 건 간절한 심정으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이 사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십시오’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도 이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즉 아들이 되는 것, 합격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 외형은 나의 잡생각을 차단하며 내 마음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즉, 나를 위함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교회나 기도원 같은 특정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가 아니요 그런 곳에 가면 내 마음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

이 아니니...”(행 17:)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 천주교 식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 목주 만지며 돌리는 것 등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 가다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참으로 참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지 그런 외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와 같은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 트집을 잡는다면 오히려 ‘남을 비판하는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이나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하여 그런 것 하지 않는 사람, 또 식사 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 어느 경우가 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외형의식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식당에서 옆 고객이나 분위기 고려 없이 큰 소리로 공중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외치라 입을 크게 벌리라 팔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채워 주시리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을 바라시는 것이지, 만약 외형자체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대 수술로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손이 없어 팔 벌리지 못하는 상이용사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 역시 마음이지 음악 자체라면 음치를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되고요.

기도에 관한 한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잘못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여 반대로 하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라,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말라 등 ‘하지 말라’를 ‘하라’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 하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5, 31, 33)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설명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가정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문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30분이 넘도록 막힘이 없는 장로님을 교회에서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성경에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졌다면, 또 금식하러 가는 것을 광고한다면 벌써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 나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실이 있었던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에서 옆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시여...’하다가 보니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어느새 슬그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직은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느 형편없는 불량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아버지’하며 큰 소리로 부르며 당신을 계속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생각되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출 20:7)는 십계명을 어긴 불경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재벌 한 분이 연세가 들어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은 후 ‘너희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 유언을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재산 싸움하지 말고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 같이 식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 가족들에게 이것을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또 가족모임 파하기 전에 ‘형제간에 우애하고...’ 줄줄 암송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식들이지요.

주님께서 명하신 소위 ‘주기도문’은 실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13) 하며 모임 파할 때마다 줄줄 외우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위의 어리석은 자식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 받았을 때, 너무나도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죄 문제로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는 당신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니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참 기도이지, 프로그램 순서 짜 맞추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

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기도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거나 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외형이 아닌 속마음을 볼진대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이 의식(ritual)이 아닌 속마음(heart)으로부터의 삶이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려는 듯 길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나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 6:8)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마 7:7)라고 하셨으며 “나 여호와가 말 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겔 36:37)는 말씀처럼 왜 꼭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아버지인 그를 믿고 의지하며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 28.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미국교회에서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는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제가 한국에 살았던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계에서는 구원이란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라며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로 취급하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

송 하겠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가는 신나게 부르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유행처럼 너도나도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1973년 5월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Billy Graham목사님의 100만 명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때 설교의 핵심이 'You must be born again'이었습니다. 50년 기독교인 생활을 했어도 신학교를 나와 목사 신부가 되었어도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 매일 매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아마도 그 집회가 계기가 되어 한국 교계에서도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들이 보편화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화끈한 것을 체험했다든지 또는 착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하신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대개 육신이나 감정의 경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중생과는 관계가 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가 역시 기도를 하다가 화끈한 체험을 했거나 무슨 환상 같은 것을 보았다는 식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런 체험들은 혹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목표는 구원만을 뺀 독실한 '기독교인'을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런 경험을 거치고 나면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런 분은 죄 사함의 경험이 있었는지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고후 11:14, 15)

선한 일들을 하고 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눈물 흘리며 실컷 기도하고 나면 후련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성령과 관계 없이도 심리학적 현상으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소위 성령을 받게 한다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령 받는다느니 병 고친 다느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원래 싫어했기 때문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성가대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스치는 생각이 만약 그런 것이 진짜 성령에 의한 역사라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확실한 근거 제시도 못하면서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거절하며 버티는 것은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참석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찾아야겠다는 작정을 하고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존재합니까, 만약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난생 처음하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내가 증거로 요청한 것은 방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평소 소원하던 것을 얻는다면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평소 경멸했던 것은 받는다면 그것은 심리적 현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

력이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몇 일간 금식을 한 다음 몇 가정이 모여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옆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 속에서만 어물어물 하였는데 돌아가면서 등을 두드리며 더 크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옆 사람의 소리와 비교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점점 높여가는데도 교만과 자존심의 마귀에 붙잡혀 아직도 체면을 보느라고 소리를 더 높이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체면의 마귀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등을 두드려대며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 다그치는 그 목사님 앞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체면의 탈을 벗기로 작정하고는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더 크게 더 빠르게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갈망하고 있던 소위 미국 일류 대학의 수학교수 박사 부부, 물리학교수 박사 부부, 정신과 의사의 부부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방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기쁨과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범벅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 하루하루의 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공중에 붕 떠있는 문자 그대로의 황홀경이었습니다. 이제 창피함도 없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주변 동료 의사들에게도 성령 받아야 됨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진짜 방언이었을까 하는 실낱 같은 의심이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였는데 계속 침공해 들어오는 의심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여섯 달쯤 지난 어느 날 glossolalia, psittacism 등의 항목을 정신과 강의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어느 것에 몰두하여 심취된 비몽사몽이나 황홀한 무아지경(trance, ecstasy)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방언과 글씨 같은 것이 써 나가지는 심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전 나의 심리상태를 대입해보니 그 당시 무엇인가 찾고자 간절했던 갈망과 몇 일간의 금식 또 집단적인 최면상태 등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교과서에 기록된 대로의 꼭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 인데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구체적 질문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공부를 하게 되어 앞에 얘기했던 죄 사함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죄 사함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직 되지 못했던 상태에서 소위 성령 받았으며 방언도 했고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과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마취주사에 취해 있었음을 아슬아슬 하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행처럼 T.V 화면에 비치는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향해 양손 쳐들고 지곳이 눈감고는 황홀경에 도취되어 있는 장면이 진짜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현상인지를 구별해야 됨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정신과를 전공한 의사로서 심각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성경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직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런 체험들은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심리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찾을 필요 없도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마귀의 훌륭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몸 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면 통증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morphine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황홀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되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죽게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황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전적으로 다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은 번쩍 인다’ 하는 말은 옳지만 ‘번쩍이는 것은 다 금이다’(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하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령이 아니고도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또 종교와 관계없는 최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병고치고 방언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현상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긍되지 않는다면 Las Vegas의 최면술 쇼를 한 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최면에 걸리면 최면사의 지시대로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창한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의 입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따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9~12)는 말씀이나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논하는 구원은 영, 혼, 육 중 영의 구원인데 육체나 정신은 영의 구원 여부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육신은 바늘에 찔리면 똑 같이 통증을 느끼고 술 마시면 똑 같이 취하고 예쁜 여자 보면 똑같이 성적 자극을 느낍니다. 혼 역시 복권에 당선 되면 똑같이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슬픔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부 상관 없이 심리적 분위기만 조성 된다면 성령과 관계 없이도 방언 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29. 내 생각은 항상 옳은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무엇으로 아침 식사를 할까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로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요구당하면서 행동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들은 대부분은 자기 판단은 항상 옳다는 전제하에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옳은가 정확한 판단,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주관적’인 ‘내 생각’보다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기침을 하는 것을 보니 ‘내 생각’에는 감기 증세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밥도 잘 먹었고 활동도 잘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며 고집부리며 항암 치료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행위입니다. 내 주관을 믿지 말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더욱이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 성경이 사실임을 믿을 진데 성경에서 그러하다 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접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재의 ‘기독교’는 2,000년 전 원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인 성경대로 하면 몸에 배인 고정관념에 익숙하질 않아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생각’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 현대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보다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봉사를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말씀들에 유념하여

자신의 의견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고후 10:5)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너는 마음을 다 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 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잠 3:5, 12:15, 14:12, 16:2, 18:2, 28:26, 30:12)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7~9)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려면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 당연히 ‘내 생각’을 접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권함

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testimony in his heart) 있고”(요일 5:10)에서 이 증거는 잡다한 다른 체험 같은 것들 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이것이 나의 간증이요(This is my story)’ 하는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examin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prove yourselves) 예수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you are disqualified).”(고후 13:5)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30.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심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 19:16~23)

만약 그 청년이 ‘그것들은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 하는 대신 “주여 지켜보려고 아무리 노력 해보았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솔직했다라면 답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

이러한,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그는 아깝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로 끝나 버렸습니다.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고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 19:8) 하고 자신 있게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솔직하게 “이 어려운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었다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함으로 받았던 수천 년 동안의 저주의 역사를 면할 수가 있었을 것이란만 주재 넘게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시 7:10)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나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13),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후 1:15).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정직히 시인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들입니다.

문둥병이 부분부분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레 13:13)

겨우 생각해낸 몇 가지의 죄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문둥병환자다 하실 때 “예, 맞습니다. 과연 그러하옵니다. 나는 전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

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욘 13:23)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소위 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도 깨끗한 척 자신을 숨기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더 역겨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까 내놓으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위선자들이 아닙니까? 거리의 깡패 사기꾼 패거리들이나 거룩한 가운을 입은 성인군자라고 불리는 성직자들이나 오십보백보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똑 같은 ‘죄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깡패 사기꾼들은 배우기질이 부족해 변장술이 서툰 사람들이고 종교가들은 자기를 의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변장술이 능숙하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와서는 자신이 변장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무뎠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편안해 했던 사람들은 창녀나 죄인들이었고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고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은 거룩한 종교가들이었음을 상기하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9~14)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3:9, 4:9) 하며 죄를 숨기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사 29:15)

반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눅 23:39)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 같이 아담이나 가인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똑 같은 죄인들인데 다만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솔직한 죄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또는 숨기는 ‘솔직하지 못한 죄인’의 차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시는데도 나는 “범죄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요일 1: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렘 2:35)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하셨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Where are you)?” 당신에게 물으실 때 정확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반복하겠으니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치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는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번만이라도 정말 심각하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적이 있었으며, 그 해결을 위해 예수의 필요성 절감하며 그

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해본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죄 문제 해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해결을 간절히 간구해본 적이나 있었는가의 질문입니다. 환자인 줄도 모르고 있는 나를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사가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데도 인식하지 못하듯이 죄 해결을 받아야 된다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 예수님의 노크가 내 문의 노크인줄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만 네 죄를 해결받으라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 예수 대문밖에 기다려 썼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 두니 참 나의 수치라’가 나의 찬송가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라는 것이 없다면 ‘해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요. 단 한번만이라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상적인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고 그런 것을 자극하는 분위기로 자신을 집어넣어야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명상, 강의식의 성경공부, 기도원, 부흥회나 tres dias 같이 감정을 자극하는 동동 어디든 각자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곳 찾아가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죄인’의 행선지는 이 세상나라에서는 ‘감옥’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세상나라나 하나님나라나 마찬가지로 죄를 백만 가지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요 단 한 가지를 지은 사람도 역시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시나무는 가시가 만개가 있어도 가시나무요 단 한 개밖에 없어도 역시 가시나무이듯이 말입니다. 나에게 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양’이 아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무’만이 문제가 되는 이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

려함이라.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 하시되…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렘 29:19~21)라고 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 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행 17:30, 31)으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지니라.”(롬 1:20)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의 영어 표현은 “Father, I have sinned… He came to himself(came to his senses)”(눅 15:17) 즉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의 뜻입니다.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은 정확하게 당신의 ‘제정신’을 찾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을 2:12, 13)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 34:18)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이 결실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honest and good heart)으로 말씀을 듣고…”(눅 8:15)

즉, 죄를 숨기지 않는 솔직한 마음이 될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 145:18, 19),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 107:19)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함이라”(사 57:15)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마 7:7, 8:25)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 하소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던 자들만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합격하는 데는 죄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히틀러보다 훨씬 악한 죄인이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하면 슈바이처 박사보다 훨씬 선

한 사람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입학 채점 기준은 자신의 악행점수는 가장 높고 선행점수는 가장 낮음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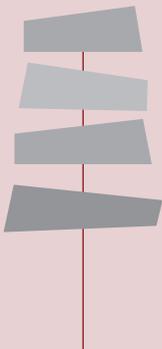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실 때 자기주장을 추가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받아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지 있느니라.”(요 9:41)

## 제3부

### 그 해결 방법은?

31. 구원의 계획
32. 나의 운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33. 어느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34. 십자가의 예언
35. 삼위일체
36.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을 진단합니다.
37. 해결책은 ‘탄생’으로, 탄생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38. ‘머리’로 믿는 것만이 아닌 ‘마음’에 경험된 믿음
39. 내가 ‘믿는(영접한)’이 아닌 ‘믿어진(영접 되어진)’ 믿음
40.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 죄의 해결은 오로지 ‘피’로만
42. 그림자인 짐승의 피
43. 실체인 예수의 피
44.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45. ‘대신’ ‘담당’하셨으니
46. 구원은 옷으로 덮어 버리는 것
47. 구원은 공짜로
48.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
49. “내가 곧 길ियो…”
50. 이제 죄는 ‘믿지 않는 죄’ 단 한가지뿐
51.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52.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53.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시오
54. 그래도 거절하면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길

## 31. 구원의 계획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제거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나와 똑같은 죄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제거하는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히 1:3)는 창조주만의 영역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 4:13, 14)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을 가진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21)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는 무화과나무 잎인 인간의 종교행위 대신 영구적인 해결책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한 마리 양’으로 탄생하시기 위한 계획을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사 9:6)고 아기예수가 탄생하기 760년 전에 이미 그 아이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분을 보내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혈통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앞에 공부한 대로 구약의 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인데, 그 한 마리 양이 곧 하나님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펴전 1:15)

## 32. 나의 운명은 자신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반복 설명했듯이 내가 한국 사람이 되거나 흑인이 된 나의 이 운명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혈통, 즉 ‘피’에 의해 본질이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이치를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로 ‘피(혈통)’에 의해 신분이 ‘죄인’으로 되어버린 그 본질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써가 아니고 역시 ‘피’로만 가능하다는 이치입니다.

흑인이 정말로 백인이 되고 싶다면 백인으로 ‘변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백인의 피를 받은 아이로 다시 태어나면 되듯이, 죄인인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노력하여 의인으로 ‘변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는 말씀대로 의인의 피를 받은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아담)’ 한 사람의 ‘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어 버린 대신, ‘마지막 아담(예수)’ 한 사람의 ‘피’로 인해 인류 전체를 ‘의인’으로 되게 하는 길을 놓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곧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Onl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이외의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으니 정신 집중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행선지는 지옥인데 내가 죄인 된 근본 원인은 억울하게도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려면 죽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했다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공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사 52:3) 하신 대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아침 병원에서 갓 태어난 백인 아이가 ‘본질’에다가 ‘자기노력’을 추가해서 백인이 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조상 한 사람 때문이듯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자기노력’을 추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예수’ 때문이라는 ‘본질’의 논리를 확실히 이해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되려 했던 방법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설명하시는 아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말씀의 뜻을 곰곰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롬 5:14), “첫 사람 아담(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예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45, 22)

“이러므로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이다. 그런즉 한 범죄(아담의)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예수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롬 5:12~19)

“한 사람(예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

아직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로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귀가 집어넣어준 독소사상을 내어버리고 다른 토를 달려 하지 말고 쓰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십시오.

옛날 계급제도가 있었을 때는 상놈의 피를 받아 그 가문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귀공자같이 인물이 특출하다 해도 상놈이지 양반이 될 수 없

있습니다. 훌륭한 예절교육을 받아 모든 양반들보다 품행이 더 고상하다 해도 신분은 그대로 상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양반집에 태어난 아들은 아무리 멍청하고 불품이 없어도 그 신분은 양반입니다. 자기들 조상 한 사람의 피가 후손들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의 피를 받은 결과 본질이 흑인으로 태어난 흑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백인이 될 수 없듯이, 죄인 아담의 피를 받아 신분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는 논리를 다시 상기 하면서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데로 눈을 돌리십시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다른 방법’ 즉 전 인류를 의인의 혈통으로 바꿔주시는 다른 아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지옥을 면하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이지 ‘당신’ 자신의 상태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 방법은 완전히 포기하고 2,000년 전에 온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 ‘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데만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관계의 종교(Not do or don't, but relationship)’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3. 어느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전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이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했는데 정작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 시대마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가는 가짜로 판명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도 기독교인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지금

도 그 역시 가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분이 그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탄생시킬 영성한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만약 어느 청년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당신은 어떻게 판별하시겠습니까? 훗날하게 잘생긴 인물, 설득력 있는 응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뛰어난 지식, 훌륭한 출신성분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가 훨씬 쉬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청년이 나타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무척 혼돈스러워 했던 것을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적 행하는 것들을 보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외모나 가정 배경이나 별로 종교성이 없는 것을 보면 아닌 것도 같아 혼돈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장 믿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같이 뛰어 놀기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였던 자기들의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믿어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요 7:5)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빨인 세례 요한 역시 “나도 그를 알지 못 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 1:33, 34)고 하는 말씀대로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5)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왔다면 그는 가짜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온 사람만이 참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5~47)라고 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메시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요 7:40)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가장 큰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 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 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 증거가 참 인줄 아노라…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요 5:31~34, 39)

이와 같이 지금 우리도 진정으로 참 예수를 만나고 싶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덮어둔 채 산속이나 기도원에서 찾으려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소위 ‘체험’이라는 것을 주는 귀신의 영에 속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적 행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고 성령에 관해서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하시니라... 표적을 갈릴리가 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보리떡 다섯 개)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 하셨느니라...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읍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백성 앞에서 표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 하였더라.”(막 16:20, 요 2:11, 4:48, 6:14, 11:42, 행 2:22, 9:42, 출 4:31)

당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지만 몇 년이 못 되어 다 죽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지 치유 자체가 주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께서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기독교의 주된 존재 이유가 그런 시시한 목적 때문이라면

양로원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건강과 아무리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80세쯤만 지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 우리들 육신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초림 하신 메시아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재림하실 메시아는 왕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먼저 나를 위해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메시아와의 관계를 맺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육신적 축복을 주실 메시아만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요 그 행적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너무나 막연했던 2,000년 전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믿기 쉬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등의 모든 기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기적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짜 큰 기적은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는 ‘죄 사함’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줄 자격이 있으며 권한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표적인데 그들 중 결정적 표적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 9:2)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마 12:39)

2,000년 전 있었던 미미한 기적들을 지금에 와서도 체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의 그런 기적들이 진짜였는지를 연구하여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분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줄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 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이신 기적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진짜였는지를 연구하고 만약 그것 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죄가 확실히 사해졌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연구가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예언이라는 형태로 미리 보여주시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판별법도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을 통하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300여 가지 정도나 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구약에 기록해 두시고, 그 예언대로 맞는 인물이 나타나거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 인물에게 이것들이 다 들어맞을 가능성은 830억 명 중 한 명으로써 통계학 상으로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300가지 예언들 중 언제(단 9:25), 베들레헴에서(미 5:2), 처녀의 몸에서(사 7:14) 탄생하고 은 삼십 개에 팔린다는(슌 11:12) 것 등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8가지만이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남북한의 세배보다 더 넓은 텍사스 주 전체에 2feet 두께로 동전을 깔아놓고 눈가리개를 한 다음 그 중 표시해 놓은 한 개를 찾아내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가지가 넘는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는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특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구약에 예언 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며 예언과 예수를 하나하나 연결시키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면 제약 상 성경 구절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본인이 직접 찾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18~23=사 7:14=B,C.742)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로부터 742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의 모습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같이 거하신다는 뜻인데,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꼭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었던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최고의 학식을 갖춘 유능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와 대화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유치원생의 차원으로 내려가야 하고, 또 개미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신분으로 올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탄생 740년 전에 앞으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곧 그 아기는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라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을 썼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를 찾으

니, 헤롯왕은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위협을 느껴 성경 학자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 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마 2:4~6=미 5:2=B.C. 710)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헤롯이 아기들을 대량 살상하였기 때문에 6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 지경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분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2:16-18=렘31:15=B.C. 606)

그 후 예수께서는 나사렛으로 이사하였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마 2:23, 4:13~16)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것 역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렸으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났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마 21:1~5, 슥 9:9=B.C.487)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마 26:24)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한 제자가 그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그 제자를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마 26:47~56)라고 하셨습니다.

### 34. 십자가의 예언

이제 책을 잠깐 덮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인 마태복음 27장 27~50절과 요한복음 19장 1~37절까지를 꼭 먼저 읽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마 27)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대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누가 언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요 19)

참으로 기막힌 장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사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는 자기 당할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고민하고 슬퍼 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6~46) 하는 처절한 절규의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 책을 잠시 덮고 이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 이 사건을 예언한 시편 22편 1~21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다윗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글들을 아마 **무엇인 줄도** 모르고 성령이 쓰라고 하는 대로 그냥 써나갔을 뿐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 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 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 하시나이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 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 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 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 하셨나이다.”(시 22편)

이 사건이 있기 740여 년 전인 B.C. 712년에 이사야는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역시 **무엇인 줄도** 모른 채 쓰라는 대로 썼을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 하였느니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 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 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고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0:6, 52:14, 15, 53:2~6)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이 구체적인 예언들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 이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초상화에는 예수님을 미남으로 신격화 하려 하고 있지만 **“고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하신 말씀대로 실지는 볼품없이 못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외형이 아닌 말씀만을 통해서 그를 발견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명 21:23)는 말씀대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 형벌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으니 기**

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바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403)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절규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내가 부르짖을 절규인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내 ‘대신’ 죄인이 되신 예수께서 내 ‘대신’ 부르짖으신 절규입니다.

예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막 8:31, 9:10)…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눅 18:31~34)

누가복음 24장 13~49절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다들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13~27, 44, 45)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행 13:29)

“성경대로 그리 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시며 구약성경에 자기에 관한 예 언들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온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기대는 아직까지도 오로지 배고픔이나 병고를 해결하는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왕 되실 것을 기대하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후에야 예수께서 오신 것이 육신을 위함이 아니고 영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무엇을 기대 하며 기독교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기대가 오로지 육신의 축복이라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는 책망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 35.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여러 형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설명 하려

고 붙여진 단어입니다.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 ‘아들’과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직되게 그런 인간 가족관계의 틀에 맞추려 하다 보면 어떤 교파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설명하는 대로 물이 온도에 따라 물 자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얼음으로 또 증기로 변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또 태양이 빛, 열, 방사선 같은 다른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또 나라고 하는 존재도 같은 한 사람이지만 상대에 따라 아버지로 아들로 또 어떤 때는 남편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사람 중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저마다 하나님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하얀 수염을 날리며 높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시겠지 하는 등 제 각기 상상을 할 따름입니다. 또 성령은 영화에 나오는 귀신 비슷하게 사람을 떨리게 하거나 화끈한 체험을 하게 하는 존재 정도로 상상합니다. 이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을 접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예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성령)”(요 1:1, 14, 6:63)

즉, ‘말씀’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찾으려면 또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말씀’의 그리스 원어는 ‘logos’인데 한국어나 영어에는 그 이상의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말씀’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중국성경에서 표현한 ‘道’와 같이 길, 이치, 이성, 우주의 법칙 과학 원리의 근

본이신 분의 인격체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영어의 ‘logic’(논리)이란 단어의 어원이 같은 ‘logos’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장소는 ‘성경책’뿐입니다. 전화가 아직 없었던 시절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달된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는 거기 쓰인 지시대로 미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표를 사서 한국에 영구 귀국하는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록 다 구겨진 종이쪽지에 불과하지만 그 ‘편지’는 곧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받으면서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 자기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전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성경에 답이 있으니 성경을 보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그렇지 아니 하나이다” 시시하게 성경 같은 것 말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기적을 보면 저들이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성경)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20~31) 하시면서 해답은 성경 안에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장식품 정도로 덮어둔 채 그를 찾기 위해 산으로 기도원으로 예배당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구절들을 나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사 9:6),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0:30, 14:9)

“하나님이 자기 피로사신 교회를”(행 20:28)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고후 5:19)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 2:6)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골 1:15)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딤후 2:13)

“저(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요일 5:20)

“저는(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롬 9:5)

## 36.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병이 확실히 치료되려면 먼저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병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축하할 기쁜 일, 기분 나쁜 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일 등 이유가 있어서이지 중독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AA meeting인데 거기 가입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할 때 ‘제 이름은 A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My name is A, I am alcoholic)라고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도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하는 질문에 양

심 속으로부터 ‘아니요,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는 인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써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해오다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번역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받았기 때문에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등 경계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많은 경우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정도로 의미가 막연해져 버렸습니다.

우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자 그대로 구출된다는 뜻으로써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내가 삶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구원, 거듭남, 영생, 구속, 죄 사함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질문을 ‘구원 받으셨습니까?’보다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로 바꾸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확실히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시험 합격자발표장에서 “합격 했습니까?” 하는 질문에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합격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 받으셨습니까?’하는 질문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실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백지 한 장씩을 나눠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감격적이었던 사건 세 가지를 기록하라는 요청에,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동안 죄 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데 경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testimony in his

heart)”(요일 5:10)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 증거를 자신 있게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당신 마음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당신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출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구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자식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이 훤히 타고 있는 집 속에 나의 자식들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출할 생각 없이 한가로이 연속극을 보고 있거나 골프를 치고 있을 부모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옥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들과 외공부 시키는 일이나 피아노 레슨에는 열심이면서 구원문제엔 관심이 없는 부모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라는 말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듯이 ‘교회’라는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있었다면 무대 위에 세워놓고 언제, 무슨 학과, 학번 등 무엇을 질문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듯이, 당신이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교회의 일원(기독교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상황 하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을 했었는지 등 무슨 질문을 받는다 해도 관중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짜’ 동창생임이 탄로 나듯 아무리 오랫동안 교인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하더라도 ‘학력 위조’를 한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는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중

한 죄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선생님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해줄 말이 없다면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남이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또 남이 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당신의 양심만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달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이들은 겉모습이나 맛에 있어서는 너무나 똑 같기 때문에 아무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화가 되었을 때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무정란은 썩어버리게 되는 차이 뿐입니다.

씨앗을 받아 새 생명이 잉태되어 거둬낸 사실이 있는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이나 이 세상사는 동안의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알곡이면 곡간에 들여지게 되고 썩정이면 불에 던져지는 운명으로 확실히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비행기여행을 해보셨습니까? 테러범 같은 ‘가짜’ 승객은 비행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귀찮을 정도로 검색이 심합니다. 먼저 여권을 제시해야 탑승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탑승구에 들어갈 때 또 조사를 하고 x-선 검사를 통과할 때는 허리띠와 신발까지도 벗고 또 조사를 합니다. 비행기에 들어갈 때에 또다시 여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복잡하고 정밀한 심사대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물론 절대로 입국할 수가 없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 몇 시간 여행에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일개 장관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청문회도 그토록 치밀하고 집요한데, 영원한 천국입국 심사대에서 생명책 명단에 이름이 없는 ‘가짜’가 적당하게 넘어갈 줄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지 여부의 예리하고 구체적인 심문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기지는 않으십니다.

불합격이 될 경우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게 되는 엄청나게 심각한 심사인데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입국시키실 걸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입국심사의 기준은 정식 여권소지 여부뿐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백인 일지라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지라도, 미국을 위해 평생을 봉사했던 경력이 있을지라도, 또 목숨을 바칠 정도로 미국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권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봉사했을지라도, 신학교를 나와 목사, 신부, 신학박사가 되었을지라도, 장로, 집사 직분 받았을지라도, 성경을 다 암송할지라도, 매일 새벽 눈물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선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대로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testimony in his heart) 있고”(요일 5:10)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롬 8:16)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

영어로는 “You are disqualified” “You failed the test” 즉 ‘너는 자격 상실 되었다’ ‘불합격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This is my story)’(204), ‘확실히 믿기’(189)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당신의 현 상태를 당신의 양심이 지적하거든, 우리 한국인 특유의 체면이나 위선의 탈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을 노출시켜야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며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라”고 하실 때 사 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니, 먼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요 4:4~19)는 조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하는 양심으로부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을 진단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얘기들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잊어도 좋습니다. 또 성경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기에 제가 얘기한 것들 중 틀린 것도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각본대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 성경이라는 책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 쓰인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지금까

지의 얘기들은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신 바짝 가다듬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의 말씀이 마음에 단순히 ‘예’ 하고 확실히 받아들여지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머리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여 내게 이루어지도록 안내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의학교과서에 기록된 ‘위암’이라는 항목을 읽을 때 의과 대학생이 시험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로 읽는 것과,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내가 내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읽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듯이, 이제부터는 이 글을 읽을 때 환자의 입장이 되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성경공부’가 아닌 지옥이나 천국이나 나의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 다른 혼돈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를 미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입학한 후의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 역시도 첫째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지 않는 불에 태우 시리라”(마 3:12) 하는 입학했느냐 못했느냐의 심판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하는 입학한 이후 학생으로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의 심판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입학하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혼돈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입학한 사실도 없으면서 즉 아직 학생이 아니면서도 학생에 해당되는 두 번째 심판에 대비하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지적했었지요.

하나님의 관점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는 다 죄인인데 미국에 숨어 살며 사면을 기다리는 1,100만 명 ‘불법체류자’와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은 너무나 비슷한 사항이기에 이것을 예로하여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 말씀드린 ‘심판’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범법하여 체포될 경우는 ‘국외추방’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시민권자가 된 이후 범법으로 체포될 경우는 미국 내의 ‘감옥 형’ 받게 되는 차이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부터 해결받는 길은 나 자신에게는 전연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사면만을 기다릴 뿐인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때는 ‘일괄사면’이지 개개인을 심사하여 선별하는 사면이 아닙니다. 즉, 개인들의 인종 성별 언어 착한 정도 교육 정도 인물 애국심 등의 구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전체를 한 묶음으로 사면해 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불법체류자’임을 자수하여 신고한 사람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개개인의 상태를 심사하는 선별 구원이 아닌 Hitler, 김일성 같은 사람도 물론 포함된 지구상 인류 전체의 ‘일괄구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의 선택으로 ‘죄인(불법 체류자)’임을 고백(자수)하여 회개(신고)한 사람들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불법체류자)을 부르러 왔노라”(마9:13)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착한 사람, 자선사업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모태교인, 신학박사, 목사, 신부, 장로 타이틀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안식교 하는 소속교파 따위가 설 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 앞의 자리는

오직 하나 ‘죄인석’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위선의 탈, 거룩한 종교의 탈, 척 하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별거벗은 솔직한 자기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인간들끼리는 또 부부간에는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도용으로 써 두었던 것들을 옮깁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지만 확진을 위해 혈액검사도하고, X-ray도 찍고, 내시경 검사도 하듯이, 중복 검사를 하려는 것이니, 합리화하거나 빠져나가려 말고 검사결과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솔직한 답안작성 하시고 자신의 현 상태를 진단한 다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 간구하시기 권합니다.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찾으시는 하나님께 무화과 잎 엮어 숨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래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 당신이 있는 지금의 위치를 확실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의 솔직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 1)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일 5:10)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체류 사면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 나는 죄 사함 경험했던 확실한 증거가:

있다.( )

확실한 답을 못하겠다.( )

-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예( ) 아니요( )

## 2) 나에게 구원의 감사가 있었는가?

아래의 경우들을 내가 경험했었다면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1.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항상 불안하게 지내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때
2. 입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3. 거액 복권 당첨 통보를 받았을 때
4. 암 진단을 받고 낙담하던 중 오진이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5.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되었을 때

-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감사가 나에게 있었는가? 예 ( ) 아니요 ( )
- 그렇다면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일까? 예 ( ) 아니요 ( )
- 그렇다면 나는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일까? 예 ( ) 아니요 ( )

## 3) '사실'(Fact)입니까 '지식'(Head Knowledge)입니까?

경험했었던 '사실'이었다면 \*누가(who), \*무엇을(what), \*왜(why), \*언제(when), \*어디서(where), \*어떻게(how)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당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1.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_\_\_\_\_
2.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_\_\_\_\_
3. 결혼하셨습니까? \_\_\_\_\_
4. 불법체류 사면 받아 보셨습니까? \_\_\_\_\_
5. 하와이에 가보셨습니까? \_\_\_\_\_

-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믿는 것은? 지식( ) 사실( )
-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 없다( )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엄청난 산통을 경험한다는 것 누구나 확실히 믿고 처녀들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신나게 출산 ‘경험’ 얘기하는 아줌마들의 대화에는 같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경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 4) 이 찬송가들이 나의 노래인가?

‘기쁜 날 기쁜 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날...’ 하는 노래는 서울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부르도록 만들어져 있는 축하이듯 아래 찬송가들은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확실히 믿기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떡보다도 더 검은... 깨끗하게 씻겼네.’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나 속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 나는 이 찬송들을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가? 예 ( ) 아니요 ( )
- 그렇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까? 예 ( ) 아니요 ( )
-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 예 ( ) 아니요 ( )

우리 한국인들은 준법정신이 약하여 ‘출입금지’와 같은 쓰여 있는 규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You

must be born again.’의 ‘must’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민하는데 한국 교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성경의 한 구절일 뿐인 것 같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 2:5)라고 엄중히 규정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시간 심각히 생각하며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동안 죄인임을 인정한 적이 있었던가를.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신 대로 죄 문제 해결받기를 바라며 문을 열어드린 적이 있었던가를.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신 적이 언제 있었던가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있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새워 두니 참 나의 수치라’

기독교인이라 하며 또 교회 직분을 가졌다 하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었지만, 흠 없는 종교인생활은 해 왔었지만 주님께 내 죄는 내놓은 적은 없었다는 가사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 하랴… 못 들은 체 하려나…’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체면 버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라는 이 권고를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

한 것이 아니요...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엡 6:12)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하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소속 부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의 영광의 싸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복음을 전하는 대다수 교회들에서는 매주 설교 끝날 때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신학교를 나왔어도, 장로직분 가지고 있어도, 양심적으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으니 예배 끝난 후 남으라고 하는 초청설교를 합니다.

반면 어느 곳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시겠느냐 자기 자녀가 그런 고통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순간을 내가 모르듯이 구원받은 여부는 자신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르더라도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 그런 말들에 현혹 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안심시키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극단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극단주의자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직자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일을 이행하는 직책인데 만약 오히려 방해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렘 5:31, 6:13, 7:4, 14:14, 23:16)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 다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 된 인도자여…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하도다”(마 23)

위의 성경구절들은 일부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짜 의사가 있으니 조심하라 가짜 삼성 제품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광고를 보았을 때, 고마워해 하는 것이 정상 반응인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를 심리학 이론에 적용하면 그가 바로 가짜 의사 가짜 물품 제조업자라는 증거입니다. 천국 문을 닫으려는 악한 의도는 아니겠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양심에 걸리는 것 있거든 합리화하며 넘기려 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듭 권합니다. 진정으로 확실한 길 찾기를 원한다면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는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져야지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요. 부모도 친구도 신학박사도 목사도 신부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당신 아들은 전교 1등이니까 서울대학 합격은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는 듣기 좋은 말해 주는 사람과, 비록 1등이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긴장 늦추지 말고 열심히 대비하라는 기본 나쁜 말해 주는 이웃들 중 누구의 말을 들을지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종양이 있는데 양성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 모르니 정밀검사 해보라고 권하는 의사와, 암이 아닐 것 같으니 걱정 말라 안심시키는 의사 중 어느 의사의 말을 들을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안심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된다는 권고를 ‘비난’으로 받아들여 거부감 갖는 어리석은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진단에 기준이 되는 이런 말씀 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이것들을 거부하거나 기본 나빠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액수라도 사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 따지고 또 따져 결정하는데, 영원한 나의 운명을 쉽게 다른 누구에게 맡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지길 권합니다. 따지는 기준은 어느 사람의 학설이 아닌 성경 ‘말씀’뿐이어야 하고요. 특히 우리 한국인의 약점인 체면과 자존심 지키려다가 만약 잘못 될 경우 어찌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risk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거듭 권합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으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듯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액의 유산을 받고 싶거든 나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유언 얘기 기억 하시지요.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된다고 했지요? 물론 아버지가 계기는 곳이지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행 17:24)

하나님 계시는 곳은 교회당 성당 기도원 같은 곳 아니라는 것, 다들 이미

아시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요 1:2)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신 ‘말씀’ 즉 ‘성경’으로(‘Back to the Bible’)입니다. 자, 이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당신의 이름) 허물을 뺏직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당신의 이름)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아버지의 이 말씀이 돌아오면 당신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을 용서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용서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새로운 것 아니요 대부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가슴에 연결시킬 것이냐에 focus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식 차원보다 감성 차원으로 기어를 바꾼다는 느낌 가지고, 이제부터 비록 짧은 1 시간만이라도 진짜 솔직한 양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 가지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 해결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분위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환경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성경공부’라는 차원을 넘어 부흥회, 기도원, tres dias, 조용한 명상 등,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분위기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마 7:7) 하신 말씀 굳게 의지하며 계속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 37. 해결책은 ‘탄생’으로, 탄생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로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돕기 위해, 둘이 앉아 대화하듯이 이미 했던 이야기나 같은 구절들 그리고 비슷한 설명들을 반복 얘기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논리적인 이치를 생각하면서 토박토박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예배당을 찾는 목적,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원한 지옥행으로부터 구출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 5:39)라고 하신 대로, 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스실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착한 사람이었던 악한 사람이었던, 개인의 선악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기차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한 전체가 다 가스실로 들어가 확실히 죽었듯이, 지옥행 기차 안에 있는 한 아무리 착하고 종교생활에 충실하다 해도 그 종착역은 확실히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해결

책은 빨리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길뿐이지 그 기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You MUST be born again이라는 영어의 표현대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가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씨를 받아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수양과 훈련을 쌓아 나가므로 점진적으로 ‘길러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의식들도 점점 배우면서 또 인정도 받게 되어 집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물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씨’를 받아 수정이 되어야만 하듯이 우리의 영이 태어나기 위해서도 씨를 받아 잉태가 되어야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마 13:18~23)(눅 8:11)이라 하신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요 1:1)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생물체가 씨를 받기 위해서는 ‘성’이라는 관계를 맺어야만 되듯이 우리의 영도 씨(말씀)를 받기 위해서는 ‘들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들음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살전 2:13)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내용을 ‘믿음’으로 된다는 아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8)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3)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 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 다.”(시 107:19, 20)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 8:8)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갈 3:2)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이와 같이 거듭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귀로 잘 ‘듣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 하신 말씀과 같이 듣는 것 자체를 거절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송장인 주재인데 나의 ‘행위’로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헤드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주재님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살려 주십시오 하는 간절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만 기울이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 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마 8:13, 9:2, 22, 29)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들은바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 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 38. ‘머리’로 믿는 것만이 아닌 ‘마음’에 경험된 믿음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을 통해 머리로 믿는 ‘지식적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을 통해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태평양 가운데 하와이라는 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해도 배워서 아는 믿음과 직접 가본 경험을 통해 믿는 믿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엄청난 산통을 겪는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 없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인이 믿는 믿음과 경험 없는 처녀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식이 아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확실히 믿기

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는 확실한 경험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목이 갈 할 때에 냉수를 마시면 시원해진다는 것을 아무리 의심 없이 확실히 믿는다 해도 실지로 마신 경험이 없었다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교리를 의심 없이 아무리 확실히 믿는다 해도 실지 ‘죄를 사함 받은 경험’이 없었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12 inch의 여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머리(head)로만 믿는 한, 50년 기독교인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12 inch 여행을 하여 마음(heart)에 믿어진 경험이 있었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된다.’는 Billy Graham 목사님의 표현을 잘 음미하십시오. 물론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머리로 믿었던 그 믿음이 어느 날 마음속에 사실로 이루어져 내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좀 다른 설명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표현대로 행동이 수반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은 일 있으시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깊은 계곡 양변에 줄타기용 줄을 설치하고는 유명한 곡예사가 자신만만하게 건너는 것을 보고는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실수 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이 관중들을 향해 이제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려 하는데 그것도 실수 없이 할 수 있으리라 믿느냐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당신도 믿느냐고 할 때 확실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등에 업히라고 할 때 질겁하며 도망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모두 그리고 영원히 지고 가신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믿어진 경험을 가진 믿음입니까?

앞에 언급했듯이 어떤 일에 경험한 사실이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하는 육하원칙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마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일이 있었다면, 이 육하원칙에 입각한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본 일이, 하와이에 가본 일이, 있다고 말로는 주장하면서도 육하원칙에 입각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듯이,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임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210),

‘확실히 믿기는… 속죄함 얻었네’(189) 하는 확실한 사건이 있었어야 진짜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아주 미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임을 생각 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문으로써,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은 아직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논리를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문자 그대로 ‘구출’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출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구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구출이라는 말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 경험된 ‘사실’은 없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 39. 내가 ‘**믿는(영접한)**’이 아닌 ‘**믿어진(영접 되어진)**’ 믿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혼돈스럽고 명확하지 않는 것들 중 하나가 이 ‘**믿는다**’ ‘**영접한다**’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의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진실 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깝게도 실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분석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믿는 사람**’인 고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이나 당대에 독실한 종교가였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 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

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능동태(active voice)가 아니고 저쪽에서 해주는 것을 당하는 수동태(passive voice),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계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 ‘찾음을 당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한다’ ‘미워한다’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지로, 내가 작정하여, 내가 하는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어 짐을 당하는 수동태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나의 능동적 작정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부터 미워하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미운 원수를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외형적 행동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을 내 의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이 진짜이지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나의 노력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보는 순간 그것이 연필임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듯이, 0%의 노력도 필요 없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만이 참 믿음이요 1%라도 믿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아직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당신이 내 어머니임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습니다’를 굳이 강조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어머니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강조하면 할수록 믿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어 자체는 똑같이 때문에 언어로 설명하여 이해시키기가 어려워 이렇게 안타깝게 길게 늘어트리고 있는데 산통의 경우처럼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영접한 영접(능동)의 결국은 지옥이요, ‘나에게 믿어진 믿음’ ‘내가 영접되어진 영접(수동)의 결국은 천국인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다가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I am accepted’(영입 받았다)라고 합니다. 심사를 한 후 그 학생을 영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당국이지 학생 자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천국입학도 내가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학교 선택하여 원서 제출한 정도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영접되어지는 것’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가 아니라는 말은 내가 원하고 원서제출을 했다고 해서 다 입학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된 믿음’(마 11:25~28) ‘받은 믿음’(약 2:1, 벡후 1:2) ‘언은 믿음’(엡 2:8, 유:3) ‘온 믿음’(갈 3:23, 25) ‘깨달은 믿음’(마 13:23, 골 1:6) 등 이들 언어 자체가 의미하듯 수동적으로 얻어진 것이 참 믿음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여 믿는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서도 죄의 두려움이 그저 있는 것은, ‘믿어진(수동)’이 아닌 ‘내가 믿으려는(능동)’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없이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이 '짝사랑'인데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영접일 뿐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접을 경험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것은 짝사랑 영접에 불과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영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성경 말씀들을 참고로 하여 당신의 믿음이 위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이 믿기로 작정하였던 믿음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3)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10:14)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롬 1:6,7)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롬 9:16)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사”(요일 4:10)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지금은 안 되고 먼저 부친의 장사를 마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나를 좃으라”(마 8:19~22)고 하신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

을 세우셨으니…”(막 3:13)

열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원 예수님 자신이 직접 택하셨지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택한 예는 하나도 없었음을 생각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고전 1:21) 하신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의 작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그의 손을 찾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은 목자이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잃은 양의 처지임을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만 그분이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이 손을 내밀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저명인사라고 할지라도 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내 집에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을 진데, 하물며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죄수 신분인 내가 감히 내 선택으로 내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 하나님을 오라 가라 영접하겠다는 말겠다는 결정할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주제넘은 것인가를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 8:5~10)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시 32:5, 34:18)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죽은지라”(마 27:3~5)

다시 묻겠는데 당신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로 고통하며 통회했던 것만큼, 당신의 죄 문제로 인한 괴로움과 통 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설혹 그런 뉘우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뉘우침에만 머물렀을 뿐 용서했으니 안심하라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해도 역시 효과 없는 짝사랑 뉘우침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 하는 심판주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았어야지 아직도 짝사랑 회개만을 하고 있다면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자신이 죄인임이 자각되지 않고 통회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읽어나가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20. 죄의 시작’부터 다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더 이상 읽어 나가는 것은 교리적 지식만을 늘릴 뿐 해결과는 관계없는 시간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는 또 영접하려는 노력은 일단 중지하고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발견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를 붙잡히 여기서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15:22~28)

감히 그분을 내가 영접해 주리라 했던 것은 내 분수 모르는 태도였음을 발견하고 ‘주여 내게 들어오심을 나는 감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땅에 엎드려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될 때에 만이 영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구주예수라’(545)

이제부터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신 대로 구원은 진정으로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심각한 마음으로 구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진정으로 답 얻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후 읽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앞에 했던 똑 같은 얘기 다시 반복합니다. 병이 없으면 의사의 필요성이 없듯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인정되지만 양심으로는 아직 아니거든, 자신 속에 숨겨있는 위선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

검사결과가 암으로 나왔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에 의사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만,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며 열어주지 않는다면 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당신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즉,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 할 때까지는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동안 죄인임을 인정한 적이 있었던가를.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신 대로 죄 문제 해결방기를 바라며 문을 열어 드린 적이 있었던가를.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신 적이 언제 있었던가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새워 두니 참 나의 수치라’

기독교인이라며 주를 믿노라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오랫동안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 죄 문제 해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 받기를 원하거든 문을 여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경륜, 교회 직분 가지고 있다는 교만과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별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 하라… 못 들은 체 하려나…’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아래 말씀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휟히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6).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 145:18)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 32:5, 34:18)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18:13) 하는 것이 당신의 절규여야 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죄 해결의 길은 죄를 안 지어서 또는 선행을 많이 추가해서가 아닌 용서받은 길뿐이라는 것 기억 하시지요. 그런데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으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동안 나는 솔직하고 간절한 회개의 마음이 언제 있었던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저 종교생활만을 열심히 해왔던 것이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이라는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매일 새벽기도 하는 식의 통상적인 것 말고, 한번 만이라도 진정으로 심각하고 간절한 기도와 결단으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뉘우치기만 했을 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록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또 새벽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한들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뉘우치고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눅 15:20)는 행동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으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오. 지은 죄가 아무

리 무겁고 크기로...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 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엮입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는 찬송가같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 40.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잡한 신학적 교리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의 불법체류자 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미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살아오는 동안 죄도 많이 지었기에 ‘불법체류자’(죄인) list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이든 무슨 이유로든 검문을 받아 나의 신분이 발각되지만 하면 즉시 감옥소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열심히 하면, 영어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헌법공부 열심히 하여 열심히 지키면, 미국을 열심히 사랑하면, 무죄가 되어 ‘시민권자’(의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즉 내 노력의 결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욥 35:7)

아는 대로 나의 노력은 아무 보탬이 될 수 없어서 오로지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사면령’을 기다리는 길뿐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나의 노력은 아무 효력도 소용도 없고 오직 심판관인 하나님 측의 자비를 빌어 ‘용서 받는’ 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측에서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미 용서를 해놓으셨고 우리는 누구든 그 공짜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즉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실히 믿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또는 믿으려 할 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끈하거나 떨리는 체험, 환상, 황홀경,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은, 소위 신비로운 체험이나 감정적 경험을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메시아의 탄생이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성경은 사실’임을 생각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개 감정체험 현상들은 정신 몽롱한 상태 때 체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린 맑은 상태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The Bible tells me so.)’가 답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없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지로 어떻게 그런 용서작업을 해 놓으셨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두꺼운 책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 긴 글의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라는 분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지겨울 정도로 또 반복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쓰여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련만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자꾸 추가하고 싶어하는 심리일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전에 했던 말씀과

예화들을 계속 반복 인용할 것이니, 단순한 글로 읽어 넘겨버리지 말고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으며 읽으시길 권합니다.

## 41. 죄의 해결은 오로지 ‘피’로만

잠시 화제를 의학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연 인간 생명의 본체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느 장기에 위치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심장이나 또는 뇌에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도, 역시 살아 있으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는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니, 심장이 생명의 본체가 아닌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사고로 뇌사상태가 되어 식물 인간이 되어도 의식이 없어질 뿐, 생명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귀중한 필수 기관들이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들은 다 ‘그것’을 위한 보조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위장 계통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인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기관이요, 폐나 신장은 ‘그것’을 정화시키는 기관이요, 심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을 몸 구석구석에 보내기 위한 펌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런 모든 활동을 총지휘하는 통제부 역할을 할 뿐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 자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피’입니다.

최신 의학계도 최근에 와서야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 17:11, 14)는 엄청난 선언을 3,500년 전 그 아득한 옛날에 이미 하였던 것입니다. 열 발의 총알을 맞았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바늘 하나로 찔렸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크기가 아닌 출혈 양에 생명

이 달려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있다는 설교 많이 들으셨지요? 즉 **“하나님은 사랑”(요일 4:8)**이심과 동시에 **자기** 뜻을 어겼을 경우는 **‘공의’**대로 **“질투하는 하나님”(출 20:5)**도 됩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앞 뒷면 같이 사실은 하나여서 사랑의 관계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게 마련이요, 질투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길 남편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는 공의로운 질투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라는 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심판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 값이 치러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것이 상쇄 되겠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죽음’ 뿐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피가 생명과 일체”(레 17:14)**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느 분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표현은 생명을 바쳤다는 뜻이지요. ‘공의’의 입장은 자기가 정해 놓은 이 법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 원칙을 어기면서 적당히 봐준다면 그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는 말씀은 이와 같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즉,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였을 때”(롬 3:10, 23)** 하신 말씀대로 인류 전체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입장은 아무리 죄인이긴 하지만 당장 다 죽인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공의’와 ‘사랑’이 상충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점을 고안해 내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죄를 공의대로 심판 하여 죽이기는 하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 스스로가 ‘대신’ 희생하는 방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화를 들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법령을 만들고는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긴 사람은 두 눈을 뽑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공의’대로 아들의 눈을 뽑자니 ‘사랑’에 위배되고 ‘사랑’대로 그냥 봐주자니 ‘공의’에 위배될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소경으로써는 장차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눈 하나는 왕 자신의 것을 뽑겠다고 함으로써 두 눈을 빼다 하는 ‘공의’와 ‘사랑’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예화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 곧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라 하는 분을 죄인인 나 대신 ‘공의’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함으로써 이제 나의 죄는 몽땅 처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받아 죽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공의와 사랑 둘 다 만족된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403)

## 42. 그림자인 짐승의 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위 17:11)

피를 흘려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긴 세월 동안 상징적인 그림자로 수없이 반복하여 보여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골 2:17)(히 8:5, 10:1)

즉,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는 짐승들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해졌는데 이것은 어느 날 ‘어린양 예수’가 피 흘려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창 4:3, 4)

어떤 분들은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받은 후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히 11:4)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피’의 예물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차있을 중요한 진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그림자로 행하게 하셨던 구약 시대 때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제도는 이러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레 4:13~20)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긴다는 의미이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짐승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급 종살이로부터 구출하려 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유대인에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피가 발라진 집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여 매년 대대로 지키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급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급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급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 로라 내가 애급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애급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1~14)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멸하시고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출 12:23)라고 하신 대로 구원의 조건은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였지 집안의 사람들이 선한지 악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가정은 악한 가정이었는데 시키는 대로 문 인방에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 집안에 모여 내일 은행 강도질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B라는 가정은 착한 사람들이어서 내일 고아원을 돕기 위한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문 인방에 피를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의 성경구절들에 의한다면 이 두 집 장자들의 운명이 실지로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불공평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진리는 논리이지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님 (Truth is not feeling, but logic)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Only the blood of Jesus)’라는 말은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only) 예수의 ‘피’뿐이라는 말입니다.

### 43. 실체인 예수의 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

이 말씀은 짐승의 피는 예수님 피의 그림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양을 잡아 그 피로 기념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양을 잡아 기념하는 날인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린양’이라는 표현을 개나 고양이처럼 그저 단순히 짐승들 중 다른 한 짐승의 이름으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기록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경우, 그 이름은 죄를 위한 제사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할 대상으로써의 표현으로 장차 피 흘려 죽임을 당하기 위해 탄생하실 ‘예수’(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양은...)를 지칭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라고 예수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는 죽기 바로 전 제자들을 모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1, 2, 27, 28)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될 것이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testament)은 유언한자가 죽어야 되나니…”(히 9:16)라는 말씀대로 예수가 죽어야만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성경을 구약 신약하고 부르는데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약(new testament)의 ‘testament’라는 단어는 ‘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즉 ‘새 유언장’의 내용은 ‘예수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나)의 죄가 사해진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다, 아직 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죄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내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중 당신의 답을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양은 “해질 때에” 즉 밤에 잡아야 되고 “뼈도 꺾지 말아야” 되었습니다.(출 12:6, 46) 그런데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예수는 대낮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을 갑자기 밤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육시(낮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 시(낮 3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 하시니…”(마 27:45, 46) 또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들의 다리를 꺾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기 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9:31-36)

이렇게 예수는 완전하고 흠 없는 ‘유월절 양’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가리라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니라”(벧전 1:18)

구약시대에 행해왔던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는 피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상징적인 “모형과 그림자”(히 8:5, 10:1)일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예수)을 예비하셨도다”(히 10:5) 즉, 영구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는 방법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오염된 ‘죽은 피’를 가진 나를 살리는 길은 그 피는 전부 흘려버리고 새로운 ‘산 피’를 수혈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씨’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데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입니다. 같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밭인 어느 여자에게 김 씨 성을 가진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김 씨 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고 흑인의 씨가 들어가면 흑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사람 전체는 ‘죽은 피’를 가진 아담의 자손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산 피’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피를 이어 받지 않은 “여인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4, 15)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오로지 예수만을 남자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신비로운 현상은 태아가 자궁 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 엄마의 피로부터 산소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지만, 피 자체는 태아 자신이 별도로 만드는 것이지 엄마의 피는 한 방울도 태아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인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 9:12~14)

이 질문은 시시한 염소새끼의 피로도 죄가 해결되는데,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도 너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

까? 아직도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새끼 양 한 마리의 피보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189)가 양심으로부터의 당신의 간증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 44.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많은 기독교인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가장 잘못된 사상들 중 하나는 회개에 의해 과거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앞으로의 죄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교파에서는 십자가에서는 원죄만 해결되었고 평소 짓는 죄는 그때그때 해결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나무의 본질 자체를 단번에 영원히 바꾸시는 것이지 그때그때 열매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미국의 불법체류자 사면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죄인)’ 신분인 나를 사면해서 합법 ‘시민권자’(의인)로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 그동안 숨어 살면서 저지른 하나하나의 죄들만을 사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이라 함은 나의 이런 죄, 저런 죄,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 등등을 개별적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 그리고 ‘죄인’ 자체인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나의 이름을 지옥에 보내는 ‘죄인명부’에서 아예 빼버리시고 천국에 보낼 ‘생명책’ 명부에 옮긴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나…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사함 받고…’이지 ‘지난 죄’는 사함 받고가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이지 ‘과거 죄만의 속죄’가 아닙니다.

가시나무 예처럼 가시가 단 하나만 있어도 역시 가시나무이듯이, 죄가 단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고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옥은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라는 사상이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아니고 가시가 많아야만 가시나무라고 부르게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여 과거의 죄를 다 깨끗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난폭 운전자에게 받혀 화를 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과거의 죄만 용서되었고 앞으로의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불과 10분 전에 과거의 죄는 몽땅 용서 받았다 하더라도, 화낸 죄를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해야만 죄가 해결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간호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위급하여 짜증내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그냥 죽었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혼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지금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구원받았다’함은 죄들 자체도 해결받은 것이지만, 그보다는 ‘죄인(불법 체류자)’이라는 신분의 사람이 ‘의인(시민권자)’으로 신분변화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뀐 것은 영의 신분이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 시절 가졌던 돈에 대한 욕심, 미워하는 생각, 성적인 욕망, 난폭한 성격 등 육신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받은 감사로 미국 법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자제력이 좀 더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같은 죄를 지어도 아들(시민권자)이나 종(불법체류자)이냐의 신분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이치를 생각하며 혼돈 없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히 9:12)는 ‘과거 죄의 속죄를 이루사’로,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4)는 ‘과거만을 온전케 하셨느니라’로 성경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당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해결되었을까요? 상징적이었던 몇 푼 안 되는 짐승의 피로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몇 년간 지속될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10년 후 미래에 지을 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죄는 그때 다시 기도를 해서 해결받든지 아니면 예수가 또 죽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속죄했다’는데 그 ‘영원’은 몇 년입니까? 만약 내가 ‘영원’ 이후까지도 살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다시 해결받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영원’까지 살 수는 없겠고,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미래 100년 동안 내 죄도 다 사해져 있을까 아니면 그때 조금은 남아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Tylenol은 6시간마다, 일반적으로 혈압 약은 24시간마다 먹어야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맞아야 되는데 홍역 예방주사는 평생 한번만 맞으면 ‘영구면역’이 됩니다. 그것은 그 약들의 효력기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들은 상징적이요 그림자여서 한시적인 효과뿐이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번 즉 “단번(once for all)”으로 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죽여버리는 강력한 예방주사를 2,000년 전에 놔주셨는데 그 주사약의 이름은 ‘예수의 피’이고 그 효력기간은 ‘영구적’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단 한번 흘린 피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 할 것 없이 ‘전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몽땅 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염소의 피로도 죄가 해결되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데 ‘그렇기는 하지만...’을 왜 추가하려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 기간을 24시간 지속되는 혈압약보다도 못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이요, 또 유효 기간 ‘6시간’이라고 쓰여 있는 Tylenol 약병은 믿으면서 ‘영원’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는 성경은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혼돈을 피하기 위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이치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1을 훔치던 \$100,000 훔치던 훔친 것은 도적질이요, 도적질은 ‘죄’요, 도

적절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은 흠친 액수, 즉 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죄의 유무만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600만을 죽인 대량 살상자나 간호하는 분에게 화 한번 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양로원 예배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방금 받고 기뻐하며 이제 막 방으로 돌아오다가 간호하는 분에게 화를 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구원을 상실한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또 만약 작은 죄는 봐 주시고 큰 죄만 벌하신다면, 그 봐주는 기준이 흠친 액수 \$1, \$100, \$100 만 불... 중 어디까지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성경 기록에도 없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불법체류자 사면령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영원히’ 그것이 끝이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입니다. 그 이후의 죄는 불법체류자나 시민권자냐의 그 신분에 따라 별도로 처리된다는 이치를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책을 덮고 30초만 눈을 감고 머릿속의 잡다한 생각들을 비운 다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 까지를 포함한 전 인류의 죄를,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예수라는 한 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한꺼번에 몽땅 처리한 죄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나의 죄도) ‘소각장’에서 태워져 ‘사람(물론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이 사실을 믿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그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고요.

만약 “단번에”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가 죽어야 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러 죄를 없게 하시려고”(히 9:26) 하신 표현대로 예수는 수만 번도 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되고 앞으로 지을 죄는 다시 용서받아야 된다면, 또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래 구절들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입니까?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한’ 또 ‘영원’ 대신 ‘일시적’으로 고쳐야 되겠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일시적 생)을 얻으리라”(요 3:16),

“오직 자기피로 영원한(일시적) 속죄를 이루사…”(히 9:12),

“영생(일시적 생)을 주노니 영원히(일시적으로) 멸망치 아니할…”(요 10:28),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일시적)생명…”(요 일 2:25)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얻을 것)노라”(히 10:10)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일시적으로) 온전케 하셨느니라(하실 것이라)”(히 10:1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일시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모든 죄(지난 죄만) 사함 받고’(495)

‘나의 (과거의)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192)

‘죄에서 사함 받아(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194)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개 30년 용자를 받아 매달 일정액을 지불합니다. 지긋지긋한 30년이 되어 마지막 달에 돈을 지불하면 은행으로부터 ‘완납’(paid in full)이라는 반가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한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 영원히 ‘내 것’입니다. 이제 은행은 물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집을 다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ransom)으로 주셨으니”(딤후 2:6)

‘구속’(redemption)이라는 단어는 돈(ransom)을 지불하고 사버렸다는 의미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 하신 것은 마귀로부터 나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이 ‘다 이루었다’(paid in full)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무 조건으로도 나를 다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The price has been paid.’

‘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My sin has been erased. I will never be the same.’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롬 8:1, 2, 33)

이제 다시 질문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위의 말씀들을 근거로(당신의 느낌이 아닌) 자신에게 답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양심에서 자신 있게 우리나라는 ‘예’ 하는 답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렇지만’ 하고 토를 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 하면…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하신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에게 하시는 선언이니 다시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7, 18)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And remember no more) (187)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불러 ‘이제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매일 새벽 울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실까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당신의 중학생 아들은 당신의 국어 실력을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있는 죄에 관한 얘가지,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요

일 1:9, 롬 7:24) 하는 탄식은 구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 묻어오는 원치 않는 죄 때문에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흘리는 눈물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요 13:10) 하신 말씀대로 이미 목욕(죄 사함 받은)한 사람으로서 발을 씻으며 흘리는 눈물인지, 아직 목욕한 사실이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눈물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매일 새벽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히 사해 놓았으니 안심하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곳에서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분은 좋은 믿음 가진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도록 인도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하는 가사의 뜻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한들, 고아원 100개를 짓는 선행을 한들, 교회 100개를 개척한들, 성경을 다 암송한들, 매일 새벽 기도하며 수영장을 가득 채울 만큼 회개의 눈물을 흘린들, 그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피’이외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뜻의 찬송가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선물을 단순

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십시오. 여기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를 덧붙이거나 더러운 ‘**나의 의(사 64:6)**’ 따위를 추가시키려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 45.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미 설명 드린 대로 이 세상 법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지은 자신만이 책임을 지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범죄 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20).

더더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써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히 1:3) 재판관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내게는 갚을 능력도 가능성도 전연 없었던 거액의 은행 빚을 어느 분이 대신 담당해 주었다는 서류를 보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놓는 ‘대신 담당’의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곧 쓰러질 지경인데 어느 분이 내 짐을 ‘대신’ 저주니까 편안하게 된 간단한 이치 말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저주시네’(363),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써 불의한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대신담당’ 하셨다는데 전부를 다 담당하셨을까 아니면 일부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의 힘도 좀 보태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몇 년 간을 대신 담당하신 것일까? 다시 한 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없이 십자가 지셨네.’(You take my place, You take my Cross)(192)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위의 말씀에 대해 저가 다시 다음 질문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으니 감정적 요소들을 개입시키지 말고 논리적 이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예( )’ or ‘아니요( )’로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줄 믿습니까?

-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까요?
- 이 말씀들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 ‘세상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당신의 죄만은 제외하셨습니까?
- 당신의 죄도 지고 가셨다면 50%, 99%, 아니면 100% 중 얼마큼?
- 만약 100% 다 지고가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효력은 1년간, 10년간, 100년간, 과거의 것만, 영원히 중 어느 것입니까?
- 만약 당신 죄를 100% 그리고 영원히 지고 가셨다면 이제 당신은 ‘죄인’ or ‘의인’?
- 내 은행 빚을 누가 대신 갚아 주어 완납되었다는 ‘The price has been paid.’라는 서류를 은행에서 확인하고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날 다시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 서류를 믿는 것입니까?
-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 다시 죄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 그 사람 자기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은행에서 용자를 받았을 때 재산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는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갚지 못할 때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보증(co-sign)을 서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가 나의 채무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분명한 서류를 보여 주는데도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그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예수)가 찔림은 우리(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예수)가 상함은 우리(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나)의 죄악을 그(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 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간결하고 쉽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도 다른 추가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초등학생더러 위 구절들의 뜻을 다섯 줄로 간결하게 요약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종교의 경전처럼 신비스럽게 보거나 감정 개입시키지 말고 역사 과학 의학교과서 대하듯이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6. 구원은 옷으로 덮어 버리는 것

이제 결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기에 정신을 더욱 집중하여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요 자기 부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마귀와의 ‘전쟁’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  
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  
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요”(눅 8:12)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의견, 교역자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교파의  
전통, 어느 학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등이 서로 상충한다면, 이것들 중 누  
구의 말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하십시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4:19, 5:29)

선약과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창 3:7) 만들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  
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에는 그 가리운 옷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  
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라고 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21) 하신대로 그 분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변함없는 주 메시지입니  
다. 즉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나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  
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과 둘째는 죄 없고 아무 책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  
야 된다는 것과 셋째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

건들을 다 충족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계16:15)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193)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져야만 되는데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사 59: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만든 옷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중들이 길에 나가 악한자나 선한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마 22:11~14)

그 잔치 석에는 악한 자도 많았지만 임금이 따진 것은 선한지 악한지가 아니고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 보셨습니다. 유월절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집안에(옷안에 가리어져) 있는 사람 자체는 보실 필요성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옷(피)으로 덮여 있는지 여부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 맏아들에서 에게 짐승을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는 말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는, 그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가로채게 해주려고 형이 사냥간 사이 먼저 요리

를 하여 아버지께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기는 하지만 만져보면 금방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어머니는 모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말만 좃고가서 가져오라...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축복하였더라.”(창 27)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안심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어머니(예수)를 믿고 형의 옷으로 꾸며 입었더니 몸은 야곱(죄인)의 몸이지만 에서(의인)로 인정받고 형이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군인, 경찰, 환자, 법관, 죄수, 의인 등 신분이 결정되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사61:10)라는 말씀대로 나를 의인의 옷을 입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일등병일지라도 장군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장군’ 신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진짜 장군일지라도 일등병 복장을 하면 ‘사병’ 신분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거리에서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로 그냥 인정하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보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월절의 경우를 생각합시다. 천사가 한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려 하자 다른 천사가 그 집사람들은 착하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거나 반대로 다른 집은 그냥 넘어가려 하자 이 집 사람들은 악질들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냐 악하냐 하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한 조건은 ‘피’가 칠해 있느냐 없느냐 뿐이기 때문입니다.

착하든 악하든 옷 속에 가려져 있는 나의 상태는 0%의 상관도 없고 오로지 ‘피’가 있느냐 없느냐 만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100% 하나님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옷 속에 가려진 나는 아직도 더럽고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일도 모래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은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나를 덮고 있는 옷만을 보시고는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You have covered all my sins.) 히틀러 같은 큰 죄인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가려주시고 와서 그것을 믿기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들은 체 하려나 오라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 47. 구원은 공짜로

실지 상대방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은데 내 측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쉬게 하리라’이신데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무서운’ 분으로 그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언급했듯이 무거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마음대로 사용하되 십일 조 만을 요구하신 것, 수천 가지도 더 될 동산 모든 과일나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하나는 금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계속 상기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를 낳고 기른 것을 금전으로 계산한다면 ‘3천만 불’이다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도인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부모가 3천만 불을 전부 갚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식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두면서 ‘율법(3천만 불)-은혜(공짜)’이 들 단어의 뜻과 서로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 하나가 ‘은혜’인데 대부분 감동을 받았다 거나 좋았다는 뜻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말은 ‘공짜선물’이란 뜻입니다. 즉, 이쪽의 행위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반면 ‘율법’은 ‘은혜’와 반대되는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양자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개념인데, 은

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섞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갈 1:8)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내가 하려는 ‘행위’이고 ‘은혜’는 내가 하려는 행위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는 다른 분이 대신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완전한 ‘은혜’로서 100% 공짜여야지 내 쪽의 노력이나 공로가 1%라도 합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요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206).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184).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주께로 거진 갑니다’(339)여야 됩니다.

시골길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고 어느 택시기사가 선심 쓰느라고 그냥 공짜로 태워 주었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뒷좌석에서 퐁퐁거리며 힘을 쓰고 있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보니, 그 할머니는 짐은 그대로 머리에 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편히 가시라고 권해도 공짜로 태워주는 것만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한사코 거절했다는 어리석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는 고맙지만 내 노력도 보태면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할머니, 혹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누차 언급했듯이 ‘율법’의 역할은 그것들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함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진기는 병을 진단하는 도구이지 그것으로 병을 고치지는 못하듯이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도구일 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5:3, 4)라는 말씀대로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 정작 성경에서는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고 오히려 착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논리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오히려 자신은 착하지 못한 사람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양심적인 사람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것이 포기될 때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교리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Stop trying to be good!’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래 말씀들을 그냥 받아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는 말씀을 구태여 풀이하자면 ‘월급을 저축하는 노력으로 엄마에게 진 3천만 불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니 ‘3천만 불(율법)’은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정도쯤 되겠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고 하신 분명한 말씀을 ‘있느니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 못 얻고 이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203)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지도교사)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 3:24)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라고 하셨는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노라’로 성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행 13:39)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딤후 3:5~7)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 9)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사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3~28)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 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하시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 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4~8)

위의 구절들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다섯 줄 이내로 요약하라는 시험문제를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이 또 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답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도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 한다 해도 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공짜로 해결해 주시고는 그 선물을 받아 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다른 정답을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에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은 ‘무조건’ 즉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는 은혜라고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건만, 그 머리 좋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신앙생활 잘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회개를 많이 해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등의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역 봉사를 하고 싶어서 목욕탕 주인이 하루 무료봉사를 하겠으니 누구든지 몸에 때가 많이 있는 사람만(때가 없는 사람은 말고)오라고, 치과 의료 봉사 팀이 동네에 들어와서 다 무료로 치료해 주겠으니 충치 있는 사람만(충치 없는 사람은 말고)오라고, 무료 이발 봉사를 하겠으니 누구든지 머리 긴 사람만(머리 짧은 사람은 말고)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때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때를 좀 처리한 다음에 가겠노라고, 충치가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머리가 길기 때문에 미안해서 머리를 좀 정리 한 다음에 가겠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들의 미련함에 온 동네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광고를 돌리면서 죄 있는 사람(착한 사람은 말고)은 다 해결해 주겠으니 아무나 다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많기 때문에 미안해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더 착하게 된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한 다음에 가겠노라고 거절한다면 이 미련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잡다하게 들어 있는 복잡한 이론들을 다 접고 겸손하게 앉아 초등학교 아들이 해주는 단순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good news)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또 무엇을 더 추가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짜가 아니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인 ‘전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요 ‘기

쁜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여기 '공짜 선물이 있는데 내가 받아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당신도 받아 가십시오.'가 아닙니까?

‘불법체류자(죄인)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전원 사면했으니 아무 때나 와서 사면 증(천국 시민권)을 받아가기만 하면 시민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하나님) 서명!

선물이 아무리 공짜라 해도 받아가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지요. 나는 2,000년 전부터 쌓여 있는 그 선물이 공짜라는 것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지로 받아간 것은 1977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 48.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

아래 말씀들은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다 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믿든지 말든지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누차 언급 했듯이 가시나무는 가시가 100개가 있건 하나밖에 없건 수에는 상관없이 역시 가시나무이듯이 죄인은 600백 만 명의 사람을 죽였건 단 한 번의 화를 내었건 역시 죄인이요 그 둘 다 가는 곳은 똑같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요 선언입니다. 그런 불공평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눈처럼 완벽 히 하얀 백지여야만 천국에 갈수가 있다는 것인데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검은 점들이 뿅뿅이 있건 단 하나만 있건 마찬가지로 이미 ‘백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고 하셨습니다.

‘떡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서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213)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214).

희게 만드는 것은 예수의 피지 내가 아닙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 못에 던지우더라”(계 20:11~15)라고 되어 있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고 하셨습니다.

내 죄의 기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실히 믿는다면 심판대에 선다 하더라도 ‘내 죄의 기록을 내놔 보시오, 도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다시 끄집어내 문제를 삼으려 합니까, 예수는 왜 피를 흘렸는데요’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4~18)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성격이나 사람됨됨이 변하여 이제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요 ‘그대로’이지만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결정이요 선언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시 103:12)  
(미 7:18,19)

이렇게까지 말해놓고도 문제를 삼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지 않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선물을 주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되련만, 멀리 옮겨버린 죄들을 끙끙거리며 깊은 바다에 헤엄쳐 들어가 다시 끄집어 올리려고 애쓰고 있고, 다시 기억해달라고 새벽마다 간청하며, 컴퓨터에 뽁뽁하게 기록되어 있던 모든 죄들을 ‘delete’(도말)시켜 버리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거리고 있다면 무엇인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 14)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쓰인 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요 8:11)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 2)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죄는 있지만 재판관이 유죄로 판결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롬 8:33)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도 나는 아직 ‘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210)

잠시 책을 덮고 탕자의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인지, 이미 아들이 집을 떠났던 그날부터 용서해 놓으시고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지, 시간적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2,000년 전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용서를 해놓으시고는 지금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아 주었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도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매일 새벽 그의 집으로 찾아가 빚을 갚아달라는 간청을 거듭거듭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무지입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으니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데도 매일 새벽 울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며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만큼 오히려 가증한 죄를 점점 더 쌓아나가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 49. “내가 곧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대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 장소인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하게 되어 있고 다만 대 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4)

그런데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마 27:50, 51) 그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즉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यो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9, 20)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롬 5: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요 10:9)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2,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인할까’(403)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거듭 반복했던 말씀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재 미국(지구상)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1,100만 명(70억)의 불법체류자(죄인)를 비유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제발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Truth is not feeling, but logic.’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끼려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사실인지 이치적인지를 따지겠다는 냉철한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신분이 그대로 있는 한 전원 예외 없이 추방(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시민권(구원)을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시민권을 취득(거듭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길뿐입니다.

같은 예화로 어느 산골출신 재벌 한 분이 과거에 돈이 없어 공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어 앞으로 ‘100년간 그의 고향동네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 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대학교육까지 무료 장학금을 주라’는 유언과 함께 전 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고는 세상을 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50년 후에 내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 경우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 나의 사람 됨됨이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아무리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해도 내가 장학금 받아가기를 거절하는데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죄를 담당(사면)하시기 위함이라 하시며 십자가에서(사면작업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아이까지 전체를 포함한(나 개인의 입장으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사면이냐, 아니면 그들 중 선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등 선별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하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역시 노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역시 미국시민이듯이, ‘구원’이란 것은 ‘신분’에 관한 문제이지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행위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단군(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태어나고 보니 한국인(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되었고, 같은 이치로 이제는 역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고 보니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사면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미 ‘의인’의 신분으로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쁜 소식(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실지로 내 것이 되어서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측에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내려 보낸 공짜 선물이긴 하지만 ‘내 것’이 되려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했지요. 즉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불법체류 자(죄인) 임을 자수하여 등록을(인정=회개) 해야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의 사면 약속을 ‘믿고’ 시청에 가서 시민 증서를 ‘받아’와야만 최종적으로 내 것이 되어 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야만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아무리 값진 생일 선물을 내게 주었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듯 말이지요.

앞에 말씀 드렸던 것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구원’은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의 구원’이요,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구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육’이나 ‘혼’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그대로여서 가시에 찔리면 똑같이 통증을 느끼고 성적 자극에는 똑같이 성욕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경우 똑같이 슬픔을 느끼듯, 구원은 ‘영’의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 성이나 감정의 느낌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 이해하시지요?

다시 반복하자면 첫째 시민권자가 되는 데는 나의 육신적 인간성의 아무 전제 조건이 없었다는 것과, 둘째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내 육신적 사람 됨됨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고맙게도 이제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과거의 나쁜 성품을 고쳐나가며 미국(천국)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생활(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지요.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그 처벌에 있어서 불체자의 경우는 ‘국외’(지옥) 추방이요 시민권자는 ‘국내’형무소(상벌) 형이라는 차이임에 혼돈 없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긴 글들의 핵심 내용은 당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자수(회개)하고 등록하라는 것과, 사면의 소식을 듣거든 의심하거나 또는 지식으로만 알고 집에 머물러있지 말고 시청에 가서 공짜로 주는 선물(시민증서)을 실지로 받아(믿음)오는 과정까지를 밟아야만 그 선물(구원)이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 속에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환자만이 의사가 필요하듯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요, 또 구원은 하나님 측에서 아무런 조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걸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어쩐지 너무 허전해서 오히려 받아드리기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말씀에서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 아직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랑하는 젖먹이 나의 아이에게 무엇인가

를 해주려 할 때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까, 흐르는 계곡 물에 떠내려가 몰사할 위기의 개미떼를 불쌍하여 구출해 주려고 조그마한 나뭇가지 다리 하나를 놓아 주면서, 나와 상대도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인 개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 50. 이제 죄는 ‘믿지 않는 죄’ 단 한가지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라”(요 1:29)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온 세상의 죄’라 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역사 가장 마지막에 태어날 아이의 죄까지, 나의 죄는 물론이요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사람 누구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인류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엘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죄 즉 ‘믿지 않는 죄’가 있을 뿐인데 그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짜 선물을 주었는데도 받기를 거절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6~18)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게 하여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무 요구조건 없이 누구든(whoever)이 사실을 받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엄청난 초청을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면 감히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기대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와 같이 악독한 사람도 만약 자기 직전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들었던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성경구절이 떠올라 그것을 믿었더라면, 그도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사람이었음지라도 만약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았다면 예외 없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이치를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어떤 분이 백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돈을 찾아가라고 전화나 편지를 해도 찾아가질 않아 당국에서 사람을 직접 보내 당첨 통보를 해주었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 받기를 거절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무리 당첨이 되었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백만 불은 자기 것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광 정글 속에서 굶어 죽기 직전인 일본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시내로 내려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미군에게 발각되면 죽는다고 하여도 나오질 않습니다. 20년 전에 전쟁이 이미 끝이 났다고 설득하는데도 믿지를 않고 정글에 그대로 숨어 있는 한 그에게는 아직 ‘해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굶어 죽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은 벌써 2,000년 전인데 아무리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놔어도 내가 믿질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

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병사가 그 소식을 오늘 듣고 오늘 믿어지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곧 오늘이 해방된 날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209)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405)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138)

내 죄 사함 받은 날이 오늘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यो, 실지는 2,000년 전인데 그것을 오늘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의미의 ‘깨달았다’는 한국말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어 ‘Eureka!’(I have found it!)에 해당될 수 있는 뜻일 듯합니다.

근래에 와서 T.V나 computer 등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전파의 원리들이 20세기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원리들을 이제 와서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죄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 있는데 나는 그 소식을 오늘 듣고 오늘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에 관한 이제 와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 따위를 구분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개개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 자체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경시켜 주셨다는 개념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앞에 예를 들었듯이 노예는 아무리 착실해도 노예이고 아들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역시 아들인 것은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신분이라는 것은 나의 기분에 따라 또 나의 실수 여부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

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전체가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해놓고는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일 것인데, 역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신 대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사 52:3) 하시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대로 ‘구속’ ‘속량’(redemption)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마귀의 소유였던 나를 이미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My soul is purchased by His blood) (Jesus paid it all, all to Him I owe. He washed it white as snow.)

다시 강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고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식용 십자가목걸이를 보며 논리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물론 예수지요.
- 왜 죽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지요.
- 당신의 죄는요? 물론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 물론 2,000년 전에 죽었지요.

- 그렇다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사해졌지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지요.
- 그 효력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입니까? 물론 영원이지요.
-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것인데요? 그래도 ‘죄인’이라는 정죄함은 없지요.
- 그럼 당신은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 ‘의인’인데도 지옥에 가게 될까요?
- 당신의 대답은?: Yes( ) or No( )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얻었노라’와 ‘얻을 것이노라’와는 글자 몇 개의 차이지만 결과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가진 목걸이 십자가의 뜻은 이분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입니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노라’입니까? 당신 십자가 목걸이의 뜻은 ‘나는 이분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에서 ‘믿는 자마다’를 아래처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울법을 잘 지키는 자마다), (착하게 사는 자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자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경우가 정답입니까?

어느 귀족 집에 노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평생을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주인이 죽으면서 선물로 무슨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을 기념품으로 예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는 그것을 매일 바라보며 주인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와서 보니 그 액자에 들어 있는 것은 주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의 수표였습니다.

여러분!

- 여러분이 귀중히 모시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몽땅 다 그리고 영원히 사해 놓았으니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message이지 않습니까?

-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것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 마태복음 요한복음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Good news’즉 아무 요구조건 없이 나의 모든 죄를 공짜로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지요.

- 벽에 걸려 있는 그리고 당신이 목에도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네 죄를 내가 몽땅 지고 이렇게 대신 죽어서 처리해 버렸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표이지 않습니까? 이 노예와 같이 벽에 걸어놓고는 장식용으로 걸모양만을 보았을 뿐 그 내용에는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던 어리석은 비극이 당신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  
송 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194)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까?

## 51.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하였지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잘 지키으로써 천국에 갈 수가 있도록 하게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게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 죄를 해결 하려면 예수라는 분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 내부로 침투한 마귀의 작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종교인이 되게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게 하되 자기들의 목표인 구원만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것을 성경을 교묘하게 변경시켜 율법을 잘 지켜 착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은혜’로 죄 사함을 받기는 해도, 그것이 ‘영원한 죄 사함’이 아닌 ‘과거의 죄만’이라는 사상을 기독교 내부에 침투시켜 오늘날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 즉 구별을 잘하라는 분부입니다.

편지를 받고는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도 않은 채 무조건 읽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로 착각하고 울었다는 예화 생각나시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 쓰인 내용뿐 아니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해당되는 시기도 구별이 되어 있기에 그것도 ‘옳게 분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은 그 수취인이 유대인이요 시기는 예수라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에 해당된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시기로도 그러하듯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아직 자기 마음에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율법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다음 구절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히 10:1)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

“그런즉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예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갈 3:19),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다.”(갈 3:23~25)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 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9~11)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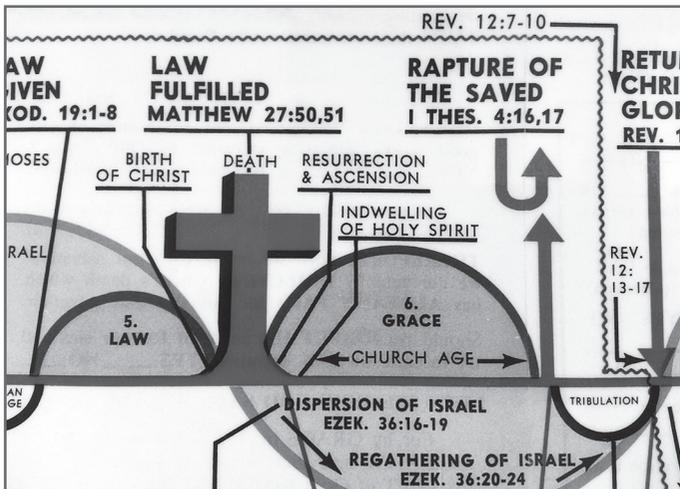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완전케 해야지 어찌 폐할 수가 있느냐고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요 19:30)는 말씀 속엔 모든 것을 이루신 광범위한 뜻이 있지만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신 말씀에는 율법과 종교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 구분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이 끝을 맺었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 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사람이니라”(마 11:13, 14)고 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마지막 기점으로 하여 구약시대는 끝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서른 살이 되실 때까지는 활동의 기록이 거의 없었다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마4:12, 17) 하시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신약시대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Plan of the ages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인 왼편의 5번은 LAW(율법=구약),  
오른편의 6번은 GRACE(은혜=신약)]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하신 말씀이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마 9:14~17)고 하셨습니다. 율법(구약)과 은혜(신약)는 섞지 말고 완전히 구별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요 1:17)

여러분들 중 만약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갈 5:3)는 말씀대로 나에게 쉬운 것들 중 몇 가지만을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이 규정한 규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제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또 안식일도 지키려면 만약 범할 경우는 “반드시 죽일지니”(민 15:35) 하신 말씀대로 죽어야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물론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 52.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성경에서는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들 중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집단으로 형성된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방인=새 번역 성경)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고전 10:32)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롬 2:14)라는 말씀대로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이방인을 하등으로 취급하면서 이방인과의 상종을 회피해 왔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형성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곱지 않게 생각한 같은 교회 내의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를 예루살렘 본부에 보내 이문제의 결론을 구하기로 한 내용이 사도 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율법)를 제자들(이방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하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율법을 지키라고)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이방인)를 괴롭게(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마음을 혹

하게 한다 하기로... 유대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율법)도 너희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행 15:1~29)

이 외에도 수백 가지도 더 되는 잡다한 다른 모든 율법들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방인이면 유대인인척 하지 말고 이방인답게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유대인)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이방인)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 7:17~24)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것 역시 ‘하지 말라’를 ‘하라’로 착각하여 유대인 행세하는 사이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Replacement theory’(대체론)라 하여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고 ‘영적 유대인’인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 이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징적 의미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민의 실질적 역할은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율법아래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동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22)

어떤 법조문 따위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보다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는 일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53. 구원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시오

그렇다면 이제 율법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말장난일 뿐 정말로 구원 받았다면 실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법에 저촉되어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운전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느 처녀가 봉제 공장의 직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출퇴근 시간도 엄수하고 점심 식사 시간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총각 사장의 눈에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 회사 사장의 사모님이 되었으니 회사 사칙 아래 매이지 않게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퇴근 시간도 안 지키고 공장 내의 모든 장비들을 마음대로 때려 부수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 실지는

직공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장과 결혼을 해본 그 여인만이 그 심정을 알 수 있듯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경험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음을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직공으로 있었을 때와 공장 주인이 된 이후 중 어느 경우에 그 공장에 손해를 끼칠 행동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 6:15)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갈 5:13)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 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 2:16)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3)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 혼, 몸 중에서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써 이제부터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하신 말씀대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은 죽거나 새 몸으로 휴거될 때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인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 것을 괴로워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죄)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7장, 8장)

구원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는 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시느니라.”(롬 8:26)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356)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요 13:10)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요 13:10) (요일 1:9) (시 51:1~)

목욕을 하여 온몸이 깨끗해졌어도 생활하면서 더러워진 발은 수시로 씻어야 되듯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몸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묻혀 들어오는 죄는 그때그때 자백함으로써 씻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히 12:5, 6).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 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5:1~5)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아들’의 신분으로써의 벌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서모와 음행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 육신은 죽게 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 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8~15)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훗날 날날이 ‘반드시’ 계산을 받아 상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54. 그래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긴 역사를 통해 이처럼 엄청난 계획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요구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이것을 받아들기만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한다면 무서운 진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겨졌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구출하여 주려는 성령과 어떻게 하던지 방해를 하여 자기 부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 되느니라 하시더라”(마 13:18~23)

아직 ‘깨닫는 자’가 아닌 한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인정한다 해도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읽은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이상 네 가지 경우 중 현재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 가장 위험한 상태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머리로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지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닌데도, 그 ‘기쁨’을 구원으로 착각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깨달은 후 요란스럽게 기뻐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외적 반응 없이 조용히 속으로만 간직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지 그 반응 자체로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은 상태이면 구원이 아님을 스스로 진단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죄 사함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읽는다 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구원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거부감이 있고, 간증을 해 보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구원 받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고, 웬지 구원받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은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태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 8:11)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20),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 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 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 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 2:3~5)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22:12~14)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명 29:19~22)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 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치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 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잠 1:24~33)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 하여 피곤하리라”(암 8:11~13)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 하시나이다.”(시 22:1, 2)

이런 말씀들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글을 다시 한 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을 마치면서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읽고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직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100%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읽으시길 권합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신 분은 주변에 같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아 교제하면서 정확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아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해 주시고 선교용으로 널리 사용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땅, 같은 핏줄이면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북녘 형제,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가장 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북한선교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 구입에 지불하신 돈은, 통일 조국 2,500만 북녘 동포에게 복음 전할 선교자로 양성하기 위해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여 데려오는 일과, 그들 복음전파 자로 양성하는 일을 위한 헌금으로 쓰이길 소망합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들은 웹사이트 [www.bbmedicalmission.org](http://www.bbmedicalmission.org) (Back to the Bible Medical Mission)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에 널리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소위 모태교인으로써 1973년 미국으로 이민오기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과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동안 많은 질병들이 정신영역과 연계 되어 있음을 보면서 정신과도 전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과를 공부하면서부터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 하면서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 공포 같은 정신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책으로 ‘절대자’의 존재설정이 필요하여 인간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심리학의 이론은 아무 거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기독교는 예외라고 하며 기독교를 아직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에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또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순된 행태들을 보면 볼수록 기독교도 그들 종교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사상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새벽마다 찬물 떠놓고 뒷마당에서 자식을 위해 두 손 비비며 비는 것은 ‘미신’이라 하여 경멸의 대상이 되고, 도시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식 위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종교’라 하여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빌고 있는 모습이나 그들의 교육 정도 등 외형적 차이만이 있을 뿐 내면 심리상태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세상 모든 다른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힘이 강한 쪽은 진리로 군림하고 약한 쪽은 밀리는 힘의 원리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체면이나 창피를 초월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 했었는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분석하게 된 것은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실은 속마음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잃어버린 다섯 살짜리 아들을 십 년 만에 그 어머니가 찾아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 당신이 내 어머니인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라며 믿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면, 심리학이 무엇인지 전연 알지도 못하는 무학의 시골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 이 애가 나를 어머니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현상을 기독교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주여...! 하며 큰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분을 끌어와야 되는 즉 내 속에 주님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인데도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눈을 뜨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인상 찌푸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까 부터 시작하여 있다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상상으로 만든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며 그를 찾으려고 인간힘 쓰고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떠올리는 ‘하나님’과 물리학 박사 교수님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대상일까? 재벌 집 아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평생을 고생하며 자란 고아원출신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경건한 천주교인이 상상하는 하나님과 성령 받았다고 양팔 쳐들고 발광 하듯 방방 뛰는 다른 교파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과연 같은 대상일까요?

아무리 분석해도 ‘하나님’하는 단어만 같을 뿐 분명 100명의 교인들이 100명의 각기 다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진짜로 하

나눔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믿는다며 부르는 그 대상은 참 하나님일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을 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더 이상의 추구는 포기한 채 다른 종교보다는 덜 미신적이고 더 현대적 이라는 차이일 뿐 기독교도 그들 종교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답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 사람에 의해 전통화 된 기독교라는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 원본인 ‘성경’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독교계의 불합리를 보는 대신 성경으로 돌아갔었더라면 갈등의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에도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독교계의 불합리한 것들을 늘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더 모으기 위한 의도로 매주 주보에 현금자의 명단과 액수를 발표하는 문제, 금식이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고 길게 말을 늘어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를 권장하는 문제 등등 성경과 다른 정도가 아닌 오히려 정 반대되는 것들이 오히려 정상인 것으로 인정받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하는 말씀 때문에 불만을 감히 밖으로 표출하지는 못하고 억눌러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한국의 유명한 C. 목사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다스니 병을 고친다스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원래 싫어했기 때문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성가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스치는 생각이 만약 그것이 진짜 성령에 의한 역사라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확실한 근거 제시도 못하면서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거절하며 버티는 것은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참석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찾아야겠다는 작정을 하고는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존재합니까, 만약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하는 난생 처음하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내가 증거로 요청한 것은 방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평소 소원하던 것을 얻는다면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되겠지만, 평소 경멸했던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심리적 현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며칠간 금식을 한 다음 몇 가정의 모여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옆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 속에서만 어물어물 하였는데 돌아가면서 등을 두드리며 더 크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옆 사람의 소리와 비교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점점 높여가는데 교만과 자존심의 마귀에 붙잡혀 아직도 체면을 보느라고 소리를 더 높이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체면의 마귀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등을 두드리대며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 다그치는 그 아줌마 목사님 앞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체면의 탈을 벗기로 작정하고는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더 크게 더 빠르게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갈망하고 있던 소위 미국 일류 대학의 수학교수 박사 부부, 물리학교수 박사 부부, 정신과 의사 부부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방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면의 사진은 그 교회에서 1970년대에 발행한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기쁨과 그 동안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뒤범벅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이

후 하루하루의 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공중에 붕 뜬 문자 그대로의 황홀경이 있었습니다. 이젠 창피함도 없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진짜 방언이었을까 하는 실낱 같은 의심이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였는데 계속 침공해 들어오는 의심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또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정신과 강의시간에 ‘glossolalia’라는 것과 ‘psittacism’이란 항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어느 것에 몰두하여 심취된 무아지경(ecstasy, trance state)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억제 할 수 없는 방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전 상태를 대입해보니 그 당시 무엇인가 찾고자 간절했던 갈망과 몇 일간의 금식, 또 집단 최면상태 등 그런 현상이 일어 날 수가 있는 교과서에 기록된 대로 꼭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방언도 했고 행복한 황홀경에 도취된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구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마취 주사에 취해 있었음을 아슬아슬하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Shakespeare의 말대로 방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방언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또 종교 아닌 어떤 심리적 최면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Las Vegas나 cruise 여행에서의 최면 쇼(hypnosis show)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심리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방언과 내가 ‘만들어낸’ 방언을 구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지시를 받을 때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도록 그분이 만드는 것은 ‘주신 방언’이요 받

기를 바라는 나의 의지로 분위기나 심리상태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간 결과, 심리학적 현상에 의해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리므로 하나님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살후 2:9~1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알지 못하리라... 나를 떠나가라”(마 7:21~23) (눅 13:22~27)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기독교인’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불신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여기서는 불신자들은 너무 당연하기에 아예 취급도 않았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것, 즉 ‘기독교인’들 중 majority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로써 이런 말씀들이 다 내게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976년 의과대학 동창회를 어느 후배의 집에서 했는데 그의 부인이 밀도 끝도 없이 “김 선생님 거듭 나셨습니까?”하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괴씸한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기독교인인 것 같기는 한데 신앙심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남편 교회에 인도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 같은 ‘모범신자’에게 감히 그런 건방진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시 발표장에서 ‘당신 아들 합격했습니까?’하는 질문에 화를 버럭 낸다면 그 사람의 아들은 합격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는 심리반응을 적용할 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나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은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그 부인이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주었는데 집에 돌아와 읽어보니까 John Wesley가 거듭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Oxford 대학에서 명성을 떨치던 유명한 목사였었던 그는 미국 Georgia 선교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중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 아래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직전인데도 평안히 찬송을 부르는 작은 무리의 Moravian교도를 만나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선교여행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을 때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실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라는 말에 양심의 찢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나와 평안한 저들이 무엇이 다를까 양심에 고민 하던 중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Moravian교도들의 어느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로마서 1장 17절 강해를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그 때부터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외치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 하여 영국 국교로부터 축출 당해 새로운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감리교였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단순한 것 말고 ‘더 잘 믿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사실 ‘You must be born again.’이나 ‘Are you saved?’ 하는 말은 처

음 받는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온 곳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West Virginia의 Wheeling이라는 시골이었는데 그곳의 미국 장로교회를 다녔었습니다. Dr. Peterson이라고 기억되는 목사님은 매주 설교 끝날 때마다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은 남아서 상담을 받으라고, 또 성찬식 때는 한국에서처럼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있는 분은 참여하십시오, 하는 식이었습니다.

장로 교인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은 자발적이었던 역지로 끌려 왔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만세 전부터의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미국식은 좀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다음해인 1974년 부활절을 맞아 미국 주류 TV에서는 일 년 전 100만 명 청중 앞에서 한 Billy Graham의 여의도 집회 설교가 며칠 밤에 걸쳐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한 달 전인 1973년 5월의 집회로 나도 참석을 했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기억뿐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TV 바로 앞에 앉아서 들은 설교들의 매일 밤의 결론은 50년을 기독교인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신학교를 나와 목사나 신부가 되었어도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똑같은 결론 'You must born again'이었습니다. 이때도 미국 기독교는 한국과는 좀 다르구나, 좀 더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1974년 Ann Arbor, Michigan으로 이사 와서는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 시간차를 맞추며, Grace Bible Church라는 Michigan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하는 미국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Dr. Raymond Saxe라는 담임 목사님은 유대인인데 장로교 목사로서 있다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 매주 설교 때마다 더욱 지독하게 '죄 사함 받은 여부'를 구체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1977년 여름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선민’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경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과 차별화 하는 것에 대해 늘 의문과 불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혜를 독차지하는 민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 하여 자기들보다 한층 하등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따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회교의 알라 만이 유일신이라 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고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가 참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인데, 어찌다가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미국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에 따라 기독교에 접촉되어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 종교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하게 된 숙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성경얘기를 듣던 중 ‘선민’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급을 잘 통설하기 위해 담임선생이 한 학생을 선택하여 앞에 세워 벌을 주는 경우, 그 선택 받은 한 학생은 나머지 59명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선택된 오히려 불행한 학생이지 선생님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지구의 한 “중양에 거하는”(겔 38:12)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명 7:7) 민족을 택한 것이 곧 유대인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그들이 대신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선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주된 목적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라 하는 인물을 탄생시키려 하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증거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사 43:10) 하신 말씀대로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미신적 대상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참 하나님을 찾으려면 증인인 유대인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 아닌 이렇게 직접 성경을 펴놓고 하는 일대일 성경공부를 아마도 처음 하면서 작은 흥분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구절들을 찾아 직접 보며 발견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가 잘못 될 수는 있어도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경은 심리학과 배치됨이 전연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나의 마음속에 억눌려 왔던 비판적 마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했던 비판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Chicago 어느 대학에서 Ph. D. 학위를 받으셨다는 감리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John Wesley의 ‘Born again’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작 자기는 최근에야 born again을 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을 저 한 사람만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난 후 오래 전부터 죄 문제로 고민하면서 옆에서 덤으로 듣고 있던 집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사함을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지 실지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과, 따라서 지금 죽는다면 지옥 직행이라는 것만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기독교인으로써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죄 문제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했을 때,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논리를 이론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써의 나의 과거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심각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더구나 그 죄가 해결된 경험을 가진 적은 전연 없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평생 동안을 내게 필요도 없는 예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던 것입니다.

당시 Ann Arbor News라는 지역신문에 Billy Graham 목사님이 쓰신 ‘Head and the heart’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전에 들었던 설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30cm 여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50년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써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왔었다 하더라도, 또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머리로만 믿고 있던 그 믿음이 30cm 여행을 하여 마음에 믿어져 확실히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이 교리가 아닌 경험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었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도 진단되었습니다.

이젠 죄인임이 확실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죄인임을 느껴보려고 무척 애를 썼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교만과 위선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는 있지만, 이론적인 인정일 뿐 그 정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리라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나는 정 반대로 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지막에는 너무 답답하여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히 4:12,13) 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공중목욕탕 탈의실 큰 거울 앞에 별거벗고 서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였습니다.

순간, 옷을 완전히 벗은 나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받고 있는 완전한 위선자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목조목 나열된 그 어떤 죄들보다도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착한 척 행동했던 위선이 진짜 가장 큰 죄임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죄인인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 해결법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과 ‘사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또다시 봉

착하게 되었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나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고민은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지나가버린 주님을 어떻게 만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싸매고는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 나중에는 너무 답답하여 이층 방에 혼자 들어가 큰 소리로 또다시 울어버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내일 떠나신 다는데 그러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지금 주님이 저 앞을 지나가신다면 당장 뛰어나가 만지겠는데, 2,000년의 시간과 유대 땅과 미국이라는 공간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온통 차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는다면 지옥 직행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에,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삼가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마지막 약속 시간인 내일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초조한 마음으로 약속한 장소에 도달해보니 그 교수님은 이미 먼저 온 다른 분과 상담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다 틀렸구나, 크게 낙담하여 소파에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체면이나 자존심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상태라 옆에 있던 이전 그 후배의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무엇이든 좋으니 성경 얘기를 해주어 살려달라며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되어 그가 읽으라는 명령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를 읽어나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니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내 손에 들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쉽게...?’

멀리 하늘 위 어디엔가 상상의 세계에 계신 줄로 찾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으로 계심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안도와 허탈함이 섞인 긴 한숨이 나오면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나)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저희(나의) 죄와 저희(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9:12, 10:10~18)

십자가를 상상하며 이사야 53장 아래 성경구절을 예수님과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찢림은 김홍식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김홍식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홍식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홍식이 나음을 입었도다. 김홍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김홍식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김홍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론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줄줄이 연결되며 나와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 믿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정말이지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1977년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의 일인데,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찬송 가사를 쓰고 있으려니 그때의 눈물이 그때와 똑같이 다시 눈앞을 흐리게 합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모두’ 그리고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알아졌다기보다 알았던 것이 확실히 깨달아졌다는 표현이 더 실감 있습니다. Archimedes가 해법을 깨닫는 순간 ‘Eureka!’(I have found it!) 소리 지르며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흥분한 상태로 벗은 줄도 모르고 거리로 뛰어나갔던 그런 것…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흔들림이나 변함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오더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정이란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 다르며 그 표현도 다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펄쩍펄쩍 뛰는 듯 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혼자 가 되어 감사의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반응은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 각각 다르기에 그런 것을 보며 나는 왜 안 그럴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죄 사함’이 확실히 믿어졌는지만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변화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 첫째는 한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 그 이후 세상 모든 것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며 생의 목적과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세상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명예 같은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성공'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그러면 그렇지, 이런 확실한 것이 있었기에 옛날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 목숨까지도 달게 내 놓았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문제를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맨 첫 번으로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 신앙생활 활동의 동기가 의무감이나 상벌을 염두에 둔 것 아닌 자연스롭게 주변 영혼에 대한 걱정과 관심 때문인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성경말씀이 '꿀 송이보다 달다'는 말 정말로 사실이요 미치도록 성경이 읽고 싶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혼돈스럽던 말씀들이 대부분 쉽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 종교 의식이나 외형적 형식이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렸으며 거룩한 척 꾸미려 했던 나 자신의 위선적 태도가 역겨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말이지 이 문제는 교파나 소속교회와 0%도 관계없으며, 나의 인간됨됨이와도 아무 관계없고 종교적 행위나 열심과도 아무 관계없는, 주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맺어주신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 초판 발행 후 본문 관련 내용 중 신문 잡지에 기고한 성경 관련 원고

**발언대**

### 상식의 기독교, 비상식의 기독교인

'기독교 위기 상식회복에 담 있다'라는 중앙일보 장영 차장의 글을 읽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많은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동의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해결책은 '상식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정확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낡 때부터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에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거부감 없이 믿도록 하려면 먼저는 내게 호감을 주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배타, 독선, 특권 의식, 위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호감은커녕 가장 혐오하는 집단들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 끝에 '상식 회복'이 답이라는 처방을 제시했는데 상식이란 기독교 종교의 교본인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식들은 지속적으로 가는 이웃 구해주라, 어려운 이웃 돌보라, 서로 용서하라, 겸손하라, 다른 사람 잘못



**김홍식**  
은퇴의사·라구나뉴츠

보더라도 그것 고치는 일은 내가 할 몫이 아니라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 등 한글 읽을 줄 아는 초등학교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신학박사 수준의 높은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 하는지 그 기록의 정반대만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 걸림을 읽은 같은 날 GMMMA라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개의 각기 다른 단체, 다른 교파 출신의 1000명 가까운 수의 영어권 젊은 의료인들의 해외 선교 활동 콘퍼런스였는데 거기에서는 같은 한국인, 같은 기독교인들였는데도 기성세대들의 '위기'와 규명하게 대조되는 젊은 세대 기

독교인들의 '상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의사 하던 '돈벌이'가 연상 될 정도였고 아마도 그들 부모들도 그런 기대로 그들을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락한 장래가 보장된 쉬운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기독교의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길로 들어선 젊은 후배 의료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흐뭇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선에서 온갖 고초를 겪어오며 기독교인의 '상식'을 이행하고 있으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 주십시오" 하는 무언의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이곳 후방의 우리들은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교회 당 건물 호화롭게 꾸미기, 나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 교리 다툼,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이비이다 이단이다 정죄하고 몰아붙이는 일에 온 예나 지를 쏟고 있는 '몰상식'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다른 문제 이전에 기독교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식 결여'의 문제입니다.

결국 '상식 회복'만이 해결의 답일 것입니다.

(19-9월 중앙일보)

▲) 회상과 회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OC사랑방

####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는 형상일 뿐 그것들이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생명의 본체이며 또 그것이 우리 몸 어느 장기에 위치해 있을까 하는 문제는 오랜 동안의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근래까지도 이마도 심장이나 또는 뇌에 있었지 하고 딱연하게 생각하는 경도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을 만들고, 또 사고로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어도 의식이 없어질 뿐 역시 살아 있는 것을 보니 그것들이 생명의 본체가



**김홍식**  
은퇴의사·라구나뉴츠 거주

아닌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모두 어느 기능을 위해 일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위장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한 기관이고, 폐나 심장은 그것을 정화하는 기관이요, 신장이 아무 중요하다고 해도 한 구석구석에 퍼져 보내기 위한 펌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총지휘하는 통제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90년 전의 걸린 후 약이나 50년 전에 걸렸던 매독이

나 간염을 찾아대려면 뇌 검사야 난 피 검사야 하는 것입니다. 최신 의학계에서도 최근에 의해서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놀랄게도 성경은 아담과 노예 3500년 전에 '유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11:11,14)라는 정해진 선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심은 사망이라'는 법칙에 따라 내 죄의 대가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나의 피를 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노래대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나 내신 줄이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10-16-14 366)

## 너를 못 만나는 엄마의 마음

생후 6개월 때 한국에서 LA지역 일본계 가정으로 입양된 36세 케이리라(Kayla)의 얘기를 중앙일보에서 읽고 이 글을 쓴다. 먼저 지금 세 아이들을 입양하여 기르고 있는 내 딸보다 열 살이나 아래인 나이가기에 친근감으로 말을 놓을 테니 양해하기 바란다.

‘용서합니다’라며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 몇 가지 안에 담겨있는 지난 36년 긴 세월의 아픔 슬픔 고뇌의 여정, 그리고 아직도 남은 상처 보이는 것 같구나.

더구나 생모를 만나기로 되어 들른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 왔는데 마지막 순간 마음이 바뀌어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돌아서야 했을 때의 실망 아픔 분노... 그런데 그것들을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기까지의 고뇌는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하니 네 마음 조금은 이해될 것 같구나.

그런데 어릴 때 용서하기로 했었지나? 그동안의 본인이 아픔도 그려봤겠지만 엄마 쪽의 고



### 열린 광장

김홍식  
은회 목사

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만나지 않기로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꾼 엄마의 이유를 나는 물론 알 수 없는 없지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너를 위해서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집 안팎에선 물론 평생 곱을 죄인 취급 받게 모든 것 숨겨야 하는 ‘한국적’ 인 것을 내가 좀 더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구나.

피눈물 쏟으려 했던 아이를 포기하게 된 피차 못할 이유, 또 그것을 지금까지도 공개할 수 없는

어려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케이리라든 혹은 엄마를 잊고 산 순간도 있었을지라도 언마는 케이리라를 떠나 보낸 그 순간부터 기나긴 36년 간을 죄책감, 딸에 대한 그리움이 한 순간일 듯 허질 수 있었을까? 주위에 서 뛰어노는 또는 울고 있는 네 또래의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떠올리며 산았을까, 아니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오랜 생각과 고민 끝에 만나기로 결정했다가 포기하기로도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했던 마지막 순간의 고뇌와 아픔 어찌했을까? 얼마나 새끼를 위해서든 자신의 몸까지도 뜯어 먹게 하는 존

재인데.

기대 설레임 그리움 한이 없었겠지만 그 만남이 케이리라에게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 생각만 떠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망설이며 고민하다가 결정 내린 순간의 또 한번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케이리라가 성경을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된다는 설교 들어본 적 있었지?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사람의 형태로 내려 보내 십자가에서 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마음이 지금도 바로 그런 것이었으리라 나는 생각하기에 용서는 물론이요 네 딸대로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라며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는 기회로 연결되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3-27-18 중앙일보)

히미디

## 교회 변질의 뿌리는 ‘탈성경’

### 발언대



김홍식  
은회 목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종교개혁 당시의 정신은 500년 전 그 때뿐 아니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기독교가 존속하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할 모토입니다. 그것은 2000년에 걸쳐 서서히 변질되어온 기독교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자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주변환경이나 전통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변화 없는 완벽한 원본 그대로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사물의 판단 기준 역시 많은 경우 각자나 자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평은 어렵겠기에 지금 원본과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데 좀더 객관적이 되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을 향해하다가 조난당해 어느 섬에 도달하였는데 그 섬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아 외부 세계가 있다는 것도, 또 기독교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섬입니다.

구조될 때까지 1년을 채류하며 전도를 하다가 구조되어 그 섬을 떠날 때 성경 한 권을 주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할 하라고 당부를 하며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10년 후 다시 그 섬을 방문해 보니 1000명 인구 중 5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생겨나 있고 그때 주고 받았던 성경을 지침서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의 오염 없이 성경만을 기초하여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

의 모습과 비슷한 것 10%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본산지는 영국인데도 미국에서는 영구식 발음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현재에 갇혀져 있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이 ‘정통’으로 되어 있고 원본대로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판단기준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같은 장로교지만 본연할 때마다 이제까지의 형체가 갑자기 마귀의 자식으로 둔갑 했던 이럴 때부터 경험으로 보다 90% 한국교계에서의 분류는 그 섬 기독교인들은 ‘이단’ 집단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장차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게 되리라고 예측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의 변질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이 백성이 일술로는 너희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마 15:6-9)

이런 변질을 조장하는 주체는 마귀요 그들의 목표는 ‘구원’으로 자기 부하를 빼앗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숨쉬게 만드는 것보다 ‘구원’만을 쫓아 경건한 종교활동, 열성, 훌륭한 설교, 많은 성경지도자입니다. 또 미국식도 한국식도 옛날식도 현대식도 장로교식도 천주교식도 아닌 그곳에 성경의 목적인 구원 받는 역사 즉 새 생명의 영의 유무만이 그 것보다도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 해야 된다는 모토입니다. (11-9-18 중앙일보)